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
"자비실천과 전법은 둘이 아닙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부지런하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거리지 말고
탐욕과 인색과 성냄을 멀리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3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88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문화재 수리 혁신 대책 '허술'

문화재청이 4월 9일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실명제 등 25개 방안을 담은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불교계에도 이에 발맞추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자료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재료 인증제 및 목재 수림지 조성 부문. 전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이다. 문화재청은 단절됐거나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재료 · 기법의 계승 · 복원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재 복원용 목재 수림지 조성, 전통기술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은 "불교계 사찰은 전통적인 기법이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사찰들이 목재 수림지 조성 등에 연계해 참여했으면 한다"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 보존해 오고 있는 만큼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계 전문가들은 불교계에서도 전통기술 육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윤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연구실 실장은 "전통기술을 보유한 이들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가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이 전통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돼왔다. 불교계에서는 예전부터 스님들을 축으로 전통문화를 이어왔다. 성과주의를 떠나 긴 시간을 갖고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문화재 '수리실명제' 도입 등 25개 방안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발표
촉박한 공사기간 등 실질적 개선책 세워야

종단 차원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화재청이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 수리공사에 참여한 인력을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설계 도면 등 각종 자료와 공사 현장도 일반에 공개된다.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 실기와 현장실무 중심으로 개편될 뿐만 아니라 수리공사 감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수리기술자 의무보유제 폐지, 감리에 시민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좀 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 이번 대책에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실을 부르는 고질적 이유로 지적돼온 촉박한 공사기한 문제, 공무원 · 자문위원 등과 수리업체 간의 유착 등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특히 문화재 수리나 보수과정에서의 '자본적 보조 사업' 과정의 예산 전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본적 보조 사업'이란 사찰 등의 문화재 보유자가 공사를 위해 20%의 예산을 갖추고 정부 보조를 신청하면 80%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던 부분이다.

황 소장은 "수리가 잘되면 모르는데, 일부 금액이 유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수리업 등록요건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수리기술(기능)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입찰제도도 기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고, 부실 공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문화재 수리 시험은 관련 경력 공무원에게 주던 일부 시험과목의 면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0일 조계사에서 종단 개혁 20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낭독으로 법회 참가 대중들이 실천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교 개혁 새로운 의지 세우자"

조계종, 10일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법회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새 의지를 다짐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0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의 유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모든 출가수행자는 대오견성 생사해탈의 신심을 드높일 것 △중생의 삶을 외면하지 말 것 △바른 참선법을 세계화해 종단 개혁불사를 완성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밀운 스님은 유시로 '무원근(無遠近)'을 내리면서 호소문도 함께 발표했다. 밀운 스님은 "불교는 화합과 자비문중"이라며 "앞서 갈등으로 멸빈됐던 스님들이 시간이 지나 사면된 경우가 많다. 종단 개혁 20주년을 자축하면서 당시 멸빈된 8명의 스님들을 사면복원해달라"고 제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념사에서 "종단의 새로운 20년을 밝게 열기 위해서도 개혁은 간단없이 지속돼야 하며 그 정신은 매일 새롭게 조망돼야 한다"며 "오늘은 20년 전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도 새로운 개혁의지에 대한 다짐이 이어졌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외형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부대중 개개인이 신심으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면서 "개혁의 20주년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개혁 의지를 다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서는 종단 개혁불사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실천 선언문과개혁불사의 주요 참가자인 청화 스님(前 교육원장)이 기념시 '크게 울린 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3면〉

신성민 기자

서울 9호선 929역 '봉은사역' 확정

서울 지하철 9호선 929역 역명이 '봉은사역'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4월 9일 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9호선 929역 역명으로 '봉은사(코엑스)역'을 최종 결정했다.

봉은사는 "지하철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 공익성, 형평성, 이용시민의 편익성, 관광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봉은사로, 봉은교,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봉은역사공원 등 지하철 929역 인근의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봉은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929역은 지역 대표 명칭을 살린 봉은사역이 되어야 한다"며 역명 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결과 강남구청이 지난 1월 지하철 9호선 929역에 대한 선호 역명을 설문조사에서 봉은사역 58%, 코엑스역 35%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서울시 최종 방침 결정과 서울시보 고시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외사찰 관리 · 지원 중장기 대책 시급"

해외에 우후죽순적으로 산재된 사찰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지원을 위해 조계종 내 해외사찰과 포교를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사회부와 국제교류위원회는 4월 11일 화계사에서 '해외사찰 지원 및 관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단 해외사찰 관리 전담부서가 총무부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부로 이관되면서 총체적인 현황과 향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국제교류위원 정범 스님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해외 사찰 관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범 스님은 현재 해외 사찰은 설립 방식의 차이를 비롯해 △주지 인사제도 미비 △장기적 전력 부재 △전담 인력 전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스님은 "대부분의 해외 사찰들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기 때문에 스님은 법인 구성원의 일원이 돼 주지가 권한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개인 원력으로 창건된 사찰은 종단의 영향력과 관리가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11일 관련 토론회
인사 시스템 미비 등 '난국'
국제부 · 전담지원센터 등
상설기구 조속 설립돼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스님은 △국제 업무 협의 체계 상설화 △해외교구법 개정 △국제부 및 해외특별교구지원사찰 설립 △조계종 해외법인 설립 △인력 양성 및 파견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정범 스님은 "조계종의 국제화는 일개 팀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해외 포교와 한국불교 세계화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적 논의 체계를 비롯해 국제부와 해외특별교구지원사찰들이 확대 ·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찰들은 1세대 스님이 입적할 경우 운영 · 관리에 난맥을 보인다"면서 "현지 조계종 법인을 설립해 재산을 유지 · 보존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88호 INDEX

시방세계 5
선지식 해안 스님 '생전 장례식' 재현



연등회 및 봉축행사 일정 2·6

복지 7
승가원 장애바로알기센터 1주년

함께가요 강의실 8
양형진 고려대 교수 '과학과 불교'

불교로 읽는 고전 24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上)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원경 스님

45차 원로회의서 선출… 새 사무처장 광전 스님 임명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평택 만기사 주지 원경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지난해 9월 입적한 무진장 스님의 후임 원로의원에 원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경 스님은 지난 197차 중앙종회에서 단독으로 추천됐다.



원경 스님은 정은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화사에서 전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인 박헌영의 외아들로도 잘 알려진 원경 스님은 제10대 중앙종회의원, 흥왕사, 청룡사, 신륵사 주지,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승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 만기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사무처장 덕문 스님의 후임으로 前 총무국장 광전 스님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장 밀운스님, 부의장 원명 · 명선스님을 비롯해 종산 · 고산 · 도문 · 월서 · 혜승 · 현해 · 법흥 · 월파 · 종하 · 월탄 · 인환 · 정관 · 암도 · 근일 · 세민 · 정련 · 지성 · 성우 스님 등 21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봉행

불기 2558년 금강계단 구족계 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준비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 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발원하여
해당부분 전 종도 아래와 같이 제방에 준비 공고 합니다. (특히 법계 품수자는 준비에 만전을 기여할 것)

원로원장 대웅
교육원장 봉덕 고시위원장 일봉 고시위원 혜명, 대일, 의광, 무여
고시부위원장 용현

※ 사미계
※ 구족계 산림
※ 법계 고시
● 장소 : 법계고시사 관음정사(부산역 앞)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관음정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부산역) 문의처 : 총무 010-4566-4504. 051)442-5658. 468-5657 팩스 051)442-5659
호국불교조계종 http://jogyeong.kr / 관음정사 www.happybuda.kr / E-mail : OK-1207@hanmail.net
(社)護國佛教 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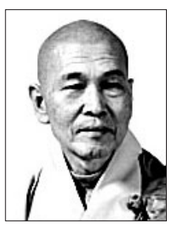
입종업체

우리춤 체조, 한국무용, 불교무용 연구소
● 원장 : 조론심
● 부산 금정구 남산동 99-30 051)512-0115. 010-3834-6677
● 우리춤, 체조 전문지도 자격증반 수시 모집중!

수봉전자(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9(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http://www.kukjeav.com
● 010-3832-8855 수봉 합장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승좌고불법회 열린다

4월 20일 대웅전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사진〉의 승좌고불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진우)는 "오는 4월 20일 오후 2시 대웅전 마당에서 지선 스님의 방장 고불법회를 봉행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날 법회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행장 소개와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의 추대 고불문이 발표되며,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불총림 유나 일수 스님과 선원장 무아 스님이 불자와 법장을 지선 스님에게 봉정한다.

고불총림 前 방장 서옹 스님의 전법제자인 지선 스님은 1961년 백양사에서 석산 상현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7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제주 관음사, 영광 불갑사, 장성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고불총림 백양사 유나, 백양사 수좌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내년 창종 50주년 맞는 관음종 기념위원회 결성

관음종은 내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음종은 4월 7일 실행위원회 결성회의를 통해 창종 50주년 기념사업 전개를 위한 전 단계로 태허 조사스님의 탑비와 부도를 출가 본사인 전남 순천 선암사와 협의해 봉안키로 했다. 이에 오는 6월 18일 제막식을 봉행함과 동시에 태허스님의 은사인 경운 원기 선사와 태허 스님의 사경과 관련한 세미나도 개최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창종 50주년 기념 본사업의 일환으로 관음종 50년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키로 했으며, 50년사를 책으로 묶어 전국사찰 및 도서관과 일반 대중에게 배포한다.

기념행사도 내년 10월~ 12월중 음악공연과 함께 성대히 봉행할 계획이다.

한편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봉행위원장으로는 홍파스님이, 실행위원장으로는 도각스님, 실행간사는 법룡 스님이 각각 선임됐다. 김주일기자

나누고 함께하며 '마음 등불' 밝히세요

연등회 4월 25~27일 종로 일대서… 봉축행사 주요 일정 확정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리고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한 봉축행사와 연등회 연등축제가 4월 한달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연등회 보존위원회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4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4월 16일 오후 7시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주요 봉축행사와 연등회 연등축제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광화문을 밝힐 조형등 '미륵사지 탑등'으로 국보 제 11호 익산 미륵사지 탑을 전통등으로 형상화했다. 크기는 좌대를 포함해 20m에 이르며 회화적인 면을 가미해 전통 한지 장엄등이 갖는 화려하고 은은한 맛을 살렸다.

광화문 점등식과 더불어 서울 종로와 청계천 등 서울시 전역에는 5만여 개의 가로연등이 설치돼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내외국인 30만명이 참가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연등회 연등축제는 4월 25일부터 27일 종로 일대에서 열린다.

4월 25일부터 조계사 옆 우정공원, 삼성동 봉은사와 청계천에서는 전통 등 전시회가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열린다. 조계사에서 직접 행렬에서 사용되는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청계천에 전시되는 등은 호국불교를 주제로 꾸며진다. 봉은사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린 등과 법고를 주제로 전문작가가 만든 작품 8점이 전시된다.

4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동국대 운동장에서 5만 명의 흥겨운 춤사위와 신나는 노래의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가 봉행되며, 직후에는 10만 연등 물결이 종로 일대를 수 놓는 연등행렬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연등행렬에는 최초로 천연 염색을 사용해 복원한 전통 한지 초롱등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또한 문헌으로 고증된 다양한 행렬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박상희 봉축위 사무국장은 "50년 전 만든 초롱등 모형을 노스님에게 지난해 기증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증해 복원한 것"이라며 "치자와 소목, 시금치를 이용해 천연염색을 해 전통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행렬등에는 초와 LED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등행렬 후 진행되는 회향한마당도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국민 불자 국악인 박애리 씨가 회향한마당을 통해 신곡 '초파일 아리랑'을,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 우순실 씨가 '벗이여 오라'를 각각 발표한다. 또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의 주도로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강강술래도 진행된다.

4월 27일 정오부터는 조계사 일대에서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진다. 올해에는 외국인 연등만들기 경연대회가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가족 참여로 확대돼 2번에 나눠 진행되며, 국제 부스에는 인도네시아 불교가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연등회 어울림 마당 모습. 올해에는 한지 초롱등이 처음으로 복원되며 소형 행렬등에는 LED 전구가 사용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오는 4월 16일 광화문서 점등식

'미륵사지탑등' … 플레시몹 시연도

천연염색 사용한 초롱등 최초 복원

"행렬등에 초 · LED 사용 확대할 것"

'이웃과 燈 나누기' 캠페인 최초 시행

회향한마당서 국제적 강강술래 예정

올해도 글로벌 서포터즈 활약 '기대'

올해 연등회 연등축제에서 주목할 점은 나눔을 위한 특별 행사들이 신설된 부분이다. 봉축위는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웃과 나누는 희망의 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에게 봉축등을 선물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7시 사측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초청해 위문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군부대 견학 체험(4월 18일),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4월 19일), 병원 어린이 환우 돕기(5월 2일) 등도 봉축 맞이 자비나눔행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은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의 활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연등회 서포터즈는 한국 관광공사가 모집, 주최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연등만들기 및 연등행렬관람 행사를 지원하며, 전통문화마당의 안내 통역 봉사, 연등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광화문 점등식에서 앞서 플레시 몹을 시연하고, 회향한마당에서는 강강술래를 주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불련 동문회, '통합' 선언

9일 백효흠 통합회장 추대
수석부회장 체계 조직 정비
대불련 지원 등 3대 원칙 수립



지난해 양분돼 내홍을 겪었던 대불련 동문들이 4월 9일 통합 선언을 하고 갈등을 마무리했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백효흠)와 전국동문회(대표 홍종표)를 비롯한 대불련 동문 단체들이 '통합 선언'을 하고 새로운 동문회 구성을 천명했다.

'대불련동문회'는 4월 9일 전법회관 중앙신도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선언했다. 이날 통합 선언은 지난해 2월 총회에서 회장 선출 파행으로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가 양분된지 1년 만의 일이다.

백효흠 통합동문회 회장은 "양분된 동문회였지만 동문들 각자의 마음에는 대불련을 아끼는 애정의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 원동력이 돼 오늘의 통합을 있게 했다. 다소간 분열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번 통합을 계기로 대불련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종표 통합동문회 수석부회장(前 전국동문회 회장)은 "백효흠 회장이 조직 개편 등 전국동문회의 요구를 수용하며 전격적으로 통합하게 됐다"고 했다.

대불련 동문회는 이날 '통합동문회 3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3대 원칙은 △대불련의 정통성과 체계를 계승하는 조직연합체를 기본으로 한다 △동문회 활동방향은 대불련 발전을 위한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사단법인은 통합동문회의 산하단체로 위상을 재정립한다 등이다.

백효흠 회장은 "명칭은 정통성을 지닌 총동문회로 할지, 새로운 통합동문회로 할지, 중앙동문회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인맥 중심의 동문회에서 각 위원회와 지역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불련 동문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 회장 선출에서 문제가 됐던 회칙을 개정한 상태다. 또한 4월 20일 임원과 지도위원 고문단 명예회장단 등을 재추대할 계획이다. 수석부회장은 홍경희(서울대, 여성 조직), 이영호(前 열린우리당 의원, 지역), 홍종표(세대 통합), 전명철(숭실대, 대외업무) 등 4명과 종단 관련 업무를 맡을 1명의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총장은 정용학 씨가 맡는다.

백 회장은 "올해는 동문회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통성 회복 및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는 동문을 결집해 지부를 22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세종시 사찰 건립 부지 확보

11일 부지 확정 발표… 연기면 전월산 일대

신도시 포교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조계종이 세종시 시대를 열어갈 사찰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신도시 거점 사찰 건립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내에 세워질 사찰 부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찰 건립부지는 연기면 세종리 7153-1번지(구 양화리) 일대 약3,000평으로서 전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충재 건설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현태 세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장 보경스님과 신도시 종책특보 허운스님의 부지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자승 스님은 "세종시에 건립되는 사찰은 대표적인 전통사찰로 건립하겠다"면서 "세종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찰로서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에게 한국사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청장은 "행정 수도인 세종시에 한국의 정신문화를 선양 · 선도하는 사찰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11일 이충재 세종시 건설청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조계종은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관련일정에 맞게 사찰 개원을 목표로 세부적인 불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매입한 종교용지로는 도량에 다양한 시설을 건립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종교용지의 추가 매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36개 부처가 입주해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을 위시한 각종 정부부설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하거나 이전을 준비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개혁은 진행형… 사람의 변화가 최우선”

94년 개혁 20주년 성과와 과제

서의현 원장 3선 반대로 시작
종권 사유화 막고 자주화 시켜
직선제 좌절 등 한계도 존재
“구성원 간 장벽 부술 수 있어야”



4월 10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 94년 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고산문화재단도 4월 3일 20주년 기념 포럼을 열고 종단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스님과 재가 10,000여 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3선 연임을 추진한 서의현 총무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김영삼 대통령 사과,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주장하고 결의했다. 상무대 비리와 공권력 동원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불교를 정화하기 위한 법석이었고, 94년 종단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94년 개혁은 현재 종단 전반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근간이라는 점에서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개혁회의가 내세운 불교개혁 5대 지표(△정법종단의 구현 △불교자주화의 구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가 제대로 완성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승풍 실추 사건은 여전하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종 종단 선거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시작부터 한계 보인 절반의 성공

1994년 개혁의 성과는 분명하다. 세속 정치세력과 결탁해 종단을 사유화하려 했던 기득권 세력의 전횡을 사부대중의 공의로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4월 10일 열린 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에서 “94년 종단개혁은 불교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종권을 사유화하려던 종단 지도부를 사부대중의 힘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종단 운영의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당시 개혁회의는 종단 정상화를 위해 총무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각종 요직과 이권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겸직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화 함으로서 승가교육과 포교가 사업 동력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은 종단 예산의 1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반면 한계도 존재한다. 4월 3일 고산문화재단이 개최한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유승오 삼화도량 사무국장은 ‘민주화’ 부문 발제에서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좌절되고 감사처 신설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종헌에 ‘사찰 재정 공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혁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종단 개혁 자체를 비불교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덕산 스님은 불교교단사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연구총서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에 수록된 논문에서 “4월 10일 승려대회의 집회 결의는 불교승단의 고유한 회의법인 갈마법 위반”이라며 “종단의 쟁의는 승잔법과 칠멸쟁법에 의거해 해결해야지 군중집회와 같은 세력과시로 해결하는 것은 비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구총서 관련 9면〉

개혁정신 기본부터 점검해야

4월 10일 승려대회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오면서 개혁의 정신은 잘 이어오고 있을까? 종단 주요 인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혁은 미완이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0일 세미나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돌아볼 것은 ‘94년도 입법한 내용을 잘 시행했는가’이다”면서 “개혁 당시 입법한 종헌종법들은 20%정도 시행됐다. 입법이 50%만 시행돼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정 스님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단과 승단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세미나에서 사회학적으로 개혁을 분석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정치·행정적으로만 개혁이 이뤄졌을 뿐 사부대중의 관계, 종단 문화 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 일상에 습관이 돼 있는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했다”면서 “우리의 관행과 의식 태도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없던 것이 개혁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는 사회와 철옹성이 둘러져 있고,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에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성벽이 있다. 미래 세대는 이런 장벽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불교는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개혁 성공으로 이끌까

이와 함께 94년 개혁 당시 좌절됐던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산문화재단의 20주년 포럼과 총무원 20주년 세미나의 일부 발제자들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화합승단을 목표로 하는 불교에서 대중소외의 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틈타 각종 악습과 승풍문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와 청정교단의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10일 열린 기념세미나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종도들 74.5%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비구니 스님 45%가 참종권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라면서 “20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지만 아직 종단적 토양이 그것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인권 말살 출입국관리법 철회하라”

마주협, 4월9일 관련 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의 주최로 4월 9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마주협은 이를 이주민을 차별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마주협 측은 “이는 체포, 수색 등을 할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할 경우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경 스님은 “정부가 배제를 원칙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며 현 개정안에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운을 뗀 공동대표인 회일 스님은 “이는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되는 법이다. 이주민노동자가 무작위 검열을 피해 종교단체에 피신할 경우, 정부와 종교 마찰은 계속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주협은 향후 시민단체와 연대해 개악안 제지 운동에 나서며 범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면담 추진, 출입국관리법 개선안 마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의 주최로 4월 9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회일 · 진오 · 탄경 스님.

남북민간교류사업, 이것만 알고 가세요

민추본 4월 9일 김이경 前 총장 초청 월례강좌 진행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남북민간교류,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4월 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3차 월례강좌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는 김이경 前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 前 사무총장〈사진〉은 손꼽히는 대북민간교류분야전문가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팁을 제공했다.



김 前 사무총장은 “대북민간교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척분야이기는 하지만 우선 남과 북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도지원이라는 가장 간단한 방식을 가지고서도 남과 북 서로 입장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배급체제인 북한에서는 밀가루 등의 원자재를 선호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체제 배불리기를 의심하며 영양가루, 분유 등의 완제품을 선호하는 것. 김 前 사무총장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국제인도지원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득을 내세우는 것은 북한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민족공동체적 이익을 북측에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들쑥날쑥한 대북지원책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지적하며 민간교류사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가보면 남측이 짓다만 병원이 부지기수고 재료를 대준다며 설립한 빵공장도 멈춘 곳이 많다”며 현 정부의 대북농업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사)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은 4월 5일 인사동에서 호기놀이를 재연해 시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을 선사했다. 사진은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전통 재연하며 연등축제 알려요”

봉축위, 호기놀이 재연행사

호기놀이는 초파일이 되기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이 연등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행해지던 고려시대 어린이들의 놀이다. 종이를 오려 기를 만들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들어 두드리며 떼를 지어 각 동네를 다니면서 등 재료 구입비용을 구했다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호기놀이가 서울 인사동에서 재현됐다.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와 (사)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은 4월 5일 인사동에서 호기놀이를 재연해 시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을 선사했다.

글 · 사진= 정혜숙 기자

봉 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大雄殿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2008년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된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약한 ‘녹원(鹿元)’이 수조각승을 맡아 1659년에 불석(沸石)으로 조성한 작품으로 문화재청이 3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장안사 대웅전(1657년)은 2012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주지 정오** 합장 051)727-2393

불기 2558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 일 시 : 2014년 4월 20일(일) 오후 4시 ~ 9시
- 행 사 : 달마퍼포먼스 5시 / 축하공연 5시 30분 / 봉축법요식 6시 / 제등행진 7시 / 경품추첨 8시 (자전거 10대. 가전제품 다수)
- 장 소 : 기장중학교 운동장 및 강당
- 주 관 :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및 연합신도회(회장 이재순)



주최 : 기장군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

일 주 문



제10회 오대산 디지털 사진공모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31일까지 제10회 오대산 전국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연다.(033)260-9280



보원사 철조석가여래 점안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4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돌려받은 서산 보원사 철조석가여래 봉안, 점안법회를 개최한다.



육조 · 진감 · 초의 108헌다례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스님은 5월 2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제12회 육조 · 진감 · 초의선사 108헌다례를 개최한다.



탄신494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5일 대흥사 보현전에서 탄신 494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동국대 일산병원 삼존불 점안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4월 9일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모시고 동국대 의료병원 법당 증축 기념 삼존불 점안법회를 열었다.



운암 김성숙 선생 45주기 추모재
민성진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의 제45주기 추모재를 개최했다.



법륜 스님 초청법회
노희경 정토회 길벗 대표는 4월 7일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법륜 스님 초청법회' 를 개최했다.

영석고, '영석파코' 봉사단 발대식



동대사대부속영석고등학교(교장 김태원)은 4월 9일 교내 법당 정심원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영석파코 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86명으로 구성된 파코 봉사단은 발대식 후 의정부시에 소재한 송산노인복지회관(관장 범일)과 봉사활동 협약식도 체결했다.

범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사활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단원들은 2인 1조가 되어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을 주1회 이상 방문해 목욕시켜드리기,말동무 되어드리기, 세탁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비전 돼 온 복장의례, 전승에 앞장"

秘傳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 설립



사진왼쪽 세번째부터 경암 스님, 성오 스님,무관 스님(보존회 회장), 도성 스님.

무관 스님 회장으로, 5명 스님 주축
복장 의례통일안 마련 첫 목표로
7월 시연회 · 9월 세미나 개최 예정

그동안 비밀리에 전수되오던 복장의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보존회가 창립됐다.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 보존회' (회장 무관, 이하 보존회)는 4월 10일 서울 자운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보존회 활동을 알렸다.

보존회는 불복장점안의식에 함축된 불교사상과 역사를 조명하고, 전통에 기반을 둔 21세기 불복장 점안의식의 새로운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에서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을 전수받아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2012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모두 5명. 이 중 무관 스님(조계종 법계위원)을 비롯해, 총무 경암 스님(조계종 단일계단 교수사), 상임회원 성오 스님(심향사 주지), 상임회원 도성 스님(복암사 주지)이 보존회를 구성했다. 조선시대 발행된 〈조상경〉을 중심으로 설행돼 온 복장의례는 그동안 설행자에 따라 복장물부터 그 절차까지 각양 각색이었다.

무관 스님은 "그동안 복장의례는 복잡 · 난해할뿐더러 의례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개별적으로 이어져오던 의식을 통일하고 보존 전승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론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시연회를 통해 여법한 불복장 점안의식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관 스님은 "복장의례는 물질로 이뤄진 부처님에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온 스님들이 공덕과 복덕, 지혜를 의미하는 복장물을 점안하여 예배의 대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라며 "배우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훌륭한 전수자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존회의 첫 번째 목표는 복장의례의 통일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관 스님은 "일례로 후령통을 종이로 제작하는 스님도 있고 은으로 만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논의를 통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관 스님은 "요즘에는 복장물로 오색실과 인쇄된 능엄경 등을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도 보았다. 복장의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존회는 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관련 경전인 〈조상경〉의 스님들 소장본 연구도 진행한다. 불복장 사례 및 전승사례도 분석해 향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지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종단 스님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보존회 명칭을 '대한불교'로 정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중 시연회를 열고 9월 중 세미나를 열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우 스님, 필리핀 파병부대 위문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4월 7~9일 필리핀 타클로반을 방문해 재해복구지역에 파견된 아라우 부대 장병을 위문했다. 이번 위문에는 군승 최선임인 2군작전사령부 남장 김갑영 법사와 국방부 근무지원단 경제 강의중 법사가 동참했다.

정우 스님은 4월 7일 아라우 부대(부대장 이철원 대령) 법당에서 부대안전 기원법회를 주관했다. 정우 스님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제평화지원단 법당에서 열린 필리핀 파병장병 환송법회에서 "인연이 되면 꼭 필리핀 현장에 방문해 법회를 열고 장병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군종교구는 필리핀이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성금 모금을 전개 160여건, 3700만원을 모금했다. 정우 스님은 이번 위문 일정 중 8일에는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 의 2차 지원금 2억 2000만원과 군종교구에서 모금한 3700만원으로 지원한 초등학교 9곳의 복구 완공식에 참석했으며 재해복구지역 현장과 무료급식소 및 의료지원 현장을 방문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신문 발간 3000호 기념법회



올해로 창간 54주년을 맞은 불교신문(사장 성직)이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그랜드볼룸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령 3000호 발간기념 축하기념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교신문이 사바세계에 탄생한 지 54년이 되는 날이요, 그 일성일성(一聲一聲)을 토해 낸 지 3000호에 이른 뜻 깊은 날"이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일등 포교사로서 불교의 대중화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으니, 호법신장이라고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불교신문 발행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지령 3000호를 맞아 불교신문 발행인으로 반세기 넘는 긴 시간동안 신문과 함께 해준 필자와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신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지령 3000호 발간을 계기로 더욱 문서포교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춘광 스님, 관문사 제 8대 주지 취임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서울 관문사 제 8대 주지에 취임했다.

관문사는 4월 6일 옥불보전에서 제 8대 주지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김회선 국회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해 주지 춘광 스님과 부주지 월도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춘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조화와 공생의 사회다. 이웃이 잘돼야 내가 잘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관문사의 모든 불자들이 이같은 마음으로 살면, 관문사는 서울시민의 귀감이 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무량종 창종 15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한불교무량종은 4월 6일 총본산 하동 칠보정사에서 '창종 15주년 기념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혜안 스님, 총무원장 보운 스님, 휴심선원장 종성 스님 등 종도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보살수계법회와 신임 총무원장 보운 스님(광양 신흥사 주지) 임명식과 산사풍물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수계법회는 종정 혜안 스님을 수계사로 700여명이 수지했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게이트볼 최강자를 가린다



강화도 전등사(주지 범우)는 4월 4일 강화군 길상면 공설 운동장에서 '제9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 를 개최했다.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맡는 게이트볼 대회는 역대 최다인 129개 팀이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게이트볼은 어느 운동보다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므로 대회를 통해 팀원 간 우의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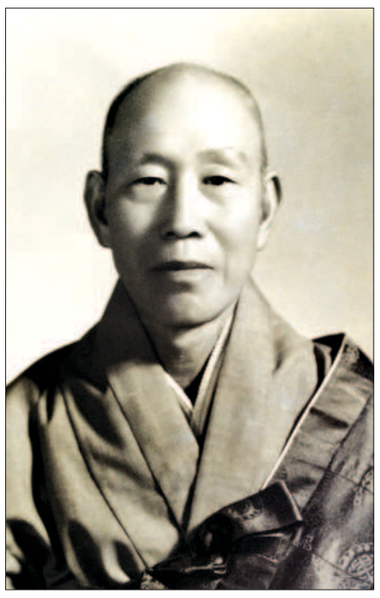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1961년 해안 스님의 뜻에 따라 살아계실 때인 회갑일에 열린 생전장례식 모습.(동명 스님 제공)



동명 스님의 은사인 해안 스님 영정사진



2014년 4월 6일 해안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전북 부안 내소사서 재현된 생전장례식 모습

다시 부르는 열반가 "꿈이로구나"

근대 선지식 해안 스님 40주기… '생전장례식' 재현 화제

생전 회갑연서 장례식 열고 무상함 설해
동명 스님 "은사 스님 가르침 계승 위해"
전등회원 비롯 700여 대중 법문 되새겨

"이것이 무엇인고 사대가 흩어지면 내 몸이 없어지고 마음인들 어찌 멸하지 않겠는가 몸도 마음도 모두 환(幻)이라 이제 다시 무엇이 있으랴."

호남 선맥의 큰 기둥이었던 해안 스님의 생전장례식이 53년 만에 재현됐다. 한국불교사에 유례없는 이번 장례식은 1961년 해안 스님의 회갑일 열린 생전장례식을 스님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재현한 것이다. 죽은 이가 타야 하는 상여를 산 사람이 타는 이날 생전장례식은 영상으로 녹화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생전장례식'에 동참하기 위해 스님의 상좌 서울 전등선원 선원장 동명 스님을 비롯한 500여 스님들과 스님이 생전에 지도했던 전등회 회원 등 전국각지에서 7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생전장례식에 앞서 해안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던 내소사 지장암 서래선원에서 7일 간 용맹정진하기도 했다.

동명 스님은 생전장례식 재현에 앞서 "오늘 우리들은 해안 스님이 남기신 생생한 가르침과 그 삶을 따라가려한다"며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보며 또한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생전장례식은 반야심경을 비롯한 간단한 불교의식과 함께 동명 스님이 지장암 서래선원 앞에서 해안 스님의 진영에 예를 올린 뒤 상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생전장례식에서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화암 스님, 현각 스님이 인례한 꽃상여는 지장암 서래선원을 떠나 일주문을 돌아 부도전을 향했다. 이는 53년 전 해안 스님이 회갑을 맞아 스스로 마련한 장례행렬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휴일을 맞아 내소사를 찾은 참배객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이 행렬을 지켜봤다.

동명 스님은 일주문을 지나 전나무 숲길을 거쳐 부도전에 이르는 동안 생전 해안 스님이 지은 열반가를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했다.

열반가는 무상의 가르침을 담은 것으로 세속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기를 당부하는 말이었다.

꿈이로구나, 꿈이로구나
사대(四大)가 무너지니,
육근육진(六根六塵)도 없어지네
나무아미타불

허망(虛妄)하네, 허망(虛妄)하여
환진(幻塵)이 없어지니,
환심(幻心)도 없어지네
나무아미타불

선운사 승가대학원 학인 스님들이 멘 꽃상여 뒤를 내소사 봉해선원장 철산 스님,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등회 회원 등은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부도전에 당도한 꽃상여에서 내린 동명 스님은 부도전에 올라 해안선사 열반 40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은사 스님의 장례행렬을 재현한 동명 스님은 남다른 감회에 북받친 듯 했다

다례재를 마친 동명 스님은 "은사스님의 진면목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싶어 생전 장례식을 재현하게 됐다"며 "다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해안 스님께서 생전장례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상여를 만들어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음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해안 스님은 1901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해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27년 내소사 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은 1932년 내소사 앞에 계명학원을 설립해 무취학 무학성년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벌였으며, 1945년 금산사 주지, 1946년 금산사 서래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1931년 월명선원에서 수선안거이래 36하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1974년 내소사 서래선림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올곧은 수행으로 제방의 모범이 되었고 재가자선방과 불교학교를 설립해 재가자수행과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금강경 해설 등 스님의 법문은 지금까지도 명강의로 전해지고 있다.

내소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은사 스님 가르침 널리 펼 것"
서울 전등사 전등선원 동명 스님



"해안스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이든, 농사짓는 사람이든, 스님이든, 누구라도 1주일만 수행 정진하면 도(道)를 깨달을 수 있다며 정진을 강조하셨다"며 "지금 비록 은사스님은 가시고 없으시지만, 53년 전 스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여러 스님들과 함께 걸으며, 삶이란 이런 것이 구나를 느끼게 됐다고 하셨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선원사 대중과 내소사 스님들을 비롯해 각처에서 참석해 준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동명 스님은 해안 스님의 생전장례식이 은사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로서 스님이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1961년 당시에는 내소사 1㎞ 인근에 1000여 명이 모여 스님의 생전장례식을 함께 했다.



4월 6일 생전장례식 이후 봉행된 다례재.



재현 장례식에는 500여 스님들이 참석했다.

우주적 진리인 신불교 영산불교가 21세기의 세계불교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5년 연속 초파일 12만 봉축연등 달성, 불자 여러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영산불교 현지사가 부처님 정법교단으로 순조롭게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영산불교 간행 불교서적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16주 1위,
운주사 연속 27주 1위. 15만부 돌파!!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저.
각 450쪽 475쪽 가격 각권 18,000원
베스트셀러

법문집
『자재만현 큰스님 법문집 1 ~ 12권』
자재만현 큰스님의 정기법회 법문을 모았다.

경전 및 해설서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영산불교 새천수경』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영산불교지장보살본원경』

행복하게 잘 사는 길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부처님천도까지』

신불교 영산불교의 법세계
『영혼체윤회론』『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붓다의 메시지 요해』『붓다의 메시지 존평』『영산불교의 법세계』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20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매번 1500명이상 운집하는 대법회에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법회 및 재일 안내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 본사 및 각 분원
재 일 - 음력 1일, 15일, 25일 : 본사 및 각 분원
음력 5일(미타재일) : 대전분원
음력 8일(약사재일) : 고성분원
음력 18일(지장재일) : 대전 대구 제주분원
음력 24일(관음재일) : 서울 부산분원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분원 및 부설기관 안내

■ 춘천본사 ☎033)243-1787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천도재상담실 ☎033)257-2898
■ 제2본산 ☎064)783-53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부산분원 ☎051)554-515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BD
■ 대전분원 ☎042)525-5325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영산불교대학 ☎070-8870-5345
관음태교원 ☎070-8870-5345
■ 고성분원 ☎033)681-551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7
■ 서울분원 ☎02)453-595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대구분원 ☎053)654-5557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일본분원 ☎001-81-827-31-1611
일본국 야마구찌현 이와꾸니시 오쯔쪼 3-3-1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티베트 출신 수행자 아남 툽텐 방한

4월 22~30일, 서울 · 이천 · 부산서 강연

간단명료하고 쉬운언어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명상수행학교 행복수업, 청년명상허브 청심환은 4월 22~30일 9일간 티베트 출신 수행자이자 미국 다르마타 재단 설립자 아남 툽텐(Anam Thubten)을 초청해 대중강연과 집중수련을 갖는다.



대한불교조계종 한산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열리리며,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통해 현대인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치유 방법을 모색한다.

아남 툽텐은 티베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닝마파의 불교수행에 입문했다. 청년 시절 대부분을 사원에서 보내며 고승들로부터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는 한편, 정신적 수행에 전념했다. 중요한 시기에 위대한 스승 라마 추르 로 곁에서 수행했다. 평생 은둔자로 살았던 라마 추르 로의 친절과 지혜는 아남 툽텐을 뛰어난 수행자이자 정신적 스승으로 탄생시켰다.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아남 툽텐은 이후 특정 종파에 국한되지 않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알려주려고 노력해 왔다. 그의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는 복잡한 불교 교리를 해설하거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쉬운 언어와 재미난 유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지도를 하고 있다. 저서로 〈티베트 스님의 노프라블럼(문학의숲)〉 〈알아차림의 기적(담앤북스)〉등이 있다.

대중강연은 4월 22일 오후7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3일 오후 7시 서울 은평구 통일로 청년일자리 허브, 24일 오후7시 이천시 금강웨딩홀, 25일 오후 7시30분 부산 해운대구 시선원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청년일자리허브에서의 대중강연은 청년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집중수련은 4월 26~30일 4박5일간 경북 문경시 동호면 석항명봉로 한산사에서 열린다. 모든 강연은 자율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집중수련 참가비는 40만원이다. (070)8878-941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홍 국제교류 참가 청소년 모집

역삼수련관, 4월 16~20일 한국 역사 · 문화 교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4월 16~20일 '한국-홍콩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홍콩의 'Our Lady of the Rosary College'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미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한국 또래친구들과 그들만의 문화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교류의 시간도 마련된다.

이밖에 한국 청소년들과 홍콩 청소년들이 서로 문화를 보다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마술, 캐릭터 동자승 그리기, 한복 체험 등 체험활동을 한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 보련 스님은 "이와 같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외국친구들과 새롭게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국제적인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교류활동에 관심이 있고 영어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15~19세 청소년은 참가 가능하며, 참가 학생에게는 6시간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를 이메일(gyyc01@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02)550-3637 이나은 기자



사진은 2013년 8월 한국-홍콩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들이 기념촬영한 모습.



4월 전국은 연등 물결로 '넘실'

각 지역 사찰 · 봉축위 다채로운 봉축 행사 마련

부처님오신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사찰과 지역 봉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불기 2558(201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화(和)이팅 코리아!'를 표어로 다양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 봉축 표어인 '화이팅 코리아'는 남북화합과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화합, 인천아시안게임과 브라질월드컵에서의 희망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다.

봉축행사는 '소리나눔 콘서트'로 시작을 알렸다. 조계사는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낮 12시30분 백송 앞마당에서 신도들과 직장인을 위한 '소리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천연염색축제 '물듦'을, 17일 오후 1시에는 자비의 선물 포장 및 전달식을 각각 대웅전 앞마당에서 연다.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동자승 삭발 수계식은 21일 오후 1시 봉행된다.

또한 23일 오후 7시에는 '화이팅 코리아' 점등식을, 24일 오후 1시에는 1 · 9-Day 일자리 박람회, 28일 낮 12시에는 관불 입재식, 30일 오후 1시에는 동자승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는 3월 24일 봉축주간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개최해 호응을 얻었던 사찰 건강도시락 경연대회는 4월 16일 경내 향적원에서 열리며, 유아 수계법회는 5월 3일 법왕루에서 봉행된다.

불도(佛都) 부산의 봉축행사도 눈길을 끈다. 부산시 불교연합회는 4월 18일 용두산 공원에서 봉축점등식을 열고 봉축행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불교연합회는 27일까지 용두산 공원 일원에서 장엄등 · 창작등 · 행렬등 전시와 전통문화체험 · 축하공연 등을 진행한다. 또한 4월 26일 연꽃문화제가 용두산 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부산구덕운동장에서는 봉축연합대회가 봉행된다.

울산시 봉축위원회는 태화강연등축제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린다. 태화강 둔치에서 진행되는 연등축제는 각종 문화행사와 시민축하공연과 법요식으로 꾸며지며, 제등행렬도 진행된다.

대전은 4월 24일 열리는 장엄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행사가 진행된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26일 제등행렬과 법요식, 각종 체험행사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

조계사 콘서트 · 염색축제 등 진행
봉은사 유아수계 · 음식 경연 '눈길'
전국 봉축행사 한달 내내 이어져

전북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는 군부대에도 신경을 썼다. 전북 봉축위는 4월 16일 35사단 연등제와 5월 3일 제6탄약창 연등제를, 5월 1일과 3일에는 전주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한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4월 19일 덕진 공원에서 전북 어린이 큰잔치를 비롯해 5월 24일 금산사 특별무대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여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4월 19일에는 장엄등 점등식을 비롯해 소원지 쓰기, 전통문화체험이, 20일에는 영산재 공연, 힐링 음악회, 합창제 등이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주요 봉축행사 일정

봉축위원회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연락처
조계사	소리나눔 콘서트	4월 9일~5월 5일 (매주 수, 금요일)	조계사 앞마당	02)768-8544
	천연염색축제	4월 12일	조계사 앞마당	
	동자승 삭발 수계식	4월 21일	조계사 앞마당	
	일자리 나눔터	4월 24일	조계사 앞마당	
봉은사	봉축선포식	3월 24일	대웅전 앞	02)3218-4825
	사찰 건강 도시락 경연대회	4월 16일	향적원	
	어린이 등꾸미기	4월 23일~5월 7일	진여문 앞	
	유아수계법회	5월 3일	법왕루	
	봉축법요식	5월 6일	대웅전 앞	
	자비나눔장터	5월 6일	주차장	
	봉축점등식	5월 6일	대웅전 앞	
인천	장엄등 점등식	4월 19일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광장	032)529-0108 인천불교 총연합회
	전통등 전시회	4월 19~5월 6일		
	갑오년 소원지 쓰기, 전통문화체험	4월 19일		
	무형문화재 영산재공연	4월 20일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합창제, 힐링 음악회			
	봉축법요식			
(인천) 강화	봉축공연	4월 26일	강화문예회관	032)937-0125 강화사암연합회
	법송도 돌기, 탑돌이	4월 26일	강화문예회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4월 26일	강화문예회관	
수원	봉축 점등식	4월 9일	수원 화성행궁	031)245-9670 010-5240-5725 수원시불교연합회
	연등축제, 문화공연, 연등행렬	4월 19일	수원 화성행궁	
대전	장엄등 점등식	4월 24일	서대전 시민공원	042)526-1080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체험행사 및 법요식	4월 26일	서대전 시민공원	
	제등행렬	4일 26일	서대전 시민공원 ~대전역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6일	각 사암	
청주청원	조형물 봉축탑 점등식	4월 11일	대교분수대공원	043)267-0108 청주청원 불교연합회
	연등축제	5월 3일	무심천행사장	
	연등행렬	5월 3일	무심천~상당공원	
	회향식	5월 3일	상당공원 내	
	불교사진 전시회	5월 3일부터	예술의전당	
	청주교도소 기념법회	5월2일,5월13일	남자 · 여자 교도소	
	휘호, 백일장, 그리기대회	5월 3일	무심천주변 및 용화사 내	
	다도시연회	5월 3일	무심천행사장	
	연꽃등 나눠주기, 풍선/모아주 나눠주기, 달마목판 인쇄체험			
	식전문화행사,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자비의 손길행사			
부산	봉축점등식	4월 18일	용두산공원	051)867-050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장엄등, 창작등 및 행렬등 전시	4월 18일~27일	용두산공원 일원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축하공연 한마당	4월 18일~27일	용두산공원 일원	
	연꽃문화재	4월 26일	용두산공원 일원	
	봉축연합대회	4월 26일	부산 구덕종합운동장	
	연등행렬	4월 26일	구덕종합운동장~광복로	
울산	조직위원회 결성식	3월 14일	옥동 문화뷔페	052)266-3318 울산광역시 봉축위원회
	불교한마당잔치	4월 18일	태화강둔치	
	태화강연등축제 (문화행사, 법요식, 시민축하공연)	4월 19일	태화강둔치	
	제등행진	4월 19일	태화강둔치-번영사거리 -롯데백화점사거리	
	연등달기(만등불사)	4월 10일~5월 6일	울산일대	
	홍보탑 및 육교현수막 설치	4월 1일~4월 20일	태화로터리 등	
대구	희망의 달구벌 점등식	3월 30일	국채보상공원, 동성로	053)623-6388 대구봉축위원회
	달구벌 관등놀이	4월 17일~26일	신천둔치	
	연등회, 연등행렬	4월 26일	두류공원 야구장 및 달구벌대로	
전주전북	기원탑 점등식	4월 5일	중합경기장	063)277-3497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35사단 연등제	4월 16일	호국충경사 35사단	
	전북어린이 큰잔치, 온고을 한마당 잔치	4월 19일	덕진공원	
	전북불교연합 합창제	4월 20일	익산 섭리예술회관	
	연등축제	4월 26일	시청광장	
	6탄약창 연등제	5월 3일	호국 장영사	
	위문법회	5월 1일, 3일	전주 교도소, 소년원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6일	각사찰 법당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4일	금산사 특설무대	
광주	전통등 만들기	3월 22일~23일	불교회관	062)385-1311
	장엄등 점등식	4월 18일	광주시청 사거리	
	전통등 전시회	4월 26일~5월 9일	광주공원 앞 광주천	
	관등법회, 대동한마당	4월 26일	광주공원 앞	
	시민문화마당	4월 26일~27일	광주공원 앞 특설무대	
제주	봉축 점등식	4월 6일	해태동산 7호광장	064)759-1080 제주불교연합회
	봉축연합 합창제	4월 13일	문예회관대극장	
	봉축 연등축제 식전행사	4월 26일	종합운동장	
	봉축 연등축제 대법회	4월 26일	종합운동장	
	봉축 제등행렬		운동장~탑동	
	화합의 한마당(회향)		탑동광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4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4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② 성명학 : 6개월과정(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매주 월)1시 ~ 2시반
▶ 개강일시 : 2014년 4월 28일 (매주 월) 2시 반 ~ 4시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9기 불교의식(서울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팔공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명시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시 : 2014년 4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 수 업 : 매주(목.금) 오후 3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 도동44)
팔공IC 5거리
H·P 010-9361-5566

무파사 팔공불교대학 학장 일관 합장

8년째 장애인 인식 교육… 곳곳에서 러브콜

장애바로알기센터 출범 1년

4월이 일년 중 가장 바쁜 곳이 있다. 사람들에게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이사장 원행)다. 아동,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출장전문' 교육기관이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보니 도처에서 교육요청이 늘어난다. 이미 4월 일정은 몇 개월 전에 마감됐다. 연말까지 스케줄이 잡혀있을 정도다. 교육 요청 단체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희망단체가 있을시 승가원 강당에서도 정기교육을 한다.


장애알기바로센터 복지사가 고등학생들에게 장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인기

장애바로알기센터는 장애아동들의 쉼터인 승가원 법인부설기관으로 2007년부터 장애알기교육을 시행해오다 지난해 정식 출범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음에는 직접 어린이집과 학교를 방문, 문을 두드려야했지만 센터가 출범하고 홈페이지가 마련되면서 홍보가 쉬워졌다. 교육을 경험해 본 단체사이에서 입소문도 많이 탔다. 작년 교육을 진행했던 곳에서 올해 또 다시 교육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제는 교육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배분해야할 정도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40곳, 초중고교 84곳을 비롯 총 124군데서 장애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등 총 124곳 교육
이론·영상 교육으로 장애인식 개선
체험교육은 장애인 이해에 큰 효과

교육내용은 장애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원인, 종류, 장애 극복사례 등을 소개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문다. 대상별 맞춤 교육도 진행한다.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직접 준비한 인형극과 시청각교육이, 초중고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이론교육과 영상교육이 병행된다.

장애공감 후 학생들 이해폭 넓어져

교육내용이 매년 같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제가 된 영화, 드라마 속 장애사례를 그때 그때 모아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인다. 휠체어, 지팡이, 점자, 한손색종이접기 등의 체험진행은 두 그룹이 공통으로 진행한다.

장애체험을 하고난 학생들의 변화는 살갑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만나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애를 가진 친구를 놀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같은 반 장애친구가 겪었을 어려움을 체험하고 괜스레 미안해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장애바로알기센터 원하정 팀장은 장애교육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교육콘텐츠 계발 · 전문강사 양성 계획도

그러나 서너시간 교육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을 할 생각이다. 교육과정 중에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이 교육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반 급우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폐 ·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각 · 지체장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교육내용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원하정 팀장은 장애인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체험을 통해 평소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중장기계획이긴 하지만 장애바로알기센터는 꾸준한 장애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장애연구소로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장애교육 전문강사 육성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계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수불 스님, 동행에 1억7천만원 쾌척

4월 8일, 동국대 병원 · 군법당 신증축 기금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동국대 일산병원과 군법당 신증축 기금으로 1억7천만원을 쾌척했다.

수불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금은 향후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증측(5천만원)과 육군3사단(1억원), 육군 17사단 100연대(2천만원) 법당 신축에 사용된다.

자승 스님은 "기부문화와 나눔결사의 최선봉에서 활동해오신 스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꾸준히 나눔 실천을 해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불 스님은 "종단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도울 생각"이라며 "아름다운동행에 후원이 많아질수록 정부, 기업과의 공조도 쉬워져 나눔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됐다. 종단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전달식에는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기금식 전달 후 찍은 기념 사진. 오른쪽부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 사무총장 자공 스님 순이다.

사회안전망, 민관 협업으로 풀어나가야

조계종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지원에 민간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은 4월 10일 전법회관에서 '종로구 사회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복지재단측은 "정부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돼 생활고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각종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현행 복지지원 기준 완화도 필요하지만 민관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는 신승택 전(前) 종로구부구청장〈사진〉. 신 前 부구청장은 종로구 현황과 정책을 공유, 민관 협업 복지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강좌를 진행했다.

종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이라면 교회와 종로구청이 함께하는 협의회. 15개 교회가 참여해 이웃돕기를 후원하고 있다. 기업체, 종교 단체 등에서 종로구내 1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학금 · 물품 지원을 하는 '사랑 나눔 1사 1동 결연'과 쪽방 거주민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 소액 대출, '해피존 사업' 등도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민관협력이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종로구이지만 신 前 부구청장은 "현재 사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개 모집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과 지자체간 협업 강화로 복지 수혜자를 발굴하고 정책을 공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력관계가 강화됐을 때 복지 수요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계발도 용이할 것으로 봤다.

원경 스님은 "본 포럼을 통해 민 · 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계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법타 스님 명예전당 헌액

4월 10일 홍보대사로 월호 스님 위촉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가운데) 법타 스님(왼쪽), 월호 스님(오른쪽)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4월 10일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홍보대사로는 월호 스님을 임명했다.

법타 스님은 지난해 9월 정각원에서 열린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후 동국대 석림회 스님과 동국대 교직원 및 학생 100여 명을 추천해 명예의 전당 12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명예의 전당은 100명에게 장기기증희망등록 추천을 한 공로로 수여된다.

법타 스님은 "금생에 여러 상을 받아 봤지만 오늘 받은 이 훈장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영광"이라며 "보시를 강조한 부처님 말씀처럼 뭇 생명의 평화와 안온, 행복을 위해 하는 장기기증이야말로 보시바라밀을 성취하는 거룩한 행위다. 더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 더 많은 동국인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도록 장기기증을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방송과 출판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호 스님의 홍보대사 위촉식도 이어졌다. 월호 스님은 "법문을 할 때 법보시는 부처가 되는 비결이요, 재보시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신도들에게 설명한다"며 "몸을 보시하는 생명나눔은 자연스레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만큼 내생에 극락왕생하도록 도와주는 승천비결이 될 것"이라고 장기기증의 의미를 표현했다. 덧붙여 "솔선수범 하신 법타 스님을 본받아 생명나눔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월호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식 이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기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스님 1000명 모시기'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달성'을 위해 스님 홍보대사를 릴레이로 위촉하고 있다.

월호 스님은 마가 스님, 정목 스님에 이은 세 번째 홍보대사다. 법문과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인 마가 스님의 추천으로 홍보대사 수락을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설립 20주년 맞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달성이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 등록 스님은 250명을 포함,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5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가량 초과한 수치다.

배현진 기자

선암복지관, 시니어 기자단 발족

지역 소식 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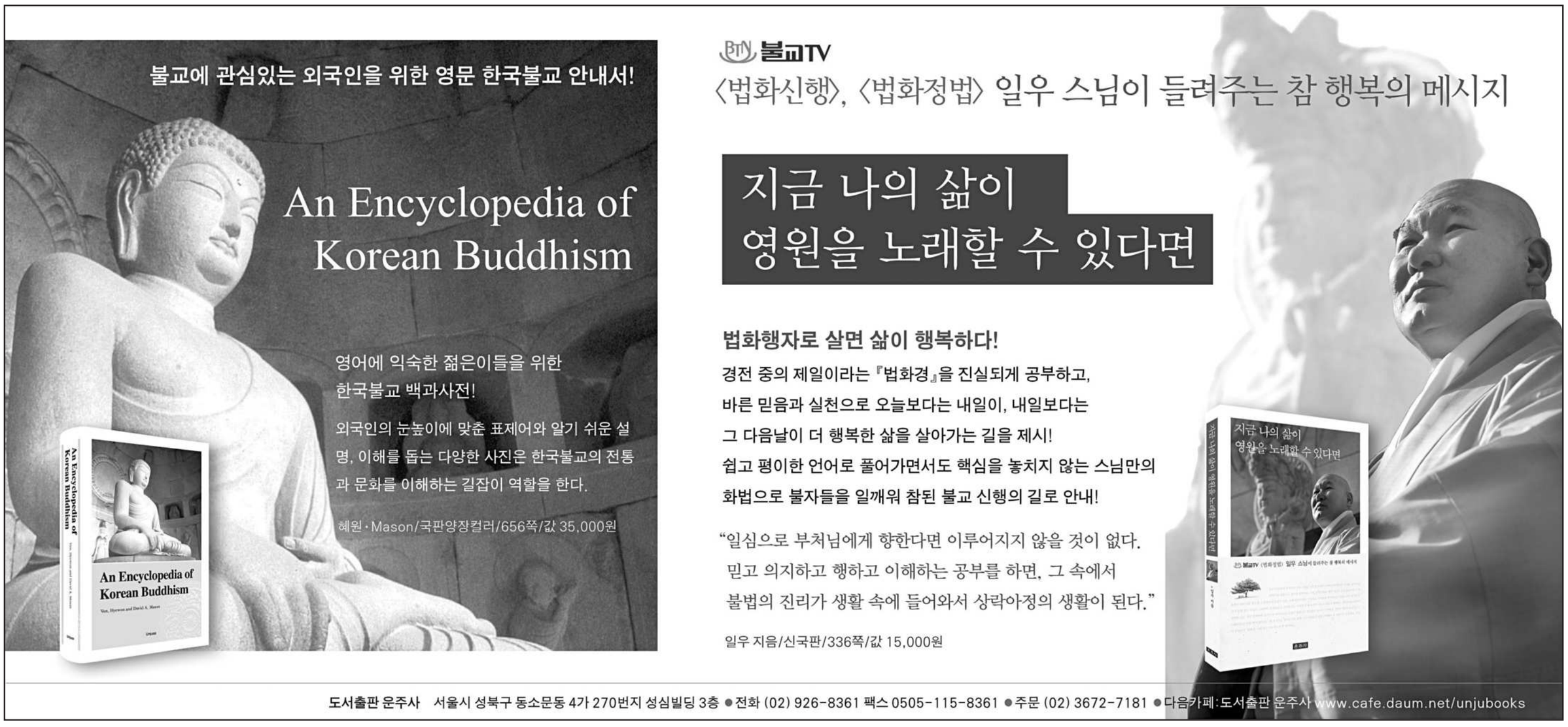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종선) 시니어 홍보단 '소리울'이 4월 9일 발족했다.

소리울 홍보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복지관 블로그에 지역관련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인터넷 활용 및 사진 촬영 등 관련 교육도 수료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이창수(67세, 야음동) 어르신은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힘 닿는데까지 노력해 좋은 사진과 소식들로 알찬 소식을 전하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종선 스님은 "앞으로도 관원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 ·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우주 전체는 '성주괴공' 하는 무상

〈成住壞空〉

M·Y 리더스 클럽 특별강좌 - '현대과학의 흐름과 불교'

양형진 교수(고려대 과기대학 물리학과)

불교계 교육, 리서치, 컨설팅 전문기관인 (사)불교아카데미(이사장 이수덕)는 재가불자 지도자를 양성하는 'M·Y 리더스 클럽 특별강좌' 를 열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우리함께빌딩 2층에서 열린 특별강좌에서는 양형진 교수(고려대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가 초청돼 강연을 펼쳤다.

양형진 교수는 '현대과학의 흐름과 불교' 를 주제로 지질학·생물학적 진화와 관련된 무상, 그리고 '나' 에게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상대론과 관련해 살폈다.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제행무상', 일체의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은 '제행무상', 일체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보자.

우리나라 강원도 남부와 충북, 경북에 이르는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나 광산이 많다. 그 곳이 석회암 지역이라는 것으로부터, 먼 옛날에는 그 지역이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꽤 험한 산이 널려있는 이 지역이 바다였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건 이 지역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강원도만 아니라 히말라야나 알프스와 같은 고산 지역도 바다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밀어올린 게 알프스 산맥이고 인도-호주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밀어 올린 게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리고 이런 충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들 산맥은 지금도 조금씩 높아진다고 한다.

지질학적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는 4억 년 전쯤에는 적도 부근의 바다에 있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 한반도는 따뜻한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 곳에 살던 조개나 산호 등 생명체가 만들어 낸 석회질 퇴적물이 지금의 석회암 지역을 형성하였고 그 바다에 살았던 삼엽충 등이 화석으로 남게 되었다.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생명체가 진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겨우 수백만 년 동안 살았을 뿐이지만, 삼엽충은 2억5천만 년 이상 존재하면서 바다를 지배했었다. 하지만 그런 삼엽충도 지금은 화석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생명체가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 공룡 같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생명종의 수는 역사상 지구상에 언젠가 존재했었던 생명종의 천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지금 보는 생명종의 천 배가 넘는 종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전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이고, 이로 인해 지구의 자전속도가 조금씩 늦춰지기 때문에 수십억 년 후의 어느 날에는 지구의 자전이 멈출지도 모른다. 물론, 그 때 쯤에는 태양도 수명을 다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고 지구상의 생명도 아마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생로병사하는 개개의 생명체뿐 아니라 생명종도 진화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적도에 있던 땅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면서 지구의 모습도 변해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의 자전이 멈출 수도 있고 태양의 빛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모두 성주괴공하는 무상이다.

우리 눈에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 언제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 조금씩 변해 간다. 짧은 시간의 간격에서 본다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시간에 걸쳐 본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변화 없이 영원히 같은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 상주(常住)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無常)' 이다. 무언가를 체념하는 상황에서 "인생이 무상하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모든 게 예외 없이 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행무상' 이라고 한다.

우주는 찰라에 생하고 멸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짧은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긴 시간 동안에도 변할 수 없다는 논증을 생각해 보자. 긴 시간이란 짧은 시간, 즉 순간의 모임 혹은 순간의 지속일 뿐이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다면 긴 시간에 걸친 변화도 있을 수 없게 된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긴 시간에 걸친 큰 변화도 가능하게 된다. 산의 눈이 아주 조금씩 녹기 때문에 눈 덮인 산의 모습은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양이라도 그 눈 녹은 물이 모여야 골짜기를 타고 흘러가는 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꽃 피는 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뿐 아니라 찰라에 생멸하면서 변화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녀야 한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우주, 찰라에 생하고 찰라에 멸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

그런 무상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우주가,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집착한다.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것은 전부 흩어져 가니, 능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別離)하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하였다. 능가경 무상품에서 "실(實)함이 없는 헛된 분별. …만약 능히 여실(如實)히 안다면, 깊고 질긴 얽매임의 모든 그물을 남김없이 끊을 수 있다"고 하였듯이, 무상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긴요한 법문이고 고해를 건너게 하는 자비의 배이다.

상대론과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떠 올리지만, 사실 이는 갈릴레이가 처음 도입한 용어로서 고전물리학인 뉴턴역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갈릴레이의 상대론은 고전적인 개념이므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형진 교수는 …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 물리학 박사로 양자정보이론을 전공했다. 주요 저서로는 〈산하대지가 참 빛이다: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X양형진의 과학으로 세상보기〉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과학의 합리성〉 등 다수가 있다.

> "좋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다가왔다
> 전부 흩어지는 무상한 것
>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우주에 살고 있어
> 무상은 열반에 이르는 긴요한 법문"

갈릴레이는 포물선운동을 두 좌표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공을 위로 던지는 상황을 상상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공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수직운동을 한다. 그러나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배의 속도가 공에 더해지기 때문에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 배의 수평방향으로의 운동과 배에 탄 사람이 관측하는 수직방향의 운동을 더한 것이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둘 다 옳은 얘기다.

공전하는 지구에 대해서도 똑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구를 떠난 적이 없는 우리는 위로 던진 공이 위아래로 수직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구 밖에 있는 사람은 그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이 수직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이 수직 운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과 내가 지구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상의 운동 속성은 그 대상과 관측자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틀 혹은 연기의 틀에 의해 결정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으로 가면 좀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뉴턴 역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모든 존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차를 탄 사람이 보는 차창의 폭은 철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보는 차창의 폭과 동일하고, 기차를 탄 사람이 느끼는 1초의 시간 간격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1초와 동일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암묵적인 가정을 부인하는 데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은 출발한다. 이를 살펴보자.

상당히 긴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며, 그 중앙에 관측자 I가 있고 우주선 밖에 있는 관측자 O는 I의 바로 옆에 있다고 하자. 우주선의 맨 앞과 뒤에는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의 전등이 있고, I와 O가 있는 우주선의 중앙에서 두 전등까지의 거리는 같다. 두 전등이 순간적으로 반짝하면서 빛을 발하고 나서, 두 빛이 관측자 O에게 동시에 도달했다면 I에게도 동시에 도달할 것이다.

우주선이 상당히 빨리 움직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빨강과 파랑의 두 빛이 O에게 동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I에게는 동시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주선에 탄 I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므로 관측자 O가 빛을 본 순간에 I는 O보다 앞에 가 있게 되며, 따라서 앞에서 오는 빨간빛은 이미 그를 지나갔지만 뒤에서 오는 파란빛은 아직 그에게 도달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정당하지만, 두 빛이 도달하는 시간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상적인 속도에서 이를 관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측자 O는 두 전등이 동시에 반짝였다고 생각하지만, 관측자 I는 빨간 전등이 먼저 반짝였고 파란 전등이 나중에 반짝였다고 생각한다. 갈릴레이의 상대론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두 관측자에게 서로 다르게 관측되듯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두 사건의 동시관계내지는 선후관계가 두 관측자에게 서로 다르게 관측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의 여부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동시성(Simultaneity)의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엔 사건의 선후관계가 바뀌는 문제까지 포함된다. 이는 두 관측자가 서로 다른 시간의 세계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의해 생겨나는 또 하나의 특이한 상황이 길이의 수축이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란 그 물체의 양끝 사이의 거리다.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어느 한 순간 물체 양 끝의 위치를 기록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된다. 이 때, 양 끝의 위치를 동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특수상대론에서는 두 관측자가 동시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두 관측자는 한 물체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측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체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공간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진다.

이와 달리 뉴턴 역학에서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동일한 시간이 부여된다. 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물체의 길이는 관측자의 운동 속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하다.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공간과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것이 고전역학의 가정이다.

뉴턴역학 시공간 관측자 이전 설정

이처럼 뉴턴역학의 시공간은 관측자와 상관없이 관측자 이전에 설정된 시간이고 공간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존재하는 백지와 같이, 설령 우주 전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시간이고 공간이다. 관측자나 우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1차원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고 3차원 공간은 그 자체로 주어진다. 그래서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이라고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선험적 감성론을 논의하면서 "공간이란 외적 경험에서 끌어 낸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근저에 놓여 있는 필연적인 선천적 표상이다. …시간은 그 어떤 경험에서 끌려 나온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시간은 모든 직관의 근저에 놓여있는 필연적 표상이다"고 했다.

이와 달리,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의 시공간은 선험적으로 직관적인 추론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측이라는 후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시공간이고, 나와 관측 대해 사이에서 형성된 상대적 관계 혹은 연기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시공간이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시공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상대론이나 양자역학을 제외하면,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와 달리 사유하는 정신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버클리는 철저하게 주관주의적인 입장이다. 그에게 실재(實在)하는 것은 사물을 보는 정신과 사물에 대한 관념뿐이다.

이에 대해 불교의 세계관은 주관과 객관의 인연화합이라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 '안이비설신' 의 주관과 '색성향미촉' 의 객관이 인연 화합하여 안식에서 신식까지의 전오식(前五識)이 형성된다. 이 전오식이 우리 마음을 지탱하는 아뢰야식과 말라식과 인연 화합하여 마음의 세계가 그려진다. 그건 객관에 의해 단 하나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그림이 아니라, 우리와 대상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혹은 연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다.

공 고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보존회 정기회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에서 알립니다. 영산재 보존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 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4년 4월 24일 (음 3월 25일) 오후 4시
2 장 소 : 신촌 봉원사
3 대 상 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보존회 회원 전원
4 준 비 물 : 증명사진 2매 (어산방 회원사진 수정·갱신용)
5 회의내용 : (1) 제26회 정기 영산재 시연에 관한 회의
(2) 영산재 보존회 회원 활동·미활동 여부 확인
(3) 정부시책으로 변경된 새로운 주소 및 연락처 확인
(4) 기타사항
6 연 락 처 : ☎ 02)392-3044, 3007
(H·P) 010-9096-8966 영산재 보존회 기획담당자

※ 수년간 미동참(미활동) 회원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명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번 정기회의에 꼭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장 마일운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불교는 가르침에 기반한 종합적 문화체계"

기무라 日 불교학자, 10일 동국대 특강서 불교학 방향 제시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꼽히는 기무라 도쿄대 명예교수〈사진〉가 동국대에서 불교학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4월 1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기무라 교수는 불교 연구에 있어 문헌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인문과학의 범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불교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무라 교수는 이날 "불교는 석존의 가르침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문화의 체계로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무라 교수는 현재 불교학계에서 행해지는 문헌학적 불교연구가 갖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문헌학 연구의 선두주자인 일본학계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이런 한계를 밝혔다.

기무라 교수는 "현재 사상을 연구하는 기본방법으로 필로로지(Philology)라고 말하는 문헌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전제하고 "불교연구를 문헌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문헌학적 연구를 하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문헌 속에서의 맥락을 중요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문헌의 일부분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큰 흐름에서 이를 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 연구는 최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전자텍스트를 사용해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헌을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기무라 교수는 "최근에는 전자텍스트를 사용해 단지 글자나 단어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동일한 글자, 단어라는 단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기무라 교수는 "불교는 2000년 이상 전개된 종합적인 문화체계라며, 문헌학 연구 이전에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문헌이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서지학과 구별되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라 교수는 또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주위의 연구결과 가운데 어떤 연구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학자들에게 강조했다.

기무라 교수는 "연구논문을 쓸 때는 전문용어에 너무 기대지 말고, 용어가 지닌 본 의미를 얼마만큼 현재의 용어로 환원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학술논문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여 논문은 완성된 후 어디에든 쓰일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무라 교수는 '부디즘'이라는 용어를 비롯해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제간 연구 강조 "사회맥락 알아야"

용어 집착 등 문헌연구 한계 밝혀

불교 영어 표현 '부디즘' 잘못도 지적

기무라 교수는 "'이즘' 곧 '주의'는 서양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으며, 한중일을 넘어 서양으로까지 전파된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유래한 가르침의 총체이므로 이같은 용어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라 교수는 화엄학자로서 학문의 길과 일본 조동종의 승려로서 성직자의 길이라는 두 길을 걸어온 일본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받는다.

1940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나 도쿄교육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오랜기간 도쿄대 교수로 봉직했다.

화엄학 연구에서는 1977년 〈초기 중국 불교사상사의 연구〉를 간행하여 화엄경의 한역, 화엄경류의 이역 및 위경, 지론, 섭론, 삼론 등의 화엄경의 연구사를 배경으로 하는 지엄스님의 화엄학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1992년에는 중국초기부터 요(遼)와 명(明)에 이르는 〈중국화엄사상사〉를 저술하였으며, 최근에는 화엄경별행본들에 대한 주석 작업을 간행하여 화엄학 연구에 완성도를 더하였다.

한편, 지엄스님을 연구하면서 지엄의 제자 의상스님에게 자연히 관심을 가졌고, 특히 고 김지견 교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상뿐아니라, 원효, 균여 등의 한국불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실천불교 55년, 대중 결사운동 필요"

선진규 · 권기종 등 '호미든 관음성상' 특별강연회서



'실천불교'의 상징인 '호미든 관음상' 봉안 55주년을 맞아 4월 5일 학계 학자들이 모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특별강연회에는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사진〉과 동료 학자들을 비롯해 경상대 권오민 교수, 창원대 윤성윤 박사 등 후학 100여 명이 참석해 실천불교의 미래를 모색했다.

이날 선진규 정토원장은 "봉안 55주년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불교의 진흥을 위해 불자들 스스로가 새로운 출발준비와, 대동단결의 결사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토원은 불교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봉화산 전체를 청소년문화공원으로 가꾸겠다. 봉안정신과 정토운동과 연계하여 불자들은 잡초(삼독심)를 뽑고, 진리(보리심)를 심자"고 밝혔다.

강연회에서는 '호미 든 관음상의 역사적 조명'이란 주제로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의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의 '봉화산 호미 든 관음상의 불교사적 의의'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불교도 능동적인 생산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 농민원을 세워 농촌을 살리고 식목을 통한 조림사업으로 국토를 푸르게 가꾸자는 것이었다"고 건립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노동과 생산에 관한 기존교단의 인식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대승보살의 삶을 실천하자는 새로운 불교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원장은 "이러한 실천불교의 운동을 현재에 활발히 펼쳐야 한다"며 "사찰과 도농이 연계된 지역공동체 구성과 함께 불자들의 생활규범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토속신앙 속 불교의 흔적은?



장정태 동국대 박사가 〈삼국유사〉를 분석해 당시 불교계와 민간신앙계의 교류와 상호영향을 연구한 서적이 눈길을 끈다.

〈삼국유사를 통해 본 불교와 민간신앙 습합〉 책에서 장 박사는 불교전래 이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온 민간신앙이 불교 전래 이후 어떻게 습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 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래 종교인 도교, 유교, 불교는 서로 넘나듦을 용인하면서 민간신앙과 습합의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으며 그 중에서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 습합의 양상이 두드러졌다.

장 박사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하나의 종교사상으로 민간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착신앙을 토대로 정착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배타성이 없는 가르침이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민족성과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우리 민족, 국가, 풍토, 습속에 맞는 종교로 성장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영산전 보물 지정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과 영산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과 양산 통도사 영산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은 통도사 내 중로전의 중심 불전으로, 대웅전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서, 전반적으로 주요 구조부가 견실한 조선 후기(18세기 중엽) 불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하로전의 중심 건물로 남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전면의 좌우에는 극락전과 약사전이 동서에 놓여 있다.



보물로 지정된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양산 통도사 영산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정면과 동 측면의 기단은 지대석 위에 면석을 놓고 갑석을 덮어 마감한 형태이며, 기단의 정면 중앙과 양 측면 앞쪽에는 계단이 놓여 있다.

노덕현 기자

94년 조계종 개혁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불교교단사硏,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 발간

계율 관련 논문 21편 게제

개혁 비판 논문도 다수 포함

"94년 개혁 비불교적 행위"

불교를 이끌어온 승단은 예로부터 화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한국 현대불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화합보다는 정치적 거래가 우선이 되며 입장 차에 따라 파벌이 형성돼 서로 반목한다. 이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불교교단사연구소(소장 정천구)는 최근 승단 운영 문제와 대안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연구총서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 · 사진〉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이에 앞선 3월 29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출판기념식을 열기도 했다.

연구총서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에는 그간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위원들이 다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선별해 총 21편의 논문들을 게제했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연구총서는 1부에서는 승가화합과 멸쟁법을 주제로 9편의 논문이, 승가의 지도자상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6편의 논문이, 3부에서는 조계종의 정체성과 개혁문제를 주제로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국의 승가와 비구계'를 발표한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승단의 계율문제와 갈마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도일 스님은 "조계종과 같이 구족계를 수지하는 출가승단의 경우 비쟁사(非諍事)는 갈마법으로 의결하고, 쟁사는 '칠멸쟁법'과 '멸쟁건도'에 의거해 판단한 후 제재를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갈마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스님이라면 삼보의 일원으로 제대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전과 율장에 나타난 승가지도자상을 조명한 논문도 눈길을 끈다. 이자랑 박사는 '율장에 나타난 지도자상'에서 "율장 등에 나타난 올바른 지도자상은 경율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율을 어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며, 사소한 죄라도 범하는 것을 꺼리고 참회할 줄 알며, 여법한 가르침을 지녀 다른 이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4년 조계종 개혁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논문들도 다수 수록됐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송서암의 불교개혁론'을 통해 전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이 1994년 종단 개혁에 앞서 제시한 불교개혁론에 대해 개했다. 김 교수는 "서암 스님은 종단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방법을 율장에서 찾았다"며 "개혁방안도 교육을 통한 승려자질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불교교단사연구소 연구위원 덕산 스님은 '승단의 칠불쇠퇴법을 통해서 본 조계종의 현실'과 '휴암이 본 조계종단 개혁세력의 정체와 그들의 목표' 등의 논문을 통해 조계종의 개혁이 비불교적이라고 주장했다.

덕산 스님은 '승단의 칠불쇠퇴법을 통해서 본 조계종의 현실'을 통해 "90년대 세 차례 종단 사태는 종헌 상 종단화합법과 쟁사해결법과 종법 등을 위반한 불법 집회"라며 "종단 내 쟁사와 관련한 문제는 불교의 무쟁법과 멸쟁법의 원리 등 불교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3년 10월16일 수요일 - KBS1 TV 05시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효능 방영

한방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학교서 쌓인 '화', 울화통 캠프서 풀어요"

보은 법주사 '울화통' 캠프, 청소년 폭력 감소에 큰 효과

법주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울화통' 캠프가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센터'가 문을 연(2012년 6월 17일) 이후 2012년에 신고 된 학교폭력은 1천996건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은 1천411건으로 585건(29.3%) 감소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도 477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 536건과 비교해 59건(11%) 줄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2012년 671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235명(23%) 감소했으며, 올해는 82명이 검거돼 지난해 96명보다 14명(14.5%) 줄었다. 지난해 검거된 인원 가운데 333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11명이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2명에게는 훈방 같은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학교폭력 감소에는 충북경찰과 법주사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울·화·통' 힐링캠프 등의 선도 프로그램도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주사는 2012년 충북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교정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50명 이상 씩 캠프를 진행

2012년부터 법주사에서 실시
청소년센터·대안학교 연계
학교폭력 29.3% 감소 효과 보여


법주사 울화통캠프의 한 장면. 울화통캠프 보관 스님이 참가한 청소년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 왔다. 대안학교를 비롯해 청소년센터 등에서 캠프를 거쳐 간 인원이 1200명에 달한다.

울화통 캠프에서는 108배를 비롯해 '별빛 달빛 따라 예불모시기', 스님과의 정겨운 차담 등이 진행된다. 또 숲길 걷기 명상과 음악명상, 청소년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도 이어진다. 특히 미국 심리학자 존 카바친 교수가 창안한 MBSR과 요가명상 등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학부모 순찰대를 비롯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우울과 화를 통쾌하게 날려 버리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울화통' 힐링 캠프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사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울화통 캠프를 진행하는 보관 스님은 "한번 울화통캠프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끼고 참여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심성개발 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민중가수 출신 범능 스님 추모열기 높아져



노래하는 민중가수였던 故 범능 스님〈사진〉 추모 음악제가 개최된다. (사)불지불교문화원과 불지사는 오는 6월 14일 광주 광산문화예술관에서 합창형태의 추모 음악제를 개최한다.

추모음악제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범능 스님의 음악세계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새롭게 찬 불경연대회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음악제는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기해 마련된 '5.18 아카이브'에 범능 스님 음악자료들이 포함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지닌다.

범능스님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민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광주출전가' '혁명광주' 등의 작곡자이자 가수로 활동했다. 출가 후 '오월의 꽃'에서부터 '무소의 뿔처럼'까지 네 장의 노래음반과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일곱 장의 명상음반을 발표했다. 스님은 또한 매년 외국인 노동자 쉼터 마련, 소아암 환자 돕기 등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으며 새만금 갯벌에서, 부안 핵폐기장 반대 농성장에서, 5·18 추모문화제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다.

추모음악제는 전국의 불교신도와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5월 17일 광주 남구 종합예술회관에서 예선을 실시한다. 6월 14일 광주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별된 10팀을 상대로 본선을 개최하며,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상금을 시상한다. 한편 화순 불지사는 범능 스님 1주기를 맞아 6월 13일 추모재를 연다. (061)372-5521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전통다도 강습회 개설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전통 다도 강습회가 열렸다. 금산사 포교당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성우)는 4월 9일 문화강좌의 일환으로 수행과 다도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전통다도강좌를 개설했다.

오는 6월 11일까지 총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전통다도 강좌는 진북사 주지 동찬 스님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마다 인사예절, 행다실습, 접빈다례, 다식만들기, 헌공다례등의 다도강좌를 진행하게 된다.

전북불교회관 관계자는 "지역의 사찰들과 함께 차를 통한 포교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강좌를 개설했다"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누구나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도강습을 수료한 회원들은 전주 와일드 푸드 축제, 지평선 축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무료로 다도체험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려 혜심 진각국사 사상 기리는 다례재



고려 혜심 진각국사 다례재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 봉사단(회장 대현)는 4월 15일 진각국사의 탄생지인 전남 화순 군민회관에서 정다운 스님, 대현 스님, 정암 스님(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상명 스님(순천 향림사 주지)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각국사 탄신 제836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8회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1부 꽃피는 절(주지 목언)의 육법공양에 이어 영산재, 법요식, 초청법문이 진행됐다.

정다운 스님은 초청법문을 통해 "진각국사는 스님들의 수행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선문염송(禪門拈頌)을 만들어 후학들에게 깨침의 길잡이를 제공했다"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선각자인 진각국사께서 대접을 받는 문화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정암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금자탑을 세우신 진각국사의 충혼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불국정토를 위해 모두가 나눔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각국사선양회 대현 스님은 "현재 진각국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기념관에 진각국사의 사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진각국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지눌 스님을 이어 수선사(現 송광사)에서 간화선풍을 크게 떨쳤다. 저소로는 〈선문염송집〉, 〈심요心要〉,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금강경찬金剛經贊〉, 〈선문강요金剛經贊〉 등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흥천사, 월명공원 일대서 백일장 성료



봄이면 동백과 벚꽃이 만발한 군산의 명소 월명공원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글 솜씨를 겨루는 백일장 대회가 펼쳐졌다.

군산 흥천사(회주 지환)는 4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월명공원 흥천사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6번째 열리는 흥천사 백일장 대회는 군산의 자랑인 흥천사와 월명공원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의 참뜻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글로 표현해 미래의 문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역의 20개 중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백일장 대회는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뉘어 중등부는 우정, 선물, 감사, 부처님의 미소 고등부는 행복, 용기, 봄, 부처님의 자비를 시제로 진행됐다.

법희 스님은 "회주 지환스님께서 10여년 동안 경로잔치를 진행해오다 청소년 포교의 일환으로 6년 전부터 백일장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며 "불교를 처음 접하거나 타 종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어 흐뭇한 마음이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강예린 학생(전북 외국어고 1)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백일장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찰에서 백일장 대회가 많이 열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들에는 고등부 장원은 운문 및 산문 각 50만원, 중학생 장원 30만 원 등 총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부처님 오신 날 흥천사 법당에서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 고창군 무료 진료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성욱) 의료봉사단은 4월 8~9일 이틀간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 2층에서 고창군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내 고향 무료 순회 진료를 시행했다.

내 고향 무료순회 진료는 서울아산병원 직원의 고향 중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됐다.

이번 의료봉사는 내과, 외과, 혈액검사 등 3개 영역으로 서울아산병원 가정의의학과, 통증의학과 전문의 7명이 지역주민 120명에게 맞춤형 의료진료, 처방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무료진료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전달식'을 진행해 농촌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고향을 찾아준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의료봉사로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 행

전통명문 표암(알평)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재

전통 명문 표암(알평)공 문중 선지식 합동 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표암공 문중(경주, 차성, 합천, 평창, 가평, 아산, 재령, 우계, 진주, 원주 이씨) 沙門과 문중 선지식 木巖(向如)堂 體元禪師(고려말 해인사 주지),

惠和宮主 李氏 淨業院 主持(익재공 따님), 退翁堂 性徹禪師(전 조계종 종정), 春城堂 春城禪師(전 망월사 주지 무애대사),

伽山堂 智冠禪師(전 조계종 총무원장) 문도께서는 청풍계맥이 전승되고, 얼이 線連하도록 두루두루 동참하옵길 앙망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14년 4월 16일 오전 11:00 (음력 3월 중정일)

장 소 : 부산 태종사 (부산 영도구 동삼 2동 산 29-4) ☎ 051) 405-2626 (조실 도성 영공스님)

문 의 : 010-6478-1569(현불)

표암(알평) 승가회장 홍산 현불

80여년 설법기도처 새로 탈바꿈

울산 해남사 4월 7일 설법보전 중창불사 낙성식


울산 해남사가 '설법보전 중창불사 낙성식'을 4월 7일 봉행했다.

1935년 故구하 천보 스님이 불교의 자비 실천을 행하기 위해 건립한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가 '설법보전 중창불사 낙성식'을 4월 7일 봉행했다.

해남사의 설법보전은 80여년 동안 대중에게 법을 설하고 사부대중의 번뇌와 아픔을 씻어주는 안락한 법당이었다. 허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설법보전의 시설들이 눈에 띄게 남루해졌고, 이를 마음 아파하던 신도들과 주지 만초 스님이 십시일반으로 기도와 보시금을 모아 숙원하던 중창불사를 완공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등 40여명의 경남지역 대덕스님들과 4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해남사 법당의 증·개축을 처음으로 논의·확정한 것은 지난 2012년 신도 운영위원회에서였으며, 중창 불사를 위한 백일기도를 그 해에 시작하여 올해 5차 백일기도를 맞이할 만큼 신심을 쏟았다. 매 백일기도의 회향 때에는 불자들과 주지 만초 스님이 삼천배를 올리며 중창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발원했다.

2013년도에는 그동안 해남사의 주요 법당으로 불자들을 지켜주던 설법보전과 고별 법회가 진행됐고 설법보전이 해체된 자리에 새로운 불사 착공식을 가지며 중창불사의 첫걸음을 뗐다. 신도들과 주지 만초 스님의 추진력으로 중창 불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기존에 있었던 설법보전과 달리 설법보전의 지하에는 보광법당과 공양실인 미소당 등이 만들어졌으며 모든 공사는 올해 4월초에 마무리됐다. 불사규모는 총 280평이며, 불사금은 전통 사찰 보조비 1억 6천을 포함해 만초 스님이 부임한 뒤 5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동지 등 크고 작은 사중 행사를 통해 꾸준히 모연된 법회 동참금 총 9억의 기금, 신도들이 보시한 7억여원의 불사 비용까지 총 24억의 예산이 건축예산에 쓰였다.

신도운영위서 증개축 확정 후 5차례 백일기도하며 신심 쏟아
규모 총 280평, 공사기간 1년

주지 만초 스님은 "울산 중심 사찰 해남사는 행복도량이다. 80여년의 세월동안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고통을 견뎌내는 장소였고, 또 다른 이에게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행복이 있는 곳이었다. 1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곁에 돌아온 '설법보전'은 예전보다 더 큰 기도와 행복을 담아내는 수행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직 모든 불사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부처님을 다시 모시는 일과 탱화를 조성하고, 단청을 장엄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불사에 여러분의 신심과 부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심이 차곡차곡 쌓이는 날, 모든 불사가 완성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낙성식에는 해남사의 앞날을 축복하는 발원문 및 축사 낭독이 진행됐으며, 특별한 순서로는 해남사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이 증정됐다. 감사패 액자에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각 수상자에게 어울리는 글귀들을 함께 적어 받은 이들을 감동케 했다. 설법보전 1년의 공사기간 동안 묵묵하게 소음을 참아준 이웃부터 해남사를 매일 쓸고 닦아주는 재가자들까지 물심양면으로 해남사를 사랑하고 아껴준 재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감사의 뜻인 것이다.

낙성식에 참석한 김남희(43)씨는 "집 근처에 있는 사찰을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유명인사외에도 해남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관조 스님 유작필름 범어사에 보관

관조스님문도회-범어사 4월 10일 협약식


관조스님문도회-범어사 유작필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협약식. 사진은 왼쪽부터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관조스님문도회 대표 승원 스님

관조스님문도회(대표 승원스님)가 故관조스님의 유작필름 관리 및 사용을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에 일임했다.

'관조스님 유작필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협약식'이 4월 10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관조스님문도회 대표 승원 스님,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 및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관조 스님의 유언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19만 7천 846점에 이르는 필름들이 수장고에 보관되며, 향후 후손들을 위해 필름들을 스캔하여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특별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유작필름의 전시, 출판, 임대 등 필름의 사용 및 보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관조스님문도회 대표 승원 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 등으로 특별운영회가 구성되며 사진들은 범어사, 통도사, 경주 남산, 벽화 등 다양한 피사체들을 담고 있다.

한편, 2006년 관조 스님의 입적 후 범어사에 남겨져 있던 유품과 유작 필름들은 가평 백련사로 옮겨졌으며, 그 후 2007년부터 대분류 및 스캔 작업을 진행해 지난해 처음으로 필름 원본 및 스캔 파일 100개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됐다. 협약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관조스님 석불 사진전'은 9월 24일~30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2층에서 열린다.

김나영 객원기자

"수행자로서의 자세 항시 유념해야"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대법회


통도사 수계산림 회향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의 보살계 회향법회가 4월 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우고도 발 디딜 틈이 없어 야단법석들이 펼쳐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대법회'에서는 보살계를 설하는 삼사칠증대화상 스님들의 등단과 함께 장학금 수여식이 앞서 진행됐다. 통도사 재적 스님 중 통도사의 창건 정신을 이어 맹렬히 수행 정진한 스님들에게 주어진 이번 장학금은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9명, 학사 20명 등 총 45명의 스님들에게 총 3천 9백 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어서, 보살계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불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총 30회 참여로 가장 많은 보살계를 받은 영예의 주인공인 이연순(선묵화)씨를 비롯해 25회 3명 등 총 58명이 각각 성만패 및 금빛가사, 기념메달을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으로부터 받으며 불자로서의 영광을 안았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지만 계를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수계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다. 그러니 부지런히 계를 지켜 옳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고, 바르지 않은 것들은 그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신 및 물질적으로 타인에게 베풀며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항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지막 순서로 연비의식과 탑돌이가 진행됐으며 계를 받은 불자들은 각자의 평안과 소원을 발원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2014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발대식

4월 5일 범어사 설법전서


2014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신입생환영회 및 발대식서 학생들이 선서하고 있다.

2014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수불)신입생환영회 및 발대식이 4월 5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불자로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고 나아가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의식 있는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발원했다. 또한, 새로운 지도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청소년 불자들을 이끌어주는 의식과 역할을 당부했다.

백영숙 부산파라미타협회 회장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여러분의 나이와 똑같은 18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파라미타의 위상도 높아져 왔으며 앞으로도 파라미타와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발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범어사 포교국장 지장 스님(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무)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법과 지혜를 수학하기 위해 파라미타에 동참하게 됐다. 부처님의 지식과 지혜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력을 지녔다. 파라미타와 함께 부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대식이 끝난 이후에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만의 축제 '슈퍼파라미타를 찾아서'가 범어사 성보박물관앞 야외상설무대 앞에서 진행됐다. '슈퍼파라미타를 찾아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단합행사로, 파라미타 회원들이 댄스·노래 등 다양한 장기들을 선보였다.

김나영 객원기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동명대 특강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사진〉가 4월 9일 '전통문화와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동명대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홍 교수는 "전통은 역사성을 보면 시간성을 지녀야 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시간성과 통일성이 같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통문화를 하나의 문화소산으로만 생각해왔지 문화활동으로 여기지 않았다. 문화활동을 불교에서는 '화두'라 한다. 의문을 가득 지니는 화두로 삶의 방향인 인문학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한국불교대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

4월 9일 동자승 10명 탄생


한국불교대 동자승 삭발식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주지 밀허)가 4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참 좋은 유치원생' 10명의 동자 예비스님을 탄생시켰다. 이들 동자스님들은 부처님오신날까지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홍보대사 스님으로 활동한다. 관내 옥불보전에서 삭발식을 봉행한 주지 밀허 스님은 동자승들에게 "생명을 해치지 말며,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바르고 고운 말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지내고, 선생님과 부모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동자승들은 "예"라고 대답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동자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에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백 만개한 경내엔 그리움이 후드득 떨어진다

동백꽃이 있는 사찰 - ② 고창 선운사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시방도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미당 서정주의 시 '선운사 동구'〉

지금 사방천지가 봄꽃 타령이다. 산수유, 매화, 벚꽃 수많은 봄꽃 중 압권은 역시 붉은 동백을 빼놓을 수 없다. 봄 하면 빠질 수 없는 동백꽃을 만나러 봄길을 따라 선운사에 당도했다. 꽃 한송이가 피워지기 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존재하지만, 그 피워진 아름다운 꽃을 보러 가는 시간은 참 짧다. 그리고 쉽다. 인간이 자연에게 미안해야 할 것 같다.

선운사의 동백꽃을 보려면 4월에 가야한다. 조금만 늦으면 송창식의 노래말처럼 눈물처럼 떨어진 동백꽃만 보고오기 일쑤다. 오죽하면 선운사 지척에 살면서 대강백 석전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미당 서정주도 선운사 동백꽃보러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시로 남겼을까.

선운사 동백은 꽃중에서도 시어와 노랫말로 인기다. 수많은 시인. 묵객 가객들이 선운사 동백을 노래했다. 미당의 시 '선운사 동구' 외에도 김용택 시인은 첫사랑과 헤어진 후 선운사 뒤안에서 엉엉울던 기억을 시로 표현했다. 가수 송창식도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로 시작되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선운사로 불러 모았다. 최영미 시인은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다' 빨리지는 동백을 아쉬워 했다.

동백이 흐드러지게 핀 대한불교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 진흥왕 창건설과 백제 위덕왕24년(577년)때의 검단선사 창건설이 전해지지만 시대적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검단선사 창건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경관, 많은 성보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사시사철 참배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이다.

선운사를 둘러싼 도솔산 봉우리마다 모두 선(禪)을 닦는 형상이니 선자(禪者)들이 기거할 곳이다. 아침이면 상서로운 구름이 산 봉우리를 감싸고 저녁놀 상서로운 구름은 항상 산허리를 휘감으므로 선운산이요 선운사라 했다.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스님은 도적들이 들끓어 양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되자 도적들을 제도하고 소금 만드는 법을 일러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양민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설화때문인지 1500년동안 인근 마을인 검단리 주민들은 봄가을에 소금을 선운사 부처님전에 공양하고 있다. 또한 선운사와 검단리 주민들은 매년 봄가을에 '은혜갚은 소금(보은염)' 이운 행사도 개최한다.

강학과 수선 도량이면서 삼장지장 도량으로도 알려진 선운사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이타행의 실천도량으로서 지역 사찰들이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도입된 천일염 제조법인 아닌 전통소금 제조법을 전승한 검단리 소금은 선운사와 손잡고 보은염이라는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수행마을을 건립해 노스님들이 여생을 보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선운사는 지지 지장보살 (금동 지장보살 보물 279호),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의 천장지장보살 (도솔암 지장보살 보물 280호), 참당암 인장 지장보살 (참당암 지장보살 전북유형문화재 33호) 의 삼장지장신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선운사 지장보궁과 도솔암 내원궁에서는 매 주말마다 철야정진이 이어져 기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솔암에서는 100일간 하루 16시간의 가행정진이 이어지는 등 늘 기도정진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운사는 강학 및 수선, 삼장 지장도량
지장보궁 등서 주말마다 철야정진
동백은 시어와 노랫말로 많은 인기

선운사는 대웅보전(보물290호), 선운사 대웅보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1724호), 금동 지장보살(보물 279호) 도솔암 지장보살 (보물 280호) 도솔암 마애불(보물 1200호), 참당암 대웅전(보물803호)의 보물급 문화재와 선운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84호) 장사송(천연기념물 354호) 송악(천연기념물 367호) 등 3점의 천연기념물, 백파율사비 등 9점의 지방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웅본전앞의 만세루는 다른 전각을 짓다 남은 부재들로 지어 휘어지니 기둥과 조작조각 이어진 목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수 있다.

고창 선운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동백은 다른 곳보다 늦다. 보통 3월 중순이 훨씬 넘어서야 꽃을 피우기 시작해 봄의 끝자락에나 만개한다.


선운사는 자연 경관이 빼어나 참배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보물 제279호인 금동지장보살.

여행수첩

〈가볼만한 곳〉

미당문학관

미당 시 문학관은 2001년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 시인의 고향이자 영면지인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읍 선운리 마을에 세워진 기념관이다. 미당의 생가(生家)와 묘역이 부근에 있다. 질마재 마을에 있는 폐교된 선운초등학교 봉암 분교를 기념관으로 만들었다. 미당이 서울 중앙고보 재학시절 참가했다가 강제 퇴학당한 광주학생의거 지원 시위 사건(1929년, 1930년 2회) 기념일인 11월 3일 문을 열었다. 파이프와 지팡이, 편지, 자필 시 등 미당의 유품 5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2개 전시동, 서재 재현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1월 〈미당 문학제〉를 개최하여 미당 문학상 시상식, 미당 백일장, 시 낭송제 및 각종 기념공연, 학술회의 등이 열린다.

고창읍성

고창읍에는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축성된 고창읍성이 있다. 일명 모양성으로 불리는 이 성은 나주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하여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진 읍성이고 그 안에는 동헌, 객사 등 14동의 관아건물이 재현되어 당시 행정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고창읍성은 고창의 동남쪽 산비탈에 축성되어 성 둘레(1684m)를 따라 걸으면, 고창 시가지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봄이면 성을 따라서 분홍, 하얀 철쭉이 화려하게 만개하여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한다.

고인돌 유적지

고창 고인돌유적지〈아래 사진〉는 학계에 보고된 한반도 고인돌 3만6000기 중 2000여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탁자식 · 바둑판식 ·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춘 447기의 고인돌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감상할 수 있어 세계 제1의 고인돌 명소로 유명하다. 고인돌박물관은 2011년 5월 발간된 미슐랭 그린가이드에서 별점 3개(★★★)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2008년 9월 건립된 고인돌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청동기 시대 생활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가는길〉

①선운사: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IC에서 나와 선운사 이정표 따라 20분 ②고인돌유적과 운곡습지: 선운사에서 나와 선운사로 따라 1.5㎞→삼인교차로에서 고창고인돌유적 이정표 따라 우회전 이후 교차로마다 고창고인돌유적 이정표 따라 움직이면 30분 거리 ③학원농장 보리밭: 고인돌박물관에서 나와 우회전, 동서대로로 2.5㎞→대동교차로에서 동호해수욕장 방면 우측 방향→녹두로 6㎞→공음 · 무장 방면→학원관광농장 이정표 따라 우회전→왕제산로 4.4㎞→대산, 청보리밭 이정표 따라갈 것. 소요 시간 30분.

〈숙박〉

선운사 앞에 민박과 펜션이 많이 있다. 단체 여행이라면 선운산유스호스텔(063-561-3333), 선운산관광호텔(063-561-3377) 을 이용해도 좋다.

〈맛집〉

선운사가 있는 고창은 풍천장어와 복분자가 유명하다. 그래서 입구에는 장어식당이 많다. 식당마다 원조 간판을 달고 있어 헛갈리지만 삼거리의 풍천만가(063563-3420)와 신덕식당(063 561-1533)의 맛이 뛰어나 찾는이들이 많다.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인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新 사찰 건축
7. 안양 비웅사

콘크리트 끌어안은 상생의 공간

건물 우측에 크게 걸린 현판만 아니었으면 몰라봤을테다. 아파트와 상가사이에 자리한 절집은 겉으로보면 세련된 주택같기도, 카페 같기도 했다. 특징없이 평범한 건물들 사이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튀어보이지 않았던 건 나무와 콘크리트가 적절히 섞인 덕분인 듯했다.

겉모습만으로 셈한다면 이제 겨우 10살이 된 사찰. 신 사찰건축의 7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비웅사이다.

주변 생각한 신 사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태인 비웅사는 외관부터 범상치않다. 두 개 동으로 나뉜 나무건물사이에 날렵하게 뻗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끼워넣은 느낌이다. 전통과 현대건축의 대표 재료가 맞물려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듯하다. 게다가 측면 벽은 텅 비었다. 벽이라지만 사실 건물의 구조체다. 콘크리트 뼈대가 마치 액자가 되어 건물내부 마당을 담아낸다. 요사채와 법당을 'ㅁ' 자로 배치해 들여둔 마당은 모든 시선들이 지나가는 풍경의 중심이 된다. 덕분에 리드미컬해진 벽면은 자칫 지루하게 길어져 긴장감을 잃고마는 공간에 닫힌 듯 열린 듯한 변주를 준다.

"건축물이 지역경관과 동화되는 과정이죠. 내부에서도 부담없이 외부 풍경을 지각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짐으로써 공간적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도시형 사찰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윤하 노둣돌 소장이 2004년 비웅사 설계를 의뢰받고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었다.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세워지는 비웅사는 특출나지도, 독보적이지도 않아야했다. 주변과 동화되지 않는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한다면 종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터였다. 포교를 우선으로 하는 도심 사찰에도 어울리지 않았다.

벽으로 둘러싸인 보편적 건물의 모습은 개인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러나 비웅사가 건물에 빈공간을 들임으로써 생기는 시각적 미학은 이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알려준다.

스님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개념이었다. 이 건축가는 이를 두고 '건축에 자연을 표현한다' 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란 옥상과 마당에 깔린 잔디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주변 산을 경치로 끌어들일 줄 알았던 전통 건축의 그것이었다. 주변과 건물이 다툼없이 어울렸던 '자연스런' 모습처럼, 비웅사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 환경을 제2의 자연으로 본 것이다. 화쟁과 원융, 상생과 조화가 비웅사에는 녹아들었다.

불교건축 본질 놓치지 않아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등의 가람배치가 속계와 성계의 구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공간 안에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전통사찰의 형태만을 가져오는 일은 오히려 전통의 미감을 퇴색시킬게 분명하다고 봤다. 어정쩡하게 주변에서 겉도는 건물을 만들기보다 전통을 재해석하고 종교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비웅사가 들어설 땅은 좁고 길게 뻗은 250평의 대지. 건물의 정면이 위치할 부분은 좁은데 반해 측면은 지나치게 길었다. 이 소장은 사찰건축이 공간적 상징성에 무게를 둔다는 점에 주목, 이를 드러내는데 측면을 적극 활용해보기로 했다.

우선 건물 옆을 따라 계단을 길게 냈다. 3층 높이의 완만한 계단을 따라 오르다 몸을 180도 틀게 되면 2미터가 채 못되는 좁은 복도가 나온다. 길을 따라가다 다시 'ㄴ' 자로 발걸음 방향을 바꾼다.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대웅보전이 나타난다. 대략 70m에 이르는 길이다. 이 과정 중에 세 번이나 몸을 튼다. 외부에서 시작한 길은 실내로 들어가고 다시 천장이 반쯤 트인 공간으로 이어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바로 부처님을 뵐 수도 있었지만 동선을 확장함으로써 속계를 떨치고 진계로 나아가는 '구도의 길' 을 표현했다. 넓은 대지에 조성된 백제가람과 산지형 계단식 신라가람도 결합했다. 평지지만 공간에 위계를 줘 종교건축이 지닐 수 있는 공간감을 극대화시켰다. 일반 건축물이었다면 동선의 낭비라며 실현되지 않았을 건축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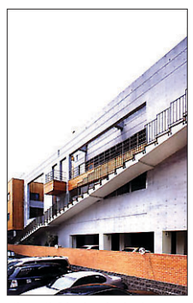
불교적 맥락은 재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건축자재의 물성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부식이 적은 적삼목은 외부 마감재가 되었고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줄 모양을 그대로 살렸다. 동그란무늬의 콘은 밋밋한 콘크리트에 표정을 더했다.

흔히들 콘크리트가 인공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건축가의 설명. 석회로 이루어진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를 섞고 물에 반죽해서 구워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의 물성은 검박함이에요. 콘크리트 재료 자체도 원래 자연에서 온 것이죠.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소장은 생태주의 건축가다. 생태주의란 말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생물과 환경을 고려해 이를 표현한다. 건축가의 말을 빌리면 "빈 터에 건물을 들일 때는 대지 위를 노니는 바람, 햇빛과 곧 방문할 비, 물과도 상의해 서로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자연과 닿아 있죠.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지으려고 해도 풀 한포기, 땅에 있는 벌레 등 토양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친환경건축이 각광받는 요즘, 불교는 상호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고려해야할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적 다양성과 배려가 녹아있는 곳을 만들어내야하죠."

2006년 완공 당시 비웅사 전경. 설계에 3개월, 시공에 6개월이 걸렸다.

아파트 등 주변을 제2의 자연으로
전통·현대 대표 재료 사용
비웅사 외벽 허공과 창은
안팎 경계 허무는 소통 접점

지금 설계했다면 또 달랐을 것

비웅사를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유독 창문에 눈길이 머문다. 창을 위해 1층 벽 한면을 통째로 내어준 것을 비롯, 건물 내부를 드나들며 곳곳에서 외부와 만날 수 있다. 1층 창이 가로가 길다면 다른 창은 세로가 길쭉한, 1자에 가깝다. 극적인 형태의 창을 통해 자꾸 외부로 시선이 가고 건물내부로 눈길이 향한다. 창은 이곳이 소통의 공간임을 주지시킨다. 끝없이 내가 있는 위치를 일깨우고 반추하게 하지만 안과 밖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다.

이 소장은 비웅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00년의 건축가와 2005년의 건축가는 달라야하겠죠. 지금 비웅사를 설계했다면 또 다른 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에는 그 시대의 철학과 사회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대성이죠. 그러면서도 과거에 쌓여왔던 건축적 전통, 풍토성을 담아내야하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친밀성을 통해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생태성. 이 세 가지가 비웅사에는 녹아들었습니다."

비웅사는 산 대신 도시를 택했다. 그리고 전통이 아닌 현대를 택했다. 현실적으로 빠듯한 공사예산에도 적합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사찰의 본질은 버리지 않았다.

대웅보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사람들이 와서 예경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박물관 유리 전시실처럼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법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들어 문지방이 닳아야하는 공간인 것이다. 비웅사는 현대 사찰이 어떤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야할지 고민하게 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법당으로 가는 계단. 동선을 확장함으로써 속계를 떨치고 성계로 나아가는 '구도의 길' 을 표현했다.


비웅사 마당 옆으로는 주변풍경을 담아내는 커다란 콘크리트 액자가 있다.

비웅사 정면. 일주문은 나중에 세워졌다. 건물 우측으로 법당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한국의 구법승
8. 자장율사

신라에도 오대산이 있으니 이 땅이 불국토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한느 문수보살. 이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이 중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정립한 이가 있으니 바로 자장(慈藏) 율사다.

자장 율사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워 신라의 기상을 널리 떨쳤으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대에 걸쳐 계율을 정비해 신라의 국력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파계하지 않으리

〈三國遺事〉 '慈藏定律' 條의 기록에 따르면 자장율사의 속성(俗姓)은 김 씨로서 이름은 선종랑(善宗郎), 무림(茂林)공의 아들이다.

무림공은 진골 출신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 3위에 해당하는 소판(蘇判)의 관직에 있었으나 늦게 까지 아들이 없었다. 자장 스님이 태어나기 전 무림공은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기도했다.

"만약 아들을 얻게 되면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겠으며, 모든 이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자장율사의 부모들은 아들을 낳으면 시주하여 법해의 율량이 되게 할 것을 축원하면서 천부관음(千部觀音)을 조성하였다.

이후 자장율사의 어머니가 별이 품 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4월 초파일에 아이를 낳으니 그가 바로 자장 율사다. 자장율사는 어려서부터 심지(心志)가 맑고 슬기로웠으며 문장과 생각이 날로 풍부하여져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장율사에게는 시련이 닥쳐왔다. 일찍 부모님을 여읜 것이다. 스님은 양친이 모두 돌아가시자 인생의 무상(無常)을 실감한다. 스님은 집안의 전답을 모두 팔고 원녕사(寧光寺)란 절을 짓고 그곳에서 혼자 수행에 들어갔다. 스님은 호랑이나 이리를 피하지 않고 오로지 고골관(枯骨觀, 白骨觀)을 닦았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피곤할 때는 작은 방을 만들어 주위를 가시로 막고 맨 몸으로 그 안에 앉아 움직이면 가시가 찌르도록 하고 심지어 머리를 들보에 매어 혼미한 정신을 바로 잡는 혹독한 고행(苦行)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구도를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을 때 조정에서는 대신(大臣) 자리가 비게 된다. 관례대로라면 스님의 가문이 문벌(門閥)로서 맡을 차례이기에 조정에서는 스님을 여러차례 부른다.

하지만 스님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왕은 칙령을 내려 "취임하지 않으면 목을 베리라"고 하였으나 스님은 굽히지 않았다.

"내 차라리 단 하루라도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파계(破戒)하고 백년 동안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吾寧曰一持戒而死 不願百年破戒而生)"

이때 스님은 강한 출가(出家)의지를 표했다. 이 말이 전해지자 왕도 어쩔 수 없이 스님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이에 다시 스님은 산 속 깊이 은거하여 수행하는데 이상한 새가 과일을 물고 와서 공양하였고 천인(天人)이 와서 오계(五戒)를 주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 뒤 산골로부터 나오자 각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장율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덕여왕 5년(636) 소칙을 받아 제자 실(實) 등 10여 명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친견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오대산을 찾았다. 오대산은 '장차 문수보살이 살 곳' 이라 예언된 동쪽의 산으로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코자 했다.

자장율사는 입당해 청량산(淸凉山) 문수보살상(文殊菩薩像) 앞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이때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산스크리트 어(梵語)로 된 4구(句)게를 주었다. 스님은 깨어나서 기억은 나는데, 모두 산스크리트 어여서 어떻게 해독할지 몰랐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홀연히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 스님은 자장율사의 꿈에 나타난 게를 번역해 주었다.

가라파좌낭시(呵 婆佐 娘是) 모든 법을 알았다
달예치거야(達嚧 佉 嘢) 본디 성품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
낭가희가낭(娘伽哬伽 娘) 이와 같이 법성(法性)을 풀면
달예노사나(達嚧盧舍那) 곧 노사나불을 보게 되리라

그 스님은 "비록 만교(萬敎)를 배운다 할지라도 아직 이 보다 나은 글이 없다"며 가사(袈裟)와 사리(舍利)등을 주며 부처님의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 스님

대신 자리 거부하고 당나라 유학
신라도 문수성지 오대산 있음 밝혀
귀국해 계율 정비, 불교 부흥 계기
통도사·월정사·신흥사 등 창건

은 신라 북쪽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으며, 거기 만명의 문수보살이 늘 있으므로, 가서 만나라고 전하기도 했다. 명주는 지금의 강릉이다.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의 성별을 받은 것을 알고 북대(北臺)에서 내려와 태화지(太和池)에 다다라 당나라 서울로 향했다. 당나라 태종은 칙사를 보내 율사를 승광별원(勝光別院)에 머무르게 하며 후하게 대접했다.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게 되기까지

자장율사는 또 다른 만남을 이룬다. 자장율사가 당나라 태화자라는 연못가를 지날 때였다. 어디에선가 한 신령스러운 사람이 나타나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왔는습니까?"

"불도를 깨치기 위해 왔습니다."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합장하고 절하며 다시 물었다.

"그대의 나라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소?"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말갈, 남으로는 왜국과 인접해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침입하니 이런 이웃 나라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왕을 모시고 있소. 여자가 임금이니 덕은 있으나 위엄은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넘겨보는 것이오. 그대는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의 힘이 되도록 하시오."

"고국에 돌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힘이 되리이까?"

"황룡사의 호법룡은 바로 나의 맏아들로 그 절을 호위하고 있소.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면 절 안에 9층탑을 세우도록 하오. 그리하면 이웃 나라들이 모두 항복하고 동방의 아홉 나라가 조공해 올 것이며 나라가 길이 평안하리라. 또 탑을 세운 뒤에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들을 석방하면 외적들이 감히 해치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경기 지방 남쪽 해안에 자그마한 절을 짓고 내 복을 빌어 준다면 나 또한 그 은덕을 갚으리다."

말을 마친 신령은 자장율사에게 옥을 바치고는 이내 사라져 버렸다. 탑이 구층이 된 것은 '구한이 조공을 바칠 것' 이라는 신인의 말 안에 암시되어 있다.

선덕여왕 11년(642), 백제가 신라 서쪽지방 40여 성을 탈취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합세해 당항성을 쳐 당나라와의 해로를 차단하는 한편 대야성(大耶城)을 함락하였다. 선덕여왕은 자장율사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당태종에게 글을 보내 자장율사의 귀국을 정식으로 청한다.

자장율사는 귀국길에 신라에 불상과 불경 등이 미비함을 생각하고 대장경 일부와 번당(幡幢), 화개(花蓋) 등 복리(福利)가 될 만한 것을 청하여 귀국하게 된다.


양산 통도사 개산조당에 봉안돼 있는 자장율사 진영



자장율사가 창건한 양산 통도사의 금강계단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에 세워진 월정사

자장율사는 먼저 분황사에 머물며 승려들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착수한다. 그 다음에 각 지방을 돌면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 했다. 자장율사의 원대한 뜻은 화엄사상에 의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자장율사는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을 건의해 구층탑을 세운다.

계율로 국가 기강 바로잡아

자장율사는 불교의 계율을 신라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자장율사는 신라 최고 승직(僧職)인 대국통(大國統)에 임명된다. 대국통(大國統)은 승려를 하나로 이끄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자장율사는 불교의 일을 맡아 받들고 수행하는 규칙을 제정해 조직화하는데 나섰다.

비구와 비구니의 규범을 통제하기 위해 반월(半月)마다 계(戒)를 설했으며 겨울과 봄에 시험을 치러 잘 지켰는지 알아보았으며, 순사(巡使)를 보내 외부의 절을 두루 조사하여, 승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지 엄격히 경계하였다. 경전과 불상을 엄중히 모시는 것은 더욱 철저한 규칙이었다.

왕궁과 분황사에서 보살계본을 강의하는 한편 사부대중을 교화하기에 이른다. 당시 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10명에 8~9명이 될 정도였다. 이에 이들을 수용하고자 세운 절이 통도사(通度寺)다. 금강계단(金剛戒壇)도 이 때 만들어졌다. 통도사에는 불사리와 가사 뿐만 아니라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대장경이 역사상 최초로 봉안되기도 했다.

자장율사가 전국에 만든 사찰과 탑이 열군데 정도 되는데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를 받드는 신도들이 가득히 찾아와 일을 도왔다. 〈삼국유사〉에서는 하나 만들 때 '하루도 안 걸려 이루어졌다' 고 표현하는데 다소 과장이 섞였을지 모르나, 자장율사로 인해 일종의 불교 붐이 일어났음이 확실하다.

자장율사의 활동은 불교에만 그치지 않았다. 자장율사는 복식과 표장(標章) 등의 양식을 중국에 준하여 입자고 건의했다. 진덕여왕 3년(649), 신라는 이를 받아들여 중국 의관을 입고, 다음해 연호를 중국식으로 하여 영휘(永徽)라고 했다. 이를 통해 신라는 당대의 앞선 문화를 발빠르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모습들이 뒷날 삼국통일의 기틀로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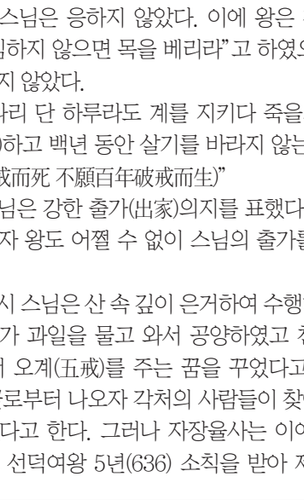
월정사, 신흥사 등 창건, 세연 다해 홀연히 떠나

국가와 불교를 위해 애써 노력한 자장율사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떠나 오대산에 월정사, 설악산에 신흥사, 마곡사, 정암사, 통도사, 용연사, 유금사, 광덕사를 세우기도 했다.

불법을 펴는 것에 일생을 바친 자장율사는 이윽고 자신의 세연(世緣)이 다 하였음을 알고 한번 더 문수보살을 친견하기를 발원한다. 자장율사의 꿈에 중국에서 만났던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 스님은 날이 밝거든 대송정(大松汀)에서 만나자 하여 자장율사는 놀라 일어나 송정에 이르렀다. 그 스님은 문수보살이었다. 자장율사는 이어 문수보살의 계시로 갈반지(태백산)에 석남원(정암사)을 세웠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변해 찾아온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아상(我相)에 낙망해 3년 뒤를 기약하고 몸은 남겨둔 채 정신만 산으로 들어갔으나, 육신이 다비되는 바람에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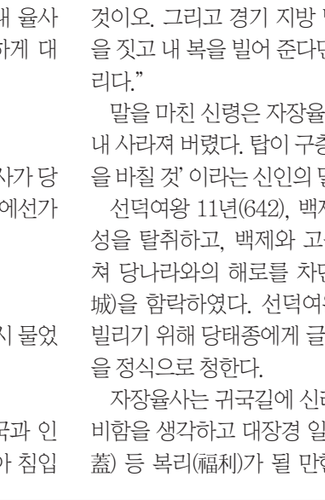
2,6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미혹과 업으로 인해,
서로 관계하여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을 끊으라!
연기법으로
읽는
불교
최신간
목경찬 지음,
216쪽, 13,000원

마음 작용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기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풀이한 십이연기, 삼법인,
오온, 십이처, 십팔계 및 업과 윤회의 참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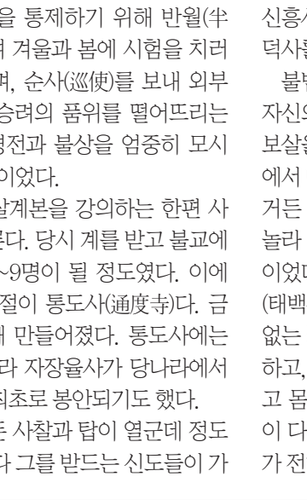
허공이 화내고 찡그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허공처럼 걸림 없이 바다처럼
분별없이 무심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길,
스님 열여덟 분에게 배우다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
《법보신문》 월간 《불광》 공동 기획,
지선 스님 외 17명,
192쪽, 11,000원

스님들 법문에 녹아 있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지혜과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 조선,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 주목한 화제의 신간 |

정확한 번역, 간결한 문장,
손에 꼭 맞는 판형으로 만나는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법구경)



빠알리어 직역
담마빠다
DHAMMAPADA
(법구경)
일아 스님 옮김,
224쪽, 12,000원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의 일아 스님이
수년에 걸쳐 공들여 작업한 담마빠다 번역본의 정본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경계 곧 성품, 성품 곧 경계"

듯하다 ①

소승도는 인연에 굴리이지만은 상승도는 우리가 인연을 씀이니 일체 법에 머물지 않으면서 일체 법에 굴림이다.

우리가 일체 법에 머물지 않으면서 되돌아서 그 일체 법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체법, 경계. 그 경계를 인식하면은, 이 촛불도 경계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경계, 어느 것 경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구도 경계, 태양도 경계, 그 경계를 인식하면은 성품 따로 없는 거이, 그 경계를 인식을 하면 알면은 그 말입니다. 성품은 따로 없습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도 알게 됩니다. 벌써 그 경계를 통해서 내 성품 알게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를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으면 알게 됩니다. 또 그 성품을 인식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인식을 하면은 경계 따로 있을 손가? 경계가 따로 없어. 자 이거 무슨 도리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법을 들은 것을 요량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경계가 벌써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란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어째서 경계하고 성품하고 둘이 아니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경계는 따로 없어.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가 인식하면 그 성품은 따로 없거든요. 그럼 경계 곧 성품, 성품 곧 경계인데 언뜻 들으면 전혀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경계, 집도 경계, 지구도 경계, 태양도 경계, 내 몸뚱어리도 경계. 어느 것 하나 경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경계, 어느 것 하나 경계 아닌 것이 없는데, 일체법인데 이것이 내 성품하고 같다. 경계에 대한 이 사실을 그대로 알면 내 성품이 따로 없어. 이걸 떠나서 내 성품이 있지 않아. 또 내 성품을 인식을 해.

알면은 이 성품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아. 이것이 과학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돌려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도대체 경계가 뭣인가 한 번 봅시다. 경계. 우선 지구를 한 번 봅시다. 태양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래라. 여래님 같을 여자, 올 래자. 참 이거 좋은 말입니다. 벌써 여래라.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쏟아놓은 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같을 여자 올 래자, 온 것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온 듯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래라, 온 듯하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어째서 팔만대장경을 요 글 자 두 개에 다 넣어 놓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온 듯 이 말입니다. 우리말도 글자 두 개입니다. 온 듯. 지구도 온 듯. 어째서 온 듯이지요? 지구라면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성품이 허공성이든 아니든 그건 별 문제로 하고. 우선 지구가 모습이 있으니 이놈이 생긴 때가 있어. 지구가 생긴 지가 사십육억 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으니 앞으로 사십육억 년이 더 있을는지 육억 년이 더 있을는지 이건 미지수로 하고 모습이 있으니 장차 없어질 건 사실 아니겠어요?

> **일체법의 경계 인식하면**
> **어느것도 경계 아닌 것이 없고**
> **'경계와 성품' 둘 아닌 것 알게 돼**
>
> **기쁨·젊음 등 영속되면 '병'**
> **있는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며**
> **진짜가 아니나 '듯하다' 할 뿐**

그러하니 온 듯 한 것 아니에요? 이거 납득 갑니까? 촛불 지금 켜졌다 말이죠. 나중에 이거 다 하면 없어져. 촛불도 켜진 듯. 지금 밝지 않아요? 밝은 듯이거든. 어느 것 하나 듯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는 듯. 물이 흐르는 듯. 어떻습니까? 납득 안 갑니까? 여러분. 웃는 듯 기쁜 듯 슬픈 듯. 기쁘다는 말은 아주 즐거운 걸 기쁘다고 하는 것이고 즐긴다는 건 또 좀 다릅니다. 참말로 기쁘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뻐. 이틀이나 사흘이나 기뻐. 그 기쁨 그대로 가져집니까? 죽 계속해서 하루종일 이십사 시간 기쁘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또 슬픈 일이 있다 말이죠. 이십사시간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서 자꾸 울어. 이십사 시간 울면 그 사람 미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기쁜 것이 영속이 안돼. 영속되면 벌써 병이라. 슬픈 것도 슬픈 것이 영속이 안돼. 이것도 벌써 병이라. 슬픈 듯 기쁜 듯. 그럼 즐거운 것은 뭣이냐. 즐거운 것은 그런 기쁜 것처럼 하~ 이런 것이 없어. 그만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서 그냥 즐길 따름이라. 즐겁다는 표도 없어. 또 그대로 괴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 안심이 딱 돼. 이건 영원성입니다. 이건 적멸성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쁘다는 것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쯤 기쁘면 하하 웃고 이래 할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기뻐 놓으면 나중에 웃는 이것도 다 아파.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돼 버려.

기쁜 듯.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문제하고 결부해 보세요. 여러분이 난 듯. 여러분이 나도 난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안 난 것도 아니네. 헛거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법신이 나고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나고 거 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이런 헛거를 나투었어. 그러나 이건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 난 듯. 또 우리가 늙었다 말이죠. 또 젊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젊은 사람 젊은 듯 만약 그 젊음이 영원이라면 듯 자 안 붙습니다. 만약 서른 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서른살 더 먹으면 우리처럼 돼버리거든. 그러니 젊은 듯이지.

아시겠죠? 늙은 듯. 원래 그 법성 자리가 참말로 늙은 것은 없지만은 실제로는 늙었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늙음 이것을 갖다가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 잠깐 동안이거든. 늙은 듯. 기침을 하는 듯. 아까는 했지만은 지금은 없잖아요? 전부 듯이에요. 어느 것 듯 하나 떠난 것이 없어요.

아픈 듯. 아픈 듯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낫거든. 그때는 아팠던 것 없어 그래 아픈 듯이에요. 죽는 듯. 죽어도 참말로 죽는 것 아니거든요. 이건 없어져. 이거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기 전에도 산화돼서 없어지지만 말이죠. 중간에 산화되는 건 제 이 문제로 하고도 말이죠. 그 죽음으로서 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법신이 다른 걸 나투어. 그러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죽음 아닌 것도 아니네. 그러니 죽는 듯 한 거예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삼밀가지하면 즉신성불이다

三密加持

7-3 참회진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법문은 진리를 일러 준다지만 실상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고 장황되어 자칫하면 후학들이 지엽말단에 얽매어 참 소리를 놓쳐 버리는 것이 일쑤다. 법문을 통해 누가 일러 주어서 아는 것 보다는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서 법문 이전의 진리를 터득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아는 길이 아닌가.

벌써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소리 한 번 일러서 안 듣고, 두번 일러서 그만이고 세번 씩이나 일러야 하게 되면 큰 소리가 나게 마련이고 재미 적은 것이다. 큰 소리 나기 전에 첫마디에 선뜻 알아차리고 얼른 시키는 대로 해버린 그렇게 된 형상이 바로 아래 아 'ㆍ' 자인데 실상은 이것조차도 나기 이전에 그때 법문을 알아듣는 그것이 가장 완전히 아는 것이란 말이다.

불교에서는 진리의 몸뚱이, 법신불(法身佛)인 비로자나 불이 진리의 진리, 다시 말하여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 지경을 'ㆍ' 자로써 설명한다. 'ㆍ' 자도 나기 이전에 비로자나 불을 알았다면 그야말로 가장 잘 안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무엇이 어떠니 해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다. 불교의 공안(公案) 가운데, 부모 낳기 이전의 아(我)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에게서 이 몸뚱이를 받기 이전에 그때 '나' 란 것은 무엇이냐,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 알면 가장 잘 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經典)을 일체 음성의 기본인 'ㆍ' 자도 나기 이전 그때 것을 알았다면 크게 잘 안 것이다. 이를 일컬어 'ㆍ' 자의 본불생관(本不生觀)이라고 한다.

이것은 밀교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써 법신(法身) 비로자나의 성불(成佛)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또 하나 재미 있는 것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이야기다. 몸으로 한 노릇, 입으로 한 말, 뜻으로 한 정신 작용, 이런 것이 우리들 범상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각기 분리되어 제멋대로다. 통일되어 있지를 않다.

그러나 이 몸과 말하는 음성과 우리의 정신, 이 세 가지의 신비가 한데 합일되었을 때 이를 일컬어 삼밀가지(三密加持)라고 한다. 몸에는 신밀(身密)이, 입에는 구밀(口密)이, 뜻에는 의밀(意密)이 있다. 밀(密)이란 비밀이라는 뜻이다. 몸의 몸짓의 신비성, 소리의 신비성, 정신작용이 자아내는 온갖 신비성, 신기로운 이 지경이 한데 합일되는 것을 삼밀이 가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음성으로써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삼밀이 가지한다. 그리하여 삼밀이 가지하는 이것이 곧 이 육신으로서 성불(成佛)하는 지경이다. 삼밀가지(三密加持) 하면 즉신성불(卽身成佛)이다. 곧 이 몸뚱이가 부처를 이룬다.

모든 경전 가운데 그 경전의 안목이라고 할까, 이의 가장 근간이라 하는 것이 불멸 후 천년 대에 이르러 비밀불교(秘密佛敎)라고 하여 이때부터는 경전의 주요 안목이 총지(摠持)에 있었다. 다라니(陀羅尼)가 경의 총안목처럼 되었다. 흡사 그물의 한 코를 잡아당기면 천코 만코가 주르르 딸려 오듯한다고 하여 이를 총지라고 하였다. 이 총지는 실상인즉 알고 보면 요즘 현대 사회에도 흔히 적용되고 있다. 반드시 불교의 영향이랄 수는 없을는지 모르나 재미 있는 대목이다.

현대의 정치 사회에서는 캐치프레이즈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부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선거ㆍ투쟁ㆍ그 밖에 무슨 큰 일을 하려고 들때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어 걸게 된다. 구 자유당 집권 당시, 대통령 선거전에 있어 야당에서는 '못살겠다. 갈아 보자' 는 구호를 외쳐댔다. 그러자 자유당 측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구호를 만들어내어 즉각적으로 응수했다. 정객들은 말 만들어내는 건 하여튼 잘 하는 모양인데 '갈아봐야 별 수 없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불교의 입장에서 보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주문(呪文)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보면 현대인들은 주문 비슷한 소리에 귀가 쭈뼛하여 얼른 알아듣기도 하는 것 같다.

> **'신구의' 삼업의 신비성**
> **합일 되는 것이 '삼밀가지'**
> **정신·육체·음성 완전히 통일**
> **몸뚱이가 부처를 이룬 지경**
>
> **불멸 후 1천년대 비밀불교는**
> **진언·만다라 등에 진리요약**

불교에서 진언(眞言)을 일컫고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므로서 커다란 신비에 접한다느니 보다도 이것이 짧은 몇 마디 말 가운데 진리의 중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간직하였고 그러므로 이를 외우면 그 진리를 성취할 수 있고 또 중생에게 성취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언을 다라니라고 하지만 비슷한 말로 만다라(曼陀羅)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원륜(圓輪)이 구족(具足)하다는 것을 이름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이 다솔사(多率寺)라는 절엔 법당이 있고 화목(花木)이 어우러져 뜰을 이루었고 법당 안에는 그림이 있고 처마에 조각을 하여 단청(丹靑)을 입혔고 하여 절 전체가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만다라라고 한다는 소리다.

경주의 석굴암은 매우 귀중한 만다라다. 짜임새 있는 거룩한 수련도량(修練道場)이라는 뜻이다. 이래서 무엇으로 번역할 말이 없으므로 원어대로 만다라라고 하는 것이다. 원만한 수레 바퀴가 구족하고 원륜구족(圓輪具足)이라느니 또는 원만한 제단(祭壇)이니 번역해 보아야 신통치 않다. 금강산(金剛山)은 풍경이 절승(絕勝)이고 아주 짜임새 있는 일대 자연 만다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옴살바 ˛ㅌ다모디사다야 사바하' 라는 주문의 뜻은 보통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수(傳受)는 일정한 밀교의 의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치 않는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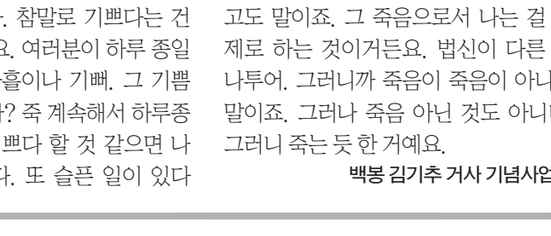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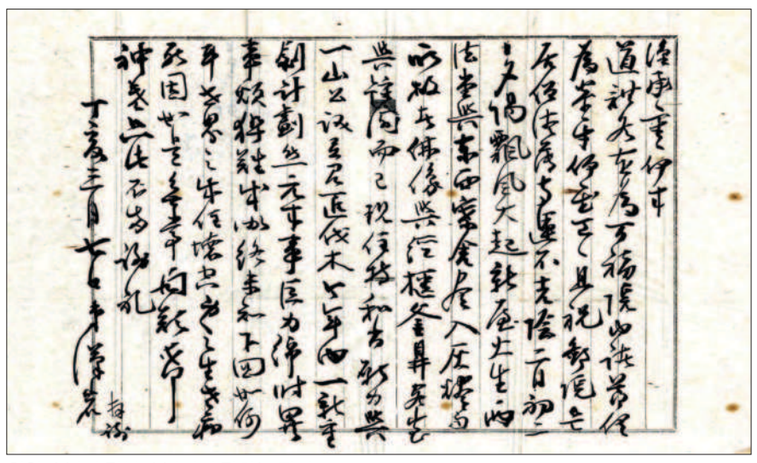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2〉

"세상은 성주괴공 무상할 뿐"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경봉(鏡峰)스님께

보내 주신 편지는 염려하는 마음과 함께 잘 받았습니다.

법체가 여전히 청정, 만복하시고 사찰의 모든 대중들[諸節]이 태평하시다니 기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이곳은 산승(한암선사)이 덕(德)이 박하고 게다가 사찰의 운세도 불길한 탓으로 음력 2월 초이튿날 석양 무렵에 회오리바람이 크게 일어 새로 지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대(兩大) 법당과 동서에 있던 요사채가 모두 화마(火魔)에 휩싸여 재[灰]가 되었습니다. 겨우 건진 것은 불상(佛像)과 경궤(經櫃, 경전을 담은 함)와 가마솥과 객실(客室) 그리고 종각(鐘閣)뿐입니다. 현 주지 화상(이 종욱 스님)의 원력과 산중의 공의(公議)로 대목을 부르고 벌목(伐木)을 해서 금년 내로 새롭게 다시 중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원래 일은 크고 힘은 약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번잡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이 어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성주괴공(成住壞空,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고 없어짐)과 우리 몸의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모두 이와 같이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탄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흐려서 이만 줄입니다. 예(禮)를 갖추지 못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1947년) 3월 7일

사제(舍弟) 한암(漢岩)은 절하고 올림

이 편지는 통도사 극락선원에 주석하고 있는 경봉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날짜는 정해년(丁亥年, 1947년) 음력 3월 7일에 보낸 것으로 오대산 상원사 조실로 계실 때이다.

한암선사와 경봉선사는 16세 차이로 한암선사가 무려 16년이나 연상이다. 그렇지만 서로 '사제(舍弟)'라고 칭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이다. 두 분의 인연은 한암선사가 약 6년간 통도사 내원선원의 조실로 계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20여 년 동안 24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정서와 선기(禪機)가 맞아서였을 것이다

[줄거리] (1947년) 음력 2월 2일 해질 무렵에 새로 지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그리하여 법당과 동서 요사채가 모두 타 버리고 그 화마(火魔) 속에서 겨우 가까스로 구한 것은 불상과 경을 담은 상자[經櫃], 가마솥, 객실, 그리고 종각(鐘閣) 뿐이었다. 다행히 국보인 상원사 동종과 문수동자상은 화마를 피했던 것이다.

상원사 전소 위로에 대한 답신
경봉스님과 20여년 24회 서신 교류

당시 한암선사는 상원사 조실로서 72세였는데, 아직 겨울도 채 다 가기 전에 일어난 상원사 전소 사건은 만년의 한암선사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선원 전체가 하루 저녁 사이에 재가 되었으니 삼라만상은 일체개공이라고 하지만 그 허망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계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이나 우리 몸의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모두 이와 같이 무상하기 그지없다"는 말에서 당시의 한암선사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다. 상원사 선원은 본사인 월정사 주지 이종욱스님의 원력과 산중대중들의 합심으로 그해 가을에 중창되었다. 금강산 마하연 선원과 같은 건축양식이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이웃·노인 돌보기 등 나눔실천 앞장
청소년·재소자 교화도 평생 불사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현성정사 주지)

매달 안양교도소에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린다. 재소자 수계법회를 겸한 떡국 대중공양이 열리는 것이다.

"많이 드시고, 밖에 나가 착한일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연신 이들을 따듯하게 어루만지는 이가 있다. 바로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이다. '현성 스님' 하면 유명한 것이 바로 '포교'와 '복지'다. 청소년, 군(軍), 재소자 포교와 노인복지 활동. 얼핏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현성 스님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절로 숙연해지게 된다. 각 분야에서 30년 이상 봉사해온 꾸준한 정성 때문이다.

현성 스님은 청소년과 노인, 재소자와 군장병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포교에 힘썼다. 특히 1982년 4월 혜명양로원을 세웠으며 1980년대 중부전선 법당을 시작으로 무려 14곳의 군법당 신설을 주도했다. 또 석주 스님과 운문 스님에 이어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맡아 어려운 살림에도 꿋꿋하게 청소년 포교활동에 몸담았다. 스님은 이외에도 1981년부터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에게 편안한 법문을 선사하고 있다. 또 명절 때면 쌀 12가마로 떡을 빚어 3500명에 달하는 전체 재소자와 교도관들에게 떡국공양을 올린다.

'백미(白米) 선사' 별호 싫지 않아

이런 스님에게 붙은 별호가 바로 '백미(白米)선사'다. 관내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많이 보시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제는 눈썹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백미(白眉)선사로 불린다.

스님은 이런 활동이 모두 큰 스님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말한다.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현성 스님은 40여 년 전 도선사에서의 청담 스님과의 추억을 더듬었다.

"청담 스님, 우리 노장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중노릇했겠습니까. 그 때 내가 도선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공부를 했겠습니까. 정말 청담 스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요."

1960년대 도선사는 깊은 산중 사찰이었다. 경남 고성에서 서울로 올라온 현성 스님은 도선사에서 하루에 나무를 다섯 짐씩 하면서 공양주 일까지 도맡았다.

"울력이 하도 많아서 고마 딱 죽어버릴 지경이어도 청담 스님은 보살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우리들이 직접 다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해우소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로 한가한 시간이었으니… 그 시절에는 도선암 오솔길 오르내리기도 만만치 않았으니…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었어요."

현성 스님은 청담 스님의 '지고 살라'는 가르침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은사의 당부를 칠순이 넘은 지금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예전에는 도선사 길이 많이 험했어요. 큰스님 출타 후 도선사로 올라오실 때 상좌들이 스님을 태워 모셨지요.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고갯길에서 쉬는데 스님께서 나에게 물었어요. '현성이 너는 만약 불교정화를 하면서 피해를 받은 태고종 쪽 이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고… 내가 답했습니다. '큰스님이 내 눈 앞에서 폭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염불을 하며 지켜보라시는 겁니다. 악연이 있어 나와 다투는 것인데 내가 개입하면 그 연이 얽힌다는 것이지요."

현성 스님은 "스님께서 이어 '큰 중이 되려면 남한테 지고 살아야 한다' 고 하셨어요. 내 성격이 급하니 고쳐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도선사를 나와, 수행납자로 정진

현성 스님은 행자시절 도선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고, 하루 일을 끝내고 오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알다시피 그때 옷이 여러 벌이었나. 입은 옷 말고는 옷이 한 벌 더 있을 뿐인데 빨래를 할 시간이 없어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도반에게 '사중 일이 많아 도저히 빨래를 할 수 없으니 조금만 도와 달라' 고 했지, 근데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고 들었지요. 그 도반과 티격태격하다 고마 한 대 쥐어박았지요. 그 일을 두고 청담 스님이 오셔서는 다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요. '깡패는 깡패 사는데서 살아야지 절에서 살면 안 된다' 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단호히 '가라' 고 하시더라고요."

은사-청담스님, 법사-석암스님
'지고살라'는 은사 가르침 명심
'혜명 양로원' 건립은 노인복지 효시
청소년교화聯 이사장, 꾸준한 활동
'전국구 수계사' … 군법당 14곳 건립
도선사 주지 맡아 도량 일신 기여
"자비실천과 전법은 둘이 아닙니다"

현성 스님은 그 길로 도선사를 나왔다. 영천 은해사로 발길을 돌린 현성 스님은 꿈에서 청담 스님을 만난다. 청담 스님은 꿈에서 부산 선암사 선방으로 가라고 하셨다. 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로 향했다. 선암사에는 선사인 석암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선암사에 방부를 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청담 스님 문하는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딱 한 철만 지내보시고 싹이 없어 보이면 가라고 하시라' 고 했지요."

석암 스님은 현성 스님에게 몇 가지 청규를 제시했다.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찰이니 농사일을 도울 것, 둘째는 참선을 하더라도 가끔 제사가 있으니 금강경을 읽어줄 것, 셋째는 제사음식을 귀신이 먹다 남은 것이라 해서 가리지 말 것, 넷째는 아침 울력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이었다.

현성 스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겠다' 고 다짐하고 선방에서 참선과 계율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겨울철 선암사에서는 17명의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참선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스님은 일주일 만에 몸이 축이 났다.

"하다 보니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뒤틀리고 죽겠는겁니다. 일주일 쯤 지나니 상태를 알아차린 석암 스님이 불러서 말씀하시는겁니다. '기가 세니 기운을 위로 올리지 말로 밑으로 빼는 수승하강을 하면 정진이 잘 될 것이다' 라고요. 한 이틀을 가르쳐주신 대로 하고 나니 기운이 밑으로 싹 빠져 머리가 맑아집디다. 21일 용맹정진에 들어가는데도 잠을 자나 안 자나 똑같더군요."

스님은 당시 결제를 마친 7명 중 한명이 됐다. 그 이후로 현성 스님은 12년 간 선암사에서 정진했다.

"해제날 석암 스님이 '산철 100일기도를 해보지 않겠냐' 고 하셨지요. 나야 기뻤지요. 이후 1200일 기도까지 하게 됐고, 석암 스님의 보살계 법석을 항상 수행했지요. 석암 스님 회상에서 인환 스님, 고산 스님과 함께 배웠지요."

현성 스님은 이후 1970년 조계종 총무원장이 된 청담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총무원장 소임을 맡는 것은 불법입니까?"하고 묻는 스님을 청담 스님은 "그래 니 말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사로 계를 내리는 현성 스님. 현성 스님은 지금도 매달 일선 군법당을 다니며 수계를 비롯해 법문을 하는 등 군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서대문구 14개 동 저소득 가정에 쌀 100포대를 전달하는 모습.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해 '백미' 선사라고도 불린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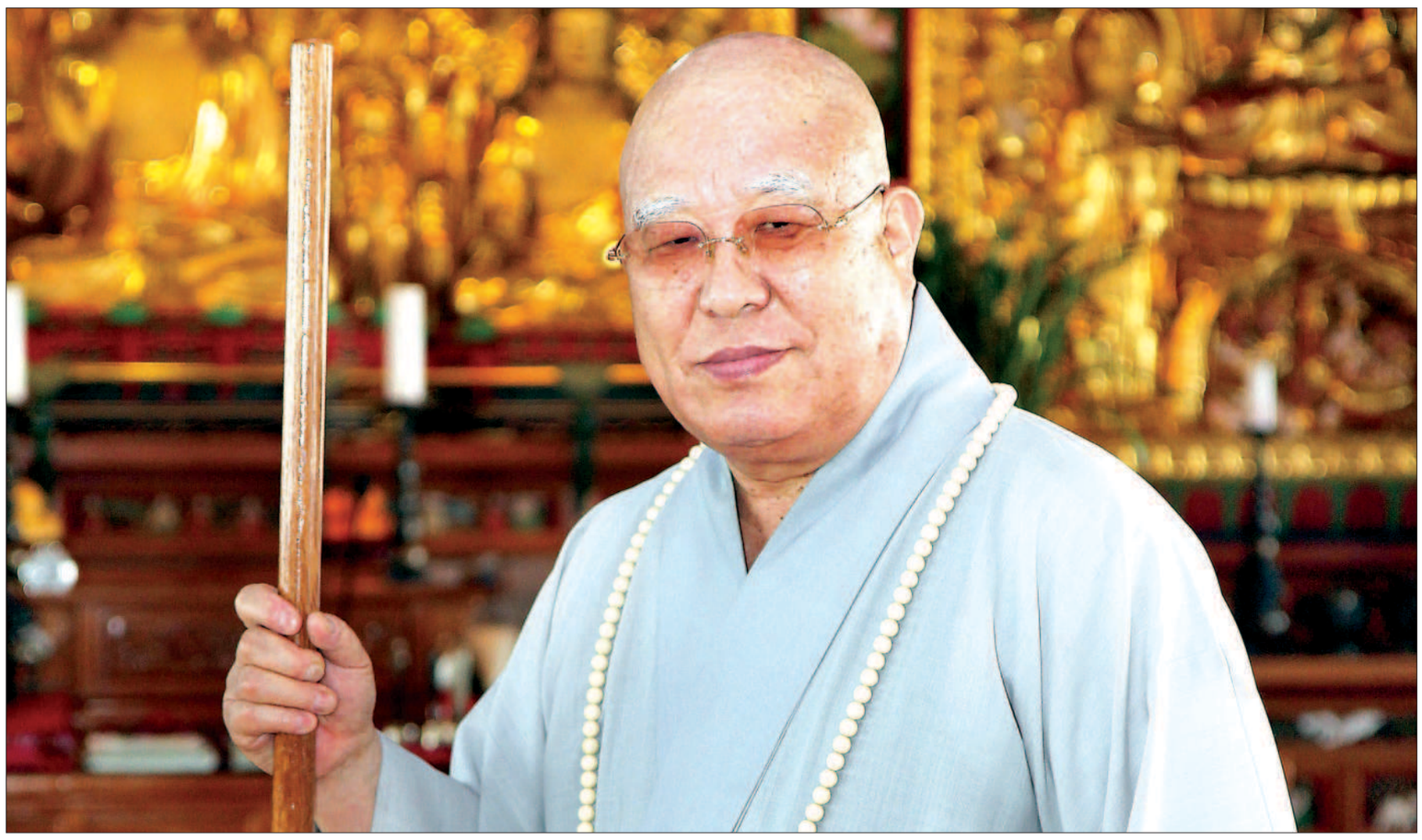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현성 스님은 … 193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현성(玄惺)스님은 서울 선학원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및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수선안거에 들었다. 도선사 실달승가학원과 국민대를 졸업 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 동 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4, 5, 6, 8대), 도선사 주지, 청담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장, 동국대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등 종단 내외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에 주석하며 현재도 안양교도소 불교 종교위원회 회장,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으로 재소자교화와 청소년포교 활동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스님은 종정 표창을 4차례 받은 것을 비롯해 복지부문 목련장, 교정교화부문 동백장, 통일안보부문 모란장 등 국민훈장을 받았다.

옳다"며 오래전 일을 웃음으로 무마했다고 한다. 청담 스님은 이때 현성 스님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현성이가 공부를 좀 했나보제"라며 매우 흐뭇해했다고 한다.

도선사 주지로 포교에 앞장서

현성 스님은 1980년 12월 도선사 주지를 맡으며 청담、석암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다. 국립공원에 군사보호지역까지 묶여 불사가 힘들었던 도선사를 맡아 12년 동안 도량을 정비하고 가람을 중창했다. 대웅전, 석불전, 명부전, 적묵당, 독성각, 요사, 종각, 사천왕, 일주문, 사적비, 청담큰스님 탑전의 108계단의 조성불사를 진행했다. 포교당으로 봉천동 혜명정사(顯 미타정사)와 홍은동 현성정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종단에서는 감찰국장을 시작으로 교육국장을 하며 불교신문 편집국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스님은 승려교육에 열의를 보여 직접 당시 총무원장인 경산 스님에게 승려교육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총무원 총무부장 소임을 맡을 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설립과 경승제도의 기초도 만들었다.

특히 스님은 군포교에 관심을 가졌다. 현성 스님은 1980년대 14곳의 군법당을 건립하며 지금까지도 수계사로 전방부대를 누비고 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회장을 맡아 국가 안보 교육 등에도 나서고 있다.

"아무래도 군포교에 적극적이셨던 청담 스님의 영향이 크지요.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전방부대에서 통일염원 기도를 올린 뒤 스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 고. 스님께서는 장병들이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군법당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스님이 도선사 주지 당시 건립한 혜명양로원은 불교노인복지의 대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불자들의 힘으로 건립을 이뤄냈다. 스님은 혜명양로원은 출가하며 봉양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위해 건립했다고 말했다.

"내 한 몸이야 출가해서 이렇게 살지만, 내 부모에겐 불효자나 다름없으니, 그 불효를 늙고 병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나마 갚아야지요."

스님은 청소년포교 분야에도 나서 석주스님, 운문스님에 이어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맡아 현재의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로 발돋움시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교화위원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8년 '독지가 방문'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안양교도소에서 매달 한 번씩 떡국공양을,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수계식 때는 전 재소자에게 간식공양을 올린다.

이런 공로로 스님은 종정 표창을 4차례 받은 것을 비롯해 복지부문 목련장, 교정교화부문 동백장, 통일안보부문 모란장 등 국민훈장을 받았으며 제3회 교정대상 자비상(법무부), 제1회 청소년 보호대상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부문' 표창 등 수십차례 상을 수상했다.



통일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이밖에 사회복지 기여로 국민훈장 목련장, 교정교화 기여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웃 보살피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

스님은 타인을 위한 자비의 마음은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러 곳을 다녀보니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보태서 쌀을 보내거나 합니다. 솔직히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을 돕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선행, 보시행이 일상생활로 그렇게 젖어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느끼는 자신을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말 허름한 집에 위문을 가면 느낍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따듯한 밥 한 그릇에 만족할 수 있구나. 수행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이 살 때는 다른 사람 보살필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스님은 끝으로 청담 스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말했다.

"우리가 '지고 살라' 는 가르침을 되새기면 다툼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심하면 다른 이의 아픔도 보게 되지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군종병은 한명의 포교사

경기도 가평의 어느 부대에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법회를 마치고 간식을 나눠주는데 한 훈련병이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삼귀의를 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군생활을 하면서 삼귀의를 하는데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을 처음만났기에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삼귀의를 하는데 눈물이 난다. 예전에 미국에서 온 현각 스님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자들이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귀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니… 전생에 스님이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다음 말이 저의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불자는 첫 번째 법회 때 삼귀의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 법회부터는 여단 군종병으로 선발돼 법회 집전을 돕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청년불자는 모르는 불교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법당 청소를 비롯해 심지어 재정관리, 병사관리 등 군종병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합니다. 전역 후 다시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가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시 동갑이었던 법사님과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불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군종병은 군대 내에서 계급이 병사일 뿐이지, 법사님이 부재할 때는 신도 안내를 비롯해 법회 보는 것을 돕기도 하고, 여러 법당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대 내 생활관에서는 동료 전우들을 위로하고, 심리상담을 하는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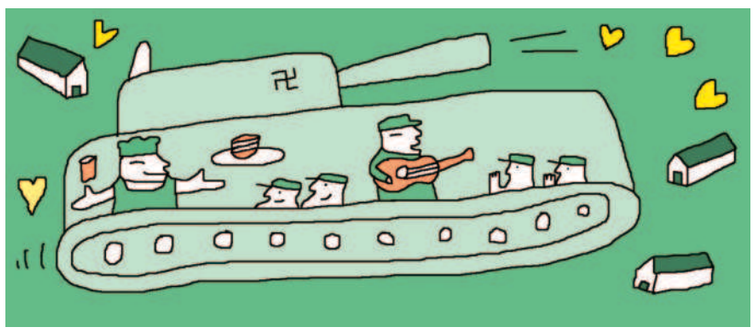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스님, 그러니 저를 군종병 시켜 주십시오."

이 청년불자는 눈물이 나서 군종병이 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군종병이 하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고 한 것일까요?

덕분에 이 청년불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청년불자가 살던 곳은 미국 필라델피아였습니다. 나이는 28세로 다소 많았지요.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던 이 청년은 자진해서 군에 입대한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좋은 근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종병이 근기가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군종병이 전역할 때와 시점이 맞아야 하고, 신심이 깊어야 할 수 있었죠.

저는 과연 이 청년불자를 군종병으로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예하부대의 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종병 지원 병사가 있는데, 사람이 좋아보이네요. 그쪽 부대 군종병 새로 뽑을 시기가 맞으면 한번 와서 만나보세요."

할 등도 맡고 있습니다.

외부와 접촉이 많은 도심지 군법당에서는 어린이법회를 진행하기도 하며, 격오지 군법당에서는 직접 병사들을 위한 음식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포교사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이러한 군종병들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불교군종병을 하며 맺은 인연을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최근에는 군포교 일환으로 이러한 군종병들을 관리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명 한명 일당백의 포교사가 되어 활동할 것입니다. 군에서 맺은 인연이 사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도 일선 군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군종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바림등·공단등 : 6cm / 8cm / 10.5cm / 13cm / 20cm / 30cm

비닐만월등 / 비닐팔각만월등 / 영가만월등 / 장만월등
청사초롱등 / 오색청사초롱 / 비단접등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대 대 (7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 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 이상)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 방수전선-22cm, 23cm, 25cm, 30cm 65,000원 (5줄이상) / 80,000원
- 방수전선-50cm 75,000원 (5줄이상) / 90,000원
- 방수전선-1m, 2m 90,000원 (5줄이상) / 100,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워싱턴D.C.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챙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관심 커져
20여 곳서 마음챙김 프로그램 운영


점심시간을 이용해 12명의 직장인들이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세미나실에 모여 '일터에서 나를 찾아(Visit Yourself at Work)' 에서 제공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리아 베이싱(Klia Bassing?38?사진 외쪽) 박사가 운영하고 있다.

명상은 이제 미국에서 일상이 된 것일까?

AFP통신은 4월 4일 "마음챙김으로 일컬어지는 명상이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마음챙김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떨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데 탁월할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명상 특히 마음챙김은 항우울제를 복용한 만큼의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보고서에 주목한 AFP통신은 연구를 진행한 수잔나 게일(Susanna Galle · 신경심리학자) 박사의 말을 인용, "현대 의학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마음챙김을 '복용하고 있다' 고 표현할 정도로 실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보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점심시간을 쪼개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2004년 마음챙김 전문강사들과 함께 '일터에서 나를 찾아(Visit Yourself at Work)' 를 설립, 운영하는 크리아 베이싱(Klia Bassing · 38)은 미국인들, 특히 워싱턴D.C.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챙김' 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세미나실에서 매주 다섯 차례 '마음챙김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아 베이싱은 "워싱턴D.C.에서 마음챙김은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내 교양 프로그램"이라며 "워싱턴D.C.에 소재한 세계은행, 로펌, 보험사 등과 같은 매머드 기업체에서 주로 관련 강사를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미국심리학회 세미나실에 모인 12명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 마시며 내면의 평온을 찾아보세요. 한 순간 여러분의 방황하는 마음을 볼 수만 있을 것입니다"는 크라이 베이싱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이날 "마음챙김은 매 순간 '친절한 의식' 을 일으키게 한다"고 전제한 크라이 베이싱은 "우리 마음은 대부분 걱정이 생기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과거의 일을 반추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며 "이는 현재의 순간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마음챙김을 한다면,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살필 수 있다"고 말한 크리아 베이싱은 "한 숨에 바로 바로 지금이 있다"며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투로 12명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깊은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었다.

4년째 크리아 베이싱의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패티 드랜드(Patti Delande · 42 · 디자이너)는 "마음챙김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크리아 베이싱을 만나기 전까지 불면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패티 드랜드는 "인테리어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당시 나는 침대에 들면서도 습관적으로 공정일정에 쫓겼던 것 같다"며 "크리아 베이싱에게 배운 마음챙김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기술정보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우라 라베즈(Laura Labedz · 29)는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다"고 말했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호흡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라우라 라베즈는 "그런 과정이 수차례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평정심을 찾게 된다"며 "호흡에 집중하다보면 감정이란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화' 도 자자들게 된다"고 말했다.

사내 교양 프로그램으로 '마음챙김' 을 도입할 뜻을 가지고 있는 APA의 홀리 시프레(Holly Siprelle) 전무이사는 "크리아 베이싱에게 마음챙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내 도입에 확신이 선다"고 말했다.

"현재 사내에서는 요가, 마사지, 마음챙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중 '마음챙김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안' 이 될 것 같다"는 홀리 시프레 전문이사는 "사내 교양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건강한 일터' 로 만들자는 데서 출발했다"며 "사내에서 '마음챙김' 의 역할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마음챙김은 바쁜 일상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을 '새롭게 보고 느끼게 하는 방법' "이라고 주목하고 "워싱턴D.C.에는 크리아 베이싱의 '일터에서 나를 찾아(Visit Yourself at Work)' 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20곳 정도"라며 "개인 특히 기업의 요구가 커질수록 더욱 늘어나고, 그 인구 또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에 보드가야 대탑 실물 복제탑 들어서

산타 크루즈 카운티 불교공동체 의견 모아, 발기인 대회 열어

미국 캘리포니아 소퀼(soquel)에 5월중 보드가야 대탑이 들어설 전망이다. 〈산타 크루즈 세티넬〉 지는 4월 4일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소퀼에 보드가야 대탑의 실물 복제탑 건설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부처마을(The land of Buddha)의 대변인은 "보드가야 대탑의 실물 복제탑은 산타 크루즈 카운티 불교공동체의 공의를 모아 시작됐다"며 "석조가 아닌 목조로 지어질 보드가야 대탑 실물 복제탑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산타 크루즈 카운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타 크루즈 세티넬〉 지는 "산타 크루즈 카운티에 들어설 보드가야 대탑은 비록 복제탑이지만 카운티의 잠재된 불성을 일깨우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부처마을은 이번 목재 복제탑에 대한 카운티 불교공동체의 반응을 평가해 향후 '석재 복제탑'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퀼에 보드가야 대탑이 들어선다. 사진은 인도 보드가야 대탑

오종욱 편집위원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불교 개종 뜻 비쳐

데미 무어 "제니퍼, 경전과 의식에도 관심 보여"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Jennifer Aniston)이 불교에 개종할 뜻을 비쳤다"고 〈채널24〉가 4월 7일 전했다.

제니퍼의 절친 데미 무어(Demi Moore)의 말을 인용한 〈채널24〉에 따르면 "불교에 대한 제니퍼의 관심은 매년 더해지고 있고, 올해의 경우 불교경전과 불교의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널24〉는 "오랫동안 요가에 심취해 왔던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제는 영적 가르침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며 "그 정점에서 제니퍼는 지인의 충고를 받아드려 불교로 개종할 수도 있을 것"고 덧붙였다.


제니퍼 애니스톤

오종욱 편집위원

"테러는 스님들이 막는다"

中 영은사, 스님 20명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조소 결성


중국 저장성 영은사는 4월부터 스님과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소조가 결성돼 운영된다.

중국에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한 유명 고찰이 스님들로 구성된 자체 테러대응 조직을 만들었다.

신화통신은 4월 3일(현지시간) "저장성 항저우시의 유명 사찰인 영은사가 이달부터 스님 20명과 보안요원 25명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소조가 결성돼 운영중"이라고 보도했다.

영은사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선종 10대 고찰 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다.

테러 대응소조에 참여한 췌헝 법사는 "스님들은 낮에는 염불하고 밤에는 훈련한다"며 3월 1일 발생한 쿤밍 철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소조 결성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은사를 찾는 관광객과 신도가 하루에 1만여명"이라면서 "테러대응소조 결성으로 절에 돌발적인 테러 사건이 발생할 때 대응의식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신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췌헝 법사는 테러대응소조에는 20~40세의 튼튼하고 민첩한 스님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절 곳곳에는 방패와 곤봉 등의 장비가 배치돼 긴급 사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3월 1일(한국시간)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10여 명의 괴한들이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있는 쿤밍철도역에 나타나 무차별 흉기테러를 벌였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범행자들은 검정색 복장을 착용하고 철도역 매표소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사망자는 최소 29명으로, 부상자는 13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범인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다.

이번 중국 철도역 테러는 도시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이나은 기자

中 "티베트어 사용 법으로 장려"

중국이 티베트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주장에 맞서 티베트어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4월 8일(현지시간)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어 공작위원회 초드락 부주임을 인용해 "티베트 당국이 오는 9월부터 티베트어를 보존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로 하고 정책 초안을 내놨다"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새로 마련되는 정책은 1987년 제정된 티베트어 학습과 사용, 발전에 관한 규정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새 정책이 "티베트족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학습 ·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와 티베트 정부의 관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에게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普通話) 사용을 강요하며 티베트어를 억압하는 등 티베트 문화가 말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드락 부주임은 망명정부의 주장에 대해 " '티베트어가 죽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은 전적으로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나은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생명의 소리 '목어'로 정진의 의미 일깨운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통사에서 목어를 만들며 그림을 그리는 노사나 상묵 스님은 4월 23일~29일 인사동에서 '산사에 눈이 내리면'(갤러리 이즈)과 '천년의 소리 목어'(경인미술관)전을 각각 연다.

노사나 상묵 스님 4월 23일~29일 회화 · 목어 전시

"수행자가 공부를 목적으로 삼아야지 다른 걸 하면 불법에 어긋나요. 취미라면 모를까. 부처님한테도 미안한 일이죠. 그래서 난 실패작이야. 이번 생은 이미 늦었고 다음 생에는 미얀마 같은 곳에서 수행만 하는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어."

경남 하동군 화개면 지통사에서 목어를 만들며 그림을 그리는 노사나 상묵 스님의 솔직한 이야기는 듣는 이를 웃음 짓게 한다. 40여년 수행자로 살아온 당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상묵 스님이 수행하며 완성시킨 작품은 적어도 성공작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님의 말은 맞는듯하면서도 아닌듯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10여년 만에 서울 전시를 여는 스님은 4월 23일~29일 인사동에서 '산사에 눈이 내리면'(갤러리 이즈)과 '천년의 소리 목어'(경인미술관) 두 개의 전시를 열며 대중들을 찾아간다. '산사에 눈이 내리면'이 미술학도로 출가해 50여년 그림을 그려온 작가의 시선으로 완성해낸 회화 작품이라면 '천년의 소리 목어'는 매일 매일 수행하듯 나무를 깎으며 생명의 소리를 찾는 구도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점으로 부피감을 살린듯한 '산사에 눈이 내리면' '산사의 기도' '나를 찾아' 등 30여 작품을 선보여 산사의 겨울 정취와 오롯이 수행을 향해 걸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12년전 갤러리가 불이 나 작품 2000점을 다 태운 적이 있어요. 건물이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작품이 다 사라져버리니 허탈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캔버스에 계속 점을 찍으며 그 마음을 달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림이 되더라고요. 출가 전부터 치면 한 50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 일상이자 놀이죠. 이번 전시에서는 산사의 풍경과 바랑을 짊어진 스님들의 모습을 표현해 봤습니다."

스님에게 이번 서울 전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스님이 거주하는 지통사에서 볼 수 있던 목어를 처음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선보인다는 것이다. 26년째 목어를 깎고 있는 스님의 작품은 전국 사찰 곳곳에 걸릴 만큼 알려져 있다. 스님은 매일 매일 목어를 깎으며 번뇌 망상을 버리고 삼매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한다.

"통도사에서 참선을 하는데 목어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목어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뜻이 깊잖아요. 해제를 하고 혼자 목어를 만들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전국 사찰을 돌며 모양도 연구하고 제작 방법도 구하면서 목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스님에게 있어 그림은 일기이고 생활이자 습관이라면 목어는 노동이자 하나의 도전이며 구도의 길과 그 맥을 같이한다.

"목어 만드는 나무는 3년전부터 준비를 해야해요. 겨울 소나무를 골라 제재소에서 다듬어 잘 말리고 건조해 3년을 묵혀 놓아야만 쓸 수 있죠. 처음에는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목어의 배를 파면 팔수록 소리가 좋아져요. 이렇게 목어를 완성해나가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어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죠. 새벽에 일어나 망치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스님에게 있어 목어를 만드는 과정은 즐거운 창작이자 도전이다. 최소 50cm에서 최대 3m까지 다양한 크기의 목어를 수십년 만들다 보면 이제는 나무만 봐도 어떤 모양으로 목어를 깎아야 될지가 이제는 가늠이 된다는 스님.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꼬부라지면 꼬부라진 대로 그 나무에 맞는 모양이 스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다. 최소 보름에서 최대 5개월까지 나무를 깎고 깎아 나가면 어느새 수행자의 정진을 일깨우는 목어가 완성된다고 한다.

경남 하동 지통사서 작업한 다양한 목어 작품 전시

산사 풍경 점으로 표현한 회화 작품도 30여 점도

40여년 전 사바세계 이외의 또다른 세계를 찾기 위해 출가했다는 스님. 연화세계를 뜻하는 노사나불의 노사나를 따와 법호로 하는 스님은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연화의 세계를 향해가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010)3573-37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점을 찍어서 완성한 산사의 풍경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사에 눈이 내리면' '고향의 아침' '나를 찾아' 순.

동대 미술학과 동문 나눔 '훈훈'

후배 장학금 마련 위한 전시… 4월 18일~20일 스페이스선+에서



'84 · 14 동행' 전에 참여하는 박경귀의 '보리수 숲'

입학 30주년을 맞아 동국대 미술학과 84학번동기들이 인드라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4 · 14 동행' 전을 4월 18일~20일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연다.

스페이스선+는 "미술학과 84학번 동기들이 입학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전시로 수익금은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교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에서는 △박경귀 '보리수 숲' △이상기 '마음풍경' △최은정 'HOPE-2013' △박찬용 '애완견' △정수일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 △남종진 '승호관음' △강명주 '참사람 동행' 등의 작품 45점을 만날 수 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앵글 속에 담긴 '탑의 염원'

사진동우회 심상 25번째 회원전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心像)이 25번째 회원전을 연다.

'탑, 염원을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차 4월 25일~30일 부천시청 아트센터 △2차 5월 4일~6일 석왕사 갤러리 △3차 5월 9일~15일 청계천 광교갤러리 등에서 열린다.

심상은 "아름다운 산사와 기나긴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오랜 역사가 깃든 여러 사지를 찾고 또 찾아 그 곳에서 만나는 탑을 주제로 했다. 섬세함으로 때론 웅장함으로 친숙함으로 서 있는 아름다운 조형물을 보며 오랜전 세월 그들의 염원도 우리의 염원도 나의 염원도 함께 교감하며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란다"며 전시를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문화재의 우수성과 예술성, 아름다움을 가지고 매년 다른 주제를 선보이는 불교문화 사진동우회 심상은 2012년 '앙코르 유적에 서다' 2013년 '암자에 길을 묻다2' 등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왔다. (010)2291-2125

정혜숙 기자



고외숙의 '왕궁리 5층 석탑'

국박, 아시아미술 신소장품전

2014년 첫번째 기획 테마 상설전시관서 6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4년도의 첫 번째 기획 테마전시로 아시아 미술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아시아 미술 신소장품전'을 6월 22일까지 연다.

중국, 일본, 인도 · 동남아시아 미술품 6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아시아 미술의 다양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의 새 박물관 이전개관에 따른 아시아부의 신설과 아시아관 전시의 내실화를 위해 꾸준하게 구입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입과 수증을 통해 아시아 관련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왔으며, 아시아관 상설전시와 다양한 특별전 등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했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시품은 2002년부터 구입하여 보존처리와 조사연구 등을 통해 새롭게 의미 부여를 마친 미공개 66점의 문화재로 구성되었다. 전시품은 크게 중국의 고고 · 공예품과 일본의 공예품과 회화, 인도 ·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과 회화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 소개한다. (02)2077-9000

정혜숙 기자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접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목각단청운각 법당장엄 5층 목탑
(간편조립)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문화人

“국악에서 오래된 미래 찾아요”

국악인 박애리 씨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박애리 씨는 다양한 무대로 국악을 알려나가고 있다.

창극 배비장전 애랑역으로
5월 3일~10일 공연
더불어 사는 나눔 실천
후배양성 공간 마련 발원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눈물 고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여자의 아리랑은 슬프고도 구성졌고 묵직하고도 맑아 큰 울림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그 노랫가락에 맞춰 천천히 몸짓을 하는 남자의 춤. 노래가 절정에 닿으면 몸짓은 격렬해지고 무대는 뜨거워진다. 한의 정점 아리랑이 힙합과 만나 펼치는 무대는 가슴 저 밑바닥을 흔들며 새로운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낸다.

남편 팝핀현준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국악인 박애리 씨(37). 전통 속에 오래된 미래 그 새로운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많은 예술인들이 전통 속에서 현대를 찾고 있어요. 전통 국악의 소리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오래된 미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했죠. 현준 씨와 저는 각자의 분야를 서로 존중해주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을 대중들이 공감해주시는 거 같아요.”

국악인 박애리 씨는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KBS 불후의 명곡에서 남편 팝핀현준과 함께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 씨. 그녀는 5월 3일~10일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창극 배비장전의 애랑역으로 대중들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5월 25일 팝핀현준과 펼치는 웨딩콘서트 ‘그와 그녀의 이야기’ 공연도 앞두고 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인 박 씨는 안애란, 성우향, 안숙선, 김경숙 씨 등을 사사하고 17살이던 1994년 전주 대사습놀이 학생부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했으며, 1996년 동아 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금상을 받을 만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난을 겪으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박 씨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더니…’ 라는 불교식 철학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게 된 그녀는 ‘바리공주’ 주인공 역을 따내는 행운도 얻게 된다. “그저 음률에 맞춰 꼭두각시처럼 따라서 노래를 부른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결국 소리꾼은 느끼고 경험한 바가 목소리에 또 음악에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공연에 임했을 때 그 노래의 진정한 의도를 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소리꾼의 시련은 때론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자인 그녀는 교계와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연등회의 노래 9집에 참여 ‘초파일 아리랑’ ‘하늘 꽃 내리고’ 등의 노래를 불렀고 연등축제 회향 한마당에서 공연을 펼친다. 또한 곧 있을 4월 16일 ‘박범훈의 뭇소리 찬불가’ 공연에서도 ‘무상게’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등을 부른다. 특히 이승의 짐을 두고 훌훌 가라는 내용을 담은 무상게는 박 씨와 인연이 깊은 곡이라고.

“199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을 해 처음 불렀던 국악가요가 무상게죠. 이후 백양사 통도사 직지사 등의 큰스님들이 입적하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무덤가에서도 무상게를 불러드렸어요. 그만큼 무상게는 저에게 의미가 큰 곡입니다.” 박 씨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합창단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이 무대를 통해 찬불가가 좀더 대중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팝핀현준과 함께 5월 15일 한센인들을 위한 소록도 공연도 계획 중이라는 박애리 씨. 그만큼 세상과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둘은 앞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회향하겠다고 다짐한다.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인 드림팩토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 부부의 꿈입니다. 남편 현준 씨는 항상 말해요. 혼자 잘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후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해요.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박 씨는 ‘배비장전’ ‘그와 그녀의 이야기’ 등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국악과 힙합의 만남으로 화제의 무대를 펼치고 있는 박애리-팝핀현준.

법 설하는 풍경 소리 동풍과 얘기하고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⑯ 금산사 ㊥





법을 설하는 풍경소리가 들리는 듯한 금산사 방등계단.

신령한 풍경 속에서 찾는 ‘묘한 경지’

금산사를 읊은 고려 선비의 시로는 이곡(利穀 1298~1351)의 작품이 전한다. 이곡은 고려 말의 문신으로 원나라에서 벼슬을 오래 했다. 관료로서의 인격도 곧아 한 시대의 존경을 받았고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다. 그가 지은 〈죽부인전〉은 대나무를 의인화 한 것으로 가전체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다. 그의 문집 〈가정집〉 제20권에 ‘금산사(金山寺)의 벽 위에 있는 시에 차운하다’ 라는 시가 실려 있다.

춘도청구일욕중(春到靑丘日欲中)
승유요급미농공(勝遊要及未農功)
위심해상봉래경(爲尋海上蓬萊境)
인방인간도사궁(因訪人間覩史宮)
위구첨아마북두(危構 牙磨北斗)
법음탁설어동풍(法音鐸舌語東風)
갱사장구궁유절(更思杖 窮幽絕)
만학연하로역궁(滿壑煙霞路易窮)

봄이 청구에 이르러 밤낮이 같아지려는 때
멋진 유람은
농한기를 가려서 해야 하고말고.
바다 위 봉래의 경지를 찾는 기회에
세상 속 도사의 궁전도 들르게 됐다오.
높이 치솟은 처마 지붕은
북두와 맷돌질하고
법을 설하는 풍경 소리는
동풍과 얘기 나누네.
절경을 끝까지 더듬고 싶은 생각도
든다마는
연하가 골에 가득해서 길이 자꾸만 막히네.

이곡이 금산사를 찾은 때는 하지를 앞둔 여름철이었던가 보다. 그가 절을 찾은 목적은 ‘바다 위 봉래’를 보기 위함이다. ‘봉래’는 동해 바다에 있다고 전하는 삼신산의 하나다. 〈사기〉 〈열자〉등에 삼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발해의 동쪽 수억만 리 떨어진 곳에 신령한 산이 있는데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이다. 그 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으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무 열매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진시황도 이 산의 불로초를 구하고자 했다.

이곡은 신선들이 사는 산의 그윽한 정취와 신령한 기운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에 유람을 나섰고 그런 기회에 금산사를 들리게 된 모양이다. ‘도사의 궁전[覩史宮]’은 금산사 미륵전을 말하는 것이다. 도사는 범어 ‘도사다(覩史多)’의 준말인데 도솔천이라는 의미이며 이 시에서는 금산사 미륵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치솟은 처마 지붕’과 ‘법을 설하는 풍경소리’는 미륵전의 웅장한 자태를 묘사하는 대어(對語)다. 여기 경련(頸聯) 부분에서 미륵전과 우주의 교감이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까지의 시상(詩想)을 정리하면, 한가한 철에 신선이 사는 곳이라도 찾아 볼 생각으로 유람을 나 선 선비가 금산사에 도착하여 도솔천 같은 미륵전 앞에서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는 정황이 그려진다.

그런 선비의 한가한 마음은 더 깊은 골짜기로 발길을 놓아 보고 싶은데 ‘연하’가 자욱하여 길이 막히니 안타깝다. 골짜기를 가득채운 연하는 무엇일까? 아마 이곡은 불교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여 좋은 도량에서 자신을 반조하며 중생심의 무상을 느꼈을 것이다. 세간의 선비로서 오랜 도량의 풍경을 더듬으며 출세간의 묘한 경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는 않았던 모양이다.

김시습이 본 무상의 그림자

우리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세상살이의 시름을 잊고 평온한 마음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산사의 풍경 속에 잠겨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여 번뇌 망상이 떠나질 않는다. 고려의 이곡이 그런 심정이었듯이 조선의 하늘아래 누구보다 비통한 생애를 살았던 김시습(金時習 1435~1493)도 금산사에서 ‘한가롭지 않은’ 마음을 토로했다. 〈매월당시집〉 제10권에 실린 ‘금산사에 묵으며(宿金山寺)’라는 시를 보자.

운기미망동부관(雲氣微茫洞府寬)
영림락석향명단(玲琳絡石響鳴湍)
중천성두명김찰(中天星斗明金刹)
반야풍뢰요석단(半夜風雷繞石壇)
태식고당미유자(苔蝕古幢微有字)
풍최고수만생한(風 枯樹晩生寒)
소연일숙초제경(然一宿招提境)
연리소종운미란(煙裏疏鐘韻未)

구름 기운 아물아물 골 안은 널찍한데
엉킨 수풀이 깔린 돌에는
여울소리 들려오네.
중천의 별들은 금찰을 밝히는데
밤중에바람과 우레 석단을감싸 도는구나.
낡은 대와 당간에는
이끼 끼어 글자가 희미한데
마른나무에 바람 스치니 저녁 추위가
생기는구나.
객실에서 하룻밤 자고 가니
연기 속 먼 종소리에 여운이 한가롭지만
않구나.

매월당 김시습은 조카를 내몰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은 세조에 대한 울분으로 비승비속의 삶을 살다간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한 때 승려가 되기도 했던 그는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금산사를 찾아 하룻밤 묵은 김시습은 불교가 가르치는 무상(無常)의 이치를 매우 실감한다. 시의 도입부에 절 풍광을 묘사하는 마음부터 그렇다. ‘엉킨 수풀’과 ‘밤중의 바람과 우레’ 등이 편치 않은 심경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금찰은 금산사를 석단은 금산사 방등계단을 말하는 것인데, 김시습은 오래된 절의 낡은 모습을 이끼가 끼어 글자가 묻힌 계단과 당간지주 등으로 보여준다. 무상의 단면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다.

울분 가득한 김시습은 절의 객실[招提]에서 하룻밤 묵었다고 평온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종소리도 멀리 들리고 마음도 한가롭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의 그림자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 ~ 4/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화내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스노 순묘	담앤북스
6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기억에 남는 명법문)	편집부	불광출판사
7	인생아 웃어라	원영	갤리온
8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세주묘엄품 1)	무비	담앤북스
9	땡큐 붓다(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장종천	운주사
10	마음 닦는 비결(해안 스님 선어록 강설)	동명	나라연



〈화엄경〉은 얽힌 세상사 푸는 열쇠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세주묘엄품 1~5권

여천 무비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각권 1만2천원





'최고의 경전' 이자 '어려운 경전'
〈화엄경〉의 국내 첫 강설본 출간
'세주묘엄품' 5권 1차 출간
80권 완간 10년 대장정 원력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엄경〉 강설본이 출간됐다. 무비 스님(사진 ·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장)의 〈대방광불화엄경〉으로, 우선 1차분으로 세주묘엄품 1~5권이 출간됐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의 약칭으로, 오래전부터 강설본의 출간이 요구됐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과 쉽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출간이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당나라 시대 이후 청량 징관, 이통현 장자 등에 의해 3~4차례만 시도되었던 대역사이고, 근대 이후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한 번도 시도되지 못했을 만큼 어려운 불사였다. 저자 무비 스님이 2013년부터 80권 완간을 목표로 준비한 〈화엄경〉 강설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8~10권씩 모두 10년에 걸쳐 완간될 예정이다.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 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21일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남김없이 설파하셨으니 그것이 〈화엄경〉이며 곧 불교의 시작이다.

7처 9회 39품의 〈화엄경〉은 그렇게 불교의 수많은 경전 가운데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경전이다. 〈화엄경〉은 다른 경전들과 달리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일체의 방편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가르침이다.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경전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불교 '최고' 의 경전이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인 것이다.

하지만 화엄경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4세기경부터 산스크리트에서 한역(漢譯)된 이래 〈화엄경〉은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6세기경에는 중국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종문(화엄종–현수종)이 성립해 중국불교사 전반을 주도했으며, 이후 중국에 뿌리 내린 선불교나 심지어 신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국 사상계에 화엄경이 미친 영향 역시 지대하다. 원효와 의상은 한국에 화엄철학의 기초를 다지고 화엄종의 문을 연 한국 사상계의 대표적인 두 거목이다. 이후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승과(僧科)에서도 〈화엄경〉은 빠져본 적이 없다. 특히 '종교' 로서의 불교가 큰 위기에 처했던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승려는 물론 유학자들도 〈화엄경〉 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는 초의 선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화엄경〉을 읽고 있는데 (〈화엄경〉의) 교차되어 나타나는 묘리가 (그렇게 된) 연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초의 선사에게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의중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엄경〉은 그 유명세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이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너무 방대하고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화엄경은 모두 4종이다. 각각 40권본, 60권본, 80권본이 있고 티베트어로 된 화엄경이 있다.(산스크리트로 된 것은 '십지품' 과 '입법계품' 등 일부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되었다.) 이중 40권본은 〈화엄경〉에서 〈입법계품〉만 따로 떼어 놓은 것이니 차치하고 60권본, 80권본, 그리고 티베트본이 있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산스크리트에서 한역된 〈화엄경〉은 근대 이후 모두 세 차례 한글화 됐다. 탄허, 월운, 무비 스님이 역경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한글로 되어 있다고 누구나 〈화엄경〉을 볼 수는 없었다. 난해한 번역도 문제였지만 쉬운 한글이라도 한자 하나하나에 담겼던 뜻을 더 깊이 풀어내주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한역 〈화엄경〉만큼 한글 〈화엄경〉 역시 접근이 어려웠다.

세주묘엄(世主妙嚴)이란 눈앞에 펼쳐진 두두물물이 모두가 하나같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한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 품에서는 법회에 모인 청중은 보살 대중이 20명, 그 외의 대중이 390명으로 모두 410명이다. 이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자비와 원력과 신통과 교화 등등을 찬탄하는 노래를 끝없이 부른다.

무비 스님은 서문에서 이 대목에 대해 "선게(禪偈)에 '구류동거일법계 자라장리살진주(九類同居一法界紫羅帳裏撒珍珠)' 라는 말이 있다.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 놓은 듯하다는 뜻이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서문에서 적고 있다. 이처럼 '세주묘엄품' 에서는 모든 존재의 다른 이름인 수많은 불보살 신중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부처님을 찬탄한다.

무비 스님은 불교를 인불사상으로 정리한다. 이 인불사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화엄경〉에 잘 드러나 있으며, 이 인불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들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곧 인불사상을 담고 있는 〈화엄경〉은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동산' 을 통해본 한국불교 정화운동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 지음 | 운주사 펴냄



우리의 역사에서 일본 강점기 36년은 사회 각 분야에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불교계에는 그로 인해 '불교정화운동(이하 불교계 정화운동 또는 정화운동)' 이라는 사건을 낳게 됐다. 책은 진관 스님의 2012년 중앙승가대학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으로, 정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동산 스님의 연구를 통해 한국 불교정화운동을 연구한 것이다.

조선불교계는 일제 강점기를 맞으며 대처승이라는 일본불교 승단의 제도를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대처승 제도화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불교계는 심각한 정체성 갈등을 겪게 된다. 1945년 그리고 1954년 5월 20일 이승만의 정화 유시 발표 이후 일본불교에 대한 비판 없이 그 교단에 협력했던 대처승과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 선학원 측 비구 사이의 갈등이 불교계 정화라는 종교적,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정화운동' 을 통해 1962년 4월에 비구 · 비구니만을 인정하는 통합종단으로서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재탄생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책은 "불교정화운동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여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정화운동은 그 진행 과정에 있어 불교계의 내적 갈등을 평화적, 자주적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에 의지하여 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화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역사적 의의, 위상에 대해 아직 올바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책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정화운동에 대해 철학적, 사회적 관점을 토대로 학문적인 접근과 비판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교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고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정화운동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당시 정화운동의 핵심적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동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정화운동에서의 그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화운동이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왜곡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이고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책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화운동을 불교문화사적인 충돌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화운동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도 객관성 있게 접근했다고 보인다. 아울러 한국불교의 정통을 계승하고 정화운동을 주도하여 오늘날 한국불교의 기반을 구축한 동산 스님의 생애와 정화운동 역정을 심도 있게 추적함으로써 불교정화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동산의 업적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고된 삶이지만 생각 마음 달리하면 행복할 수 있어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

지선 스님 외 17인 지음 | 〈법보신문〉 월간 〈불광〉 공동기획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천원



"앞으로는 지금보다 세상이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나 탐진치로 가득 차 있는 중생은 아무리 발전해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지식과 정보로 알게 되는 것은 업식과 관습을 끊지 못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책 〈내게 와 부딪히는 바람도 사랑하라〉는 매년 최고의 법문을 가려 묶었던 '기억에 남는 명법문'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책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열여덟 편의 명법문이 담겨있는 책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물음은 물론 사랑, 행복, 분노, 어리석음 등 일상을 살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 시대의 선지식 열여덟 분의 법문으로 바라본다.

'인류의 마지막 할 일은 수행' 임을 말하는 지선 스님은 사람들의 지식이 옛날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왜 사는 것은 더 불행한지에 주목하여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낫다고 말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수행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의 몫이다. 정진하고 또 정진해 마음속 시끄러운 소음을 가라앉힐 일이다.

지오 스님 또한 마음 속 어둠을 녹이는 대 수행만한 것이 없으니 진언을 외든 참선을 하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꾸준함만이 욕심과 분노, 사사로운 감정이 가득했던 자리에 온전히 밝은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역설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격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불안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은 큰 재앙 없이 그저 평안하고 무탈한 일상을 꿈꾸기 마련이다. 미산 스님은 만족하는 삶에 이르는 묘책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에 머무를 것을 권한다. 자기 욕심과 방만 속에 인색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여기' 에 머무르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 된다.

삶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개인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한 도업 스님 역시 행복한 삶을 꾸리는 길에는 지식이나 학문, 명예, 부가 필요치 않다고 전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집착이나 생색내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무위심이야말로 개개인의 심안을 활짝 여는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2,600여 년 전부터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탐구해 왔다. 내 마음의 주인을 찾는데 불교의 지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찾는 방법을, 한자리에 모시기 힘든 스님들의 경험담과 그들이 들려주는 경전을 통한 가르침, 선문답으로 유명한 선사들의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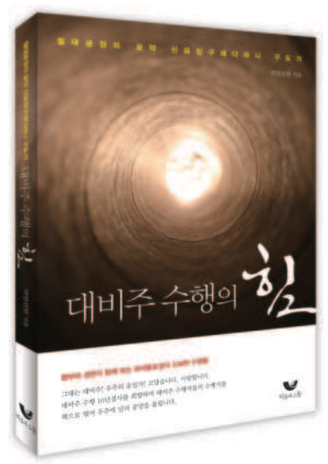


향적 스님 해설 | 13,000원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값진 체험과 깊은 사색으로 걸러 낸 언어, 그리고 깨달음의 정서로 풀어놓은 선적 통찰력들이 비우고 내려놓아야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향적 스님은, 이 선시의 해설을 통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읽는 안목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기 응시의 시간을 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응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과 내통하고 부처와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정휴正休 스님

조계종 출판사 인연 아름다운 (주) 조계종출판사 문의 _ 02)720-6107~9 www.jogyebook.com
구입문의 _ 불교전문서점 02)2031-2070~3 www.jbbook.co.kr 도서보급 _ 조계종출판사 서적총판사업부 02)998-5847



대비주 수지독송하는 우리 몸은 '광명의 깃발'
대비주 수지독송하는 우리 마음은 '신통의 창고'

대비주수행 10년결사 회향한 수행자들의 체험기!
생각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행대로 된다.
원(願)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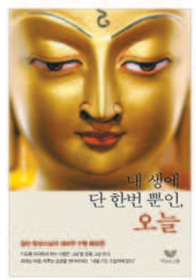
절대긍정의 묘약 신묘장구대다라니 구도기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지음 | 신국판 | 부분칼라 | 312쪽 | 12,800원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일기 • 법문 담은 '마음의 힘' 사용설명서



수지심시신통장 受持心是神通藏
다라니의 힘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부분컬러 | 448쪽 | 15,000원

대비주를 수행하면 참된 행복과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일산 법상스님의 대비주 수행 에화편
내 생에 단 한번 뿐인, 오늘
일산법상 지음
46판 | 올칼라 | 200쪽 | 10,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스승님, 그분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있다"



흠모
유철주 지음
민족사 펴냄
1만5천원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승만큼 중요한 존재는 없다. 특히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스승 없는 불자는 없다. 도(道)를 구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스승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스승의 법(法)이 제자에게 이어지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통은 불교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골격이다.

부처님의 법은 수많은 나라의 제자들에게 전해져 오늘날에 이른다.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현대 불교의 버팀목이던 선지식들의 삶과 수행을 그 제자들을 통해 다시 조명해 보는 것도 향훈을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일 수 있다.

그런점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기획팀장겸 선(禪) 전문잡지 〈고경〉의 유철주 편집장이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스승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물론 이 책에는 출가은사가 아니어도 당신들의 수행을 이끈 선지식 멘토들과의 인연도 함께 소개돼 있다. 저자는 인터뷰에 응해 준 스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 스승에 그 제자'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하나같이 스승의 가르침이 지금까지의 당신들 삶의 원동력이 됐고, 때론 부족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스승인 탄허 스님의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스님들이 출가를 한 것은 세상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기위해서는 철저히 수행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의 인재가 되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라고.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이 소개한 스승 대은 스님의 제자 사랑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숙연해진다. 동주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송암 스님을 찾아가 '스님이 알고 있는 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원명이에게 가르쳐 달라' 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은사 스님 나이가 70이 넘었고, 송암 스님은 이제 막 50줄에 접어들었는데, 제자의 공부를 위해 후배스님에게 절을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제자의 공부를 위해 까마득한 후배에게 절을 하는 은사의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오늘이 있게 됐다고 동주 스님은 지금도 감사해 한다.

4년전 입적하신 법정 스님의 상좌인 덕현 스님의 스승 사랑은 남다르다. 스님은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분 중에 은사스님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이고 멋진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이 제 스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당신의 기대라든지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

2년 전 열반하신 대행 스님에 대한 깊은 존경을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스승은 한 사람 삶 바꾸는 위대한 존재
탄허 스님 등 21선지식 가르침 담아
제자들에게 철저한 수행 강조해

이렇게 밝힌다. "주인공 관법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지켜보고 그 마음을 돌려씀으로써 생활이 곧 불법(佛法)이며 그 주체가 바로 우주의 중심인 나 자신임을 참답게 알게 하는 것이 대행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마음공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책에는 스님들만 소개된 것은 아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안경애 선원장은 백봉 김기추 거사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긴다. "선생님께서는 재가자도 생활 속에서 수행하면 견성할 수 있다고 하셨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시하신 것이 거사풍과 새말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마거사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계종 종정을 지낸 혜암 스님은 "공부하다 죽으라"고 했고, 동국대 이사장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지낸 벽안 스님은 "금생은 안 태어난 셈치고 정진하라"고 했다. 내소사 조실이었던 해안 스님은 "7일이면 깨칠 수 있다"면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철저해야 함을 역설했고,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 스님은 "중은 논두렁을 베고 죽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찰나찰나 용맹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선지식들의 이런 서슬 퍼런 훈계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자비심의 발로요, 그 덕분에 제자들은 올곧은 수행자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스물한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스승의 이야기는 책 제목 그대로 깊은 '흠모' 와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스승은 한 사람의 삶의 이정표를 송두리째 바꾸는 분들이다.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스스로 삶의 주인공임을 믿고 열심히 수행해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었다"며 " 이 책을 통해 현대불교의 버팀목이 됐던 선지식들의 삶과 수행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천년 보배인 마음공부로 입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책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이 지능과 감성, 행복지수 높여 …행복담당 뇌피질 가소성 자극

생각정원

장현갑 지음 | 나무의 마음 펴냄 | 1만 4800원



이 책은 50년 넘게 마음과 뇌의 관계를 연구해온 저자가 신경심리학적 관점서 마음과 뇌의 연관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국내 뇌심리학의 선구자인 저자는 학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랜 시간 직접 명상 하며 위급할 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그 지혜와 경험을 이 책을 통해 많은 제시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 구조는 수시로 변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음속에 불안과 증오의 늑대를 키우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미움과 불신, 화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라게 되고, 연민과 자비, 사랑과 같은 긍정의 마음을 키우면 우리 뇌의 좌측 전두엽이 더 활발해지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연구 성과는 그러나 비교적 최근 연구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뇌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으며, 마음도 뇌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정의돼 왔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의 연구 결과는 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후천적으로 마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 뇌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책에서는 긍정적인 심리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뇌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며, 그와 더불어 행복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양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그동안 늘 불안해하고 쉽게 화내며 긴장감 속에 힘들게 살아왔다면 생각 정원에 긍정의 꽃씨를 뿌리는 습관을 붙여보면 누구나 꽃향기 가득한 생각 정원을 갖게 될 것이라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그동안 짐작은 했으나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에 대해 신경심리학과 뇌과학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2006년에 '하버드 의대 보고서' 가 발표한 "명상이 지능과 감성,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마음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속의 세라 라자르 박사가 주도한 이 연구의 큰 틀은 명상 집단과 통제 집단의 뇌 영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는 백인 35명이 참여했는데, 명상 집단 20명 중 4명만이 건강관리 목적으로 요가명상을 경험해본 적이 있고, 나머지 16명은 명상 경험이 전혀 없었다. 직업은 법률, 미디어,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이들은 하루 40분씩, 짧게는 수십 일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명상 훈련에 참여했다. 주로 마음챙김 명상을 했다. 이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림 하는 심리 훈련이다. 라자르 박사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명상 훈련 전에는 두 집단의 뇌 구조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명상 훈련을 마친 후 뇌 두께에서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명상 경험에 따른 결과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명상과 같은 심리 훈련을 통해 인지, 정서 그리고 행복을 담당하는 뇌피질의 가소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뇌'를 통해 낡고 오래된 생각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뇌 지도' 를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유력하게 내세우는 방법은 심리 훈련(명상)이며, 특히 불교에 주목한다.

행복한 뇌 그리는 마음 연습 제시
감정에 따라 뇌구조 수시로 변해
21일은 뇌가 새 습관 익히는 시간

저자에 따르면 명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 평소 우리 머릿속에는 잡다한 생각이 수도 없이 떠돌아다닌다. 명상은 그런 시시콜콜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준다. 혹시 끌려갔다가도 금방 제자리를 찾게 도와준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각, 감정, 생각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밀어내도록 돕는다. 그렇게 마음을 단련하면 의식이 명료해지고,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불안과 긴장, 우울감과 분노 같은 부정적 생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마음이란 스크린에 비친 영화처럼 우리 뇌가 떠올리는 영상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으로 영화를 찍는다. 상상력을 동원해 다큐멘터리도 찍고 판타지도 찍는데, 저자는 그 이유가 우리 뇌에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마 쪽 전전두엽에서 가상현실을 담은 짧은 영화가 계속 상영되는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 저자는 긍정을 연습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21일의 법칙' 을 제안한다. 이 법칙은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 21일 걸린다는 주장이다. **김주일 기자**

대비주 수행 통해 거듭난 불자들 구도기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2800원



한국 불자들이 조석으로 외우는 〈천수경〉중 불자들이 가장 널리 외우는 핵심 진언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이 대비주는 무량억겁전 천광왕정주여래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한 초지(初地)의 관세음보살님과 일체 중생을 위해 설하신 진언이다. 관세음보살님은 보살의 모습으로 나투고 계시지만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으로, 명호는 '정법명여래' 이시다.

일산 덕양선원은 이런 대비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신도들은 늘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선정(禪定)을 연마하고 군법당, 교도소, 불우이웃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자성불 수행' 을 하면서 지혜를 닦는 선교쌍수(禪敎雙修)의 공부를 하고 있다. 신도들 가운데는 대비주 500만 독을 성취한 원명화 보살을 비롯한 대비주 고수들이 수두룩하다. 100만 독을 성취한 수행자만 12명, 10만 독을 성취한 수행자는 무려 7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만 독 이상을 성취한 신도 40명이 대표로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를 기념해 쓴 수행기가 바로 이 책 〈대비주 수행의 힘〉이다.

이 책에서는 온갖 번뇌와 역경 속에서도 대비주의 원력과 가피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는 불자들의 간절한 구도기가 감동 깊게 묘사되어 있다. 오늘날 깊은 믿음과 실천수행이 부족한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덕양선원 수행자들의 눈물겨운 구도기는 재가는 물론 출가 수행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직접 목탁을 치며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를 지도해 온 덕양선원장 일산 법상스님은 "대비주 수행을 하면 방하착 공부가 저절로 되고, 깊이 집중하여 삼매에 들어가면 안팎이 공한 가운데 신묘한 본래자리가 바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절집 근처 산들의 역사와 전설 소개

이야기가 있는 산행

황찬익 지음 | 역사인 펴냄 | 2만3천원



산에 다니기 좋은 계절이다. 봄꽃이 만개하고 듬직한 나무와 무성한 풀잎이 있고, 초록의 새순이 있다. 또한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벼랑, 고운 흙길도 만날 수 있다. 오롯이 산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산만의 아름다운 정취가 있는 것이다.

운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산만이 내줄 수 있는 이런 기쁨과 설렘을 찾아 오늘도 사람들은 산에 오른다. 산에는 그러나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봉우리마다 전설이 서려 있고, 바위마다 설화가 새겨져 있다. 절집마다 역사가 있고, 돌멩이 하나에도 사연이 있다. 말하자면 산에는 그만큼이나 오래된 나이테가 있고 역사의 족적이 있다. 산은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지만 이런 흔적들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 속살을 쉽게 내보이지도 않으니 산마다 새겨진 시간의 눈금을 읽는 일은 별도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처럼 쉽지만은 않은 산마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바로 〈이야기가 있는 산행〉이다.

이 책은 바람직한 산행문화를 생각해보자는 의도도 담고 있다. 산과 산 주변에 깃든 역사와 인물, 옛 이야기들을 꺼내서 산행을 할 때, 그것들과 교감하면서 걷고, 마치고 돌아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산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책이다.

산행뿐 아니라 요즘 열풍처럼 번지는 둘레길, 올레길 등 지방마다 붐처럼 만들어지는 걷기 열풍도 마찬가지다. 지명과 설화 등 길가에 놓여 있는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터벅터벅 걷는 다면 그것은 단순한 다리 운동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트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수행에 다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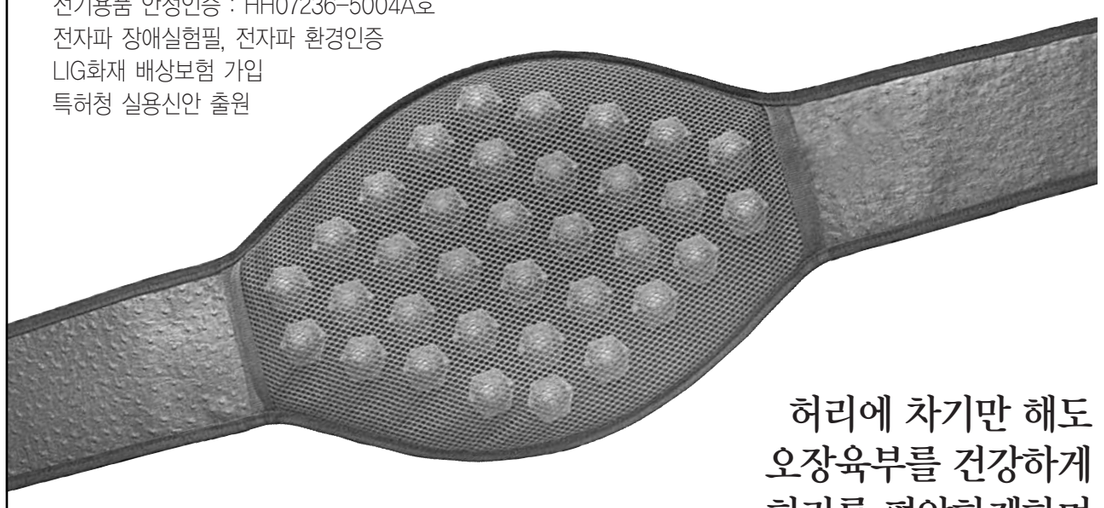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정당한 폭력은 존재한다”… 불교적으로 용인 안돼

불교로 읽는 古典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



김호성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우리 교계의 신문이나 잡지에 많은 글을 써왔다. 100% 불교 안에서 불교를 말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교에 대한 글이 아닌 글을 청탁받았다. 이제 우리 불교도 드디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인문고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사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힌두교’에 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다룬 책은 〈바가바드기타(BHagavadgītā, ‘신의 노래’)〉라는 힌두교 경전이다. 줄여서 〈기타〉라고 약칭(略稱)하는 이 책은, 힌두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는 경전이다.

힌두교의 경전을 힌두교도가 아닌 불교도가 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힌두교의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스스로 갖고 있던 불교적 가치관이나 신앙을 내다버리게 될까? 어떤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백지상태가 되어서 그 경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내다 버리고, 힌두교로 그 속을 채워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러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안전하고도 안전한 길은 아예 안 읽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안전하긴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교의 원(圓) 자체는 넓어지지도 커지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내가 읽을 책이 옛날(기원 전 2세기~기원 후 2세기), 인도에서 성립된 힌두교라는 다른 종교의 경전임을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을 나 자신은 20세기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불교도임을 인식한다. 〈기타〉나 그것을 읽는 나(독자)나 공히 시간적 · 공간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 공간적 맥락을 ‘컨텍스트(context)’라 부른다. 그러니까 나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나는 〈기타〉의 컨텍스트를 짚어가면서 〈기타〉를 읽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과연 〈기타〉의 컨텍스트는 나의 컨텍스트를 만나서 어느 만큼 생존 가능할 것인가? 나(독자)는, 나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기타〉를 읽는만큼 나의 컨텍스트에서 볼 때 수용(受容)하기가 껄끄러운 것들은 괄호를 쳐버리거나, 지우개로 지우면서 〈기타〉를 읽을 수밖에 없다. 사성계급(카스트)제도와 같은 것도 그렇지만,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폭력에 대한 〈기타〉의 관점이다.

〈기타〉, 비폭력인가 폭력인가?

우리는 흔히 인도를 비폭력의 나라로, 힌두교를 비폭력의 종교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된 데에는 비폭력을 주창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인도 독립을 추구해 갔던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9)(덕분)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간디는 경건한 힌두교도였다. 뿐만 아니라, 평생 〈기타〉를 읽고 말하고 썼다. 그는 “〈기타〉는 나의 정신의 사전(spiritual dictionary)”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뇌가 있을 때는 〈기타〉를 읽었고, 그럴 때마다 〈기타〉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중적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폭력 안된다” 주장한 아르쥬나
전쟁으로 이끄는 내용… 폭력 용인

비폭력주의 간디 “내 정신의 사전”
자기모순 극복하고자 한 시도일 듯
비판적 ‘톺아보기’ 통해 이해해야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간디의 입장과 〈기타〉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이다. “같다”라고 주장하고 강변한 것이 간디 자신이지만, 필자가 볼 때(나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볼 때에도)양자는 다르다. 간디는 비폭력을 말했음에 비하여, 〈기타〉는 폭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기타〉라고 해서, 비폭력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이다. 사회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는 폭력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이 힌두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상대가 나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때 나 역시 상대를 때리지 않는다. 이것은 비폭력인가? 아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 비폭력이라 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때렸다. 나는 이유도 없이 맞았다.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보통 사람이라면, 나도 상대에 맞서서 때리고 싶어진다. 이때 내가 상대를 때리면, 나는 죄를 짓는가?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정당방위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정당방위는 비폭력인가? 아니다. 그럼 비폭력이란 무엇인가? 상대가 나를 때렸다. 그렇게 맞고서도 상대를 때리지 않는다. 그것이 비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비폭력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기타〉는 그런 의미의 비폭력을 주장하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다르마)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력에 대한 폭력이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폭력은, 행사해야 할 폭력인 것이다. 그러한 폭력은 용인된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한 성스러운 의무(다르마)를 띄고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신이다. 신의 아봐타(avatar, 化現, 化身)이다. 그러므로 〈기타〉는 “결단을 내리고서 전쟁을 위하여 떨쳐 일어나라”(2 : 37)고 설한다.

이렇게 성전(聖戰), 즉 정의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기타〉는 갖고 있다. 왕위계승을 둘러싼 사촌 형제들의 싸움에서, 과연 상대편의 전사들을 다 죽이고서라도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가?

〈기타〉의 주인공 아르쥬나(Arjuna)는 회의(懷疑)를 한다. 그리고서는 활을 내다버리고 땅에 주저앉는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소”(1 : 35)라고 말한다. 이렇게 전쟁을 못하겠다고 하는 아르쥬나를 설득하는 신(비쉬누)의 아봐타 크리쉬나(Kṛṣṇa)의 말씀이 바로 〈기타〉의 내용이다.

결국 아르쥬나는 다시 활을 손에 잡게 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힌두교의 사회윤리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크리쉬나의 논리이다.

앞에서 나는, 상대가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을 비폭력이라 말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소”라고 했던 아르쥬나의 그 당시 태도는 비폭력인 것이다. 나중에 크리쉬나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참전하게 될 때, 아르쥬나는 비폭력으로부터 폭력으로 전향(轉向)하는 셈이 된다.

회의, 비폭력, 그리고 붓다

그럼 우리의 붓다는 누구 편일까? 회의할 당시의 아르쥬나일까, 아니면 그런 아르쥬나를 설득하는 크리쉬나일까?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에 의해서는 원한은 마침내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법구경〉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붓다는 회의하는 아르쥬나의 입장이 옳다고 손들어 준 것으로 나는 본다. 즉 불교의 컨텍스트에 비추어 보는 한, 불교도로서의 나는 〈기타〉를 아르쥬나의 회의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서 읽게 된다. 이러한 독법(讀法)은 〈기타〉를 해체(解體)하여 읽는 것이고, 반(反)〈기타〉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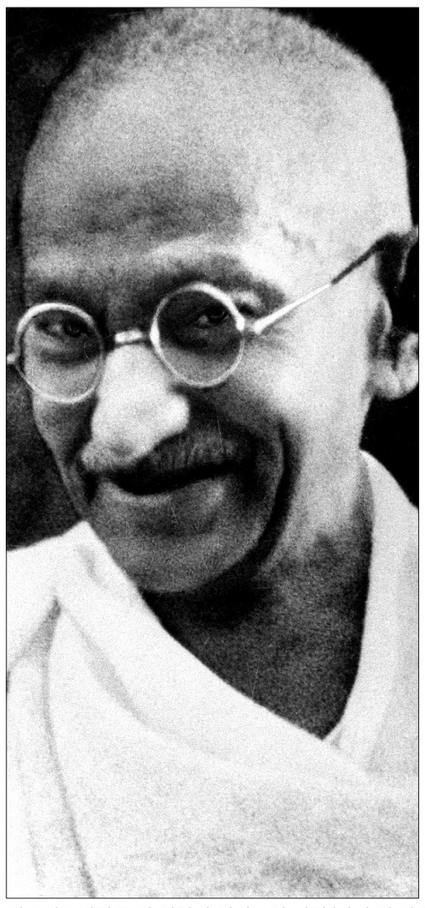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타〉에 대한 간디의 입장이다. 간디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폭력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기타〉를 ‘정신의 사전’이라 불렀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모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비폭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폭력을 용인하는 텍스트를 의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간디의 〈기타〉 해석은 바로 이러한 자기모순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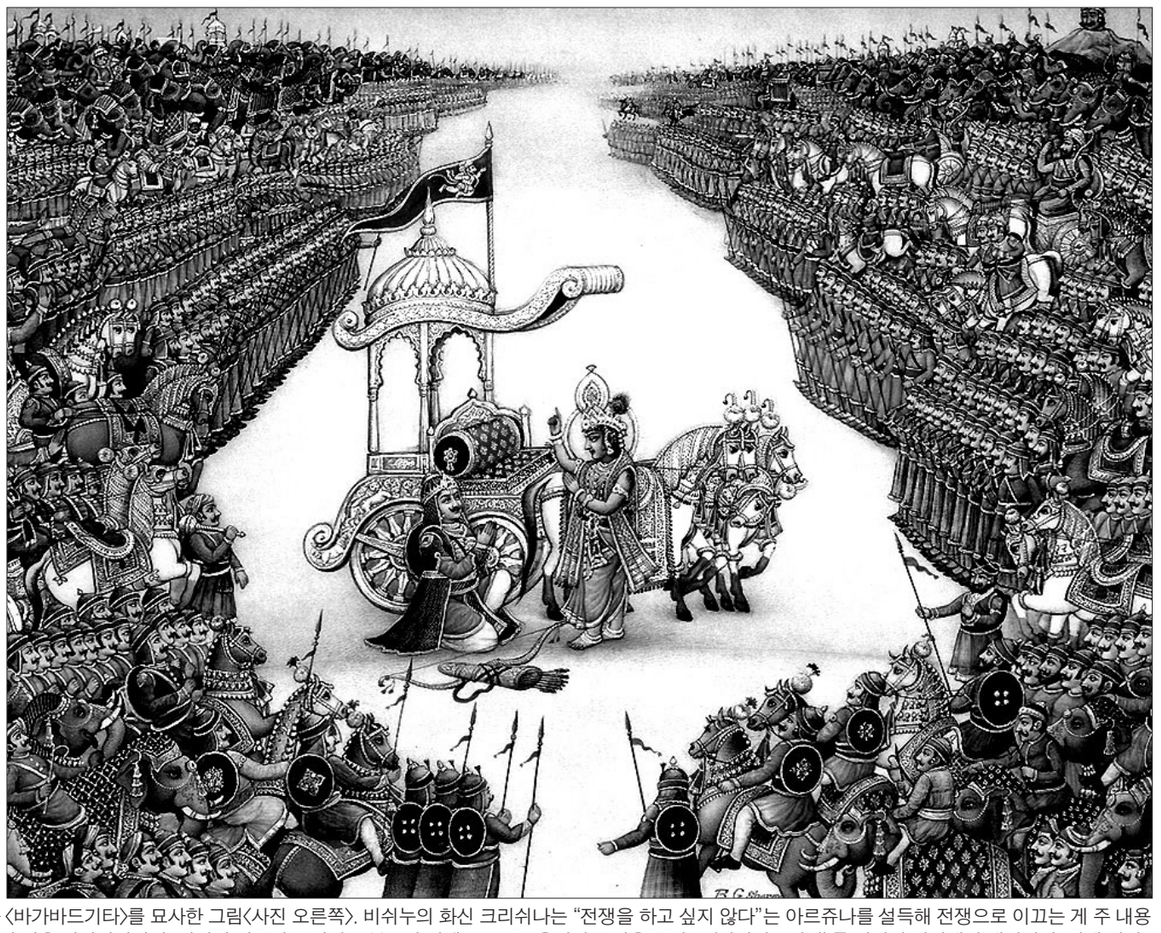
나는, 불교학자의 눈으로 〈기타〉를 바라볼 때 간디의 〈기타〉 해석은 틀렸다고 본다. 간디가 비폭력을 주장하려면 할수록, 간디는 〈기타〉를 의지하는 대신에 비판해야 옳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비폭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그럼 상대가 나를 먼저 때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나를 때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를 내가 먼저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비폭력일까? 폭력일까? 그러한 논리는 마치 방위에 정당방위가 있는 것처럼, 공격에도 ‘정당 공격’이 있다고 말하는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말도 안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로 10여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논리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그러한 미국의 ‘정당 공격론’에 동조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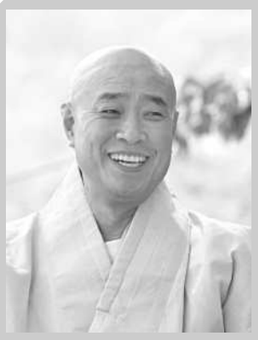
말하자면,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폭력의 용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역시 그러한 폭력용인의 논리 역시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폭력을 설하는 〈법구경〉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려고 한다면, 그런 입장을 갖는 불교도로서 〈기타〉를 읽을 때는 ‘폭력 용인’의 입장을 지우개로 지우고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뒤에도 읽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불교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 그 부분을 나는 ‘텍스트(text)’라 부른다. 그러한 텍스트로서의 〈기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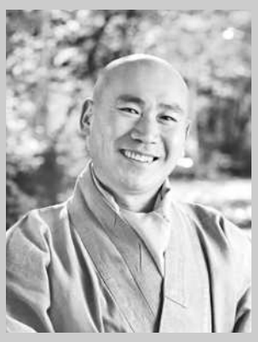


비폭력주의자로 잘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사진 왼쪽〉과 〈바가바드기타〉를 묘사한 그림〈사진 오른쪽〉. 비쉬누의 화신 크리쉬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아르쥬나를 설득해 전쟁으로 이끄는 게 주 내용인 〈바가바드기타〉를 비폭력주의자 간디가 애독한 경전인 것은 아이러니하다. 완전한 비폭력 주장하는 불교적 컨텍스트로는 용인된 폭력을 중하는 〈바가바드기타〉를 비판적 견지에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월호스님 법문 및 사인회
“삶은 환타지다”
4월 20일(일)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마가스님 힐링법회 및 사인회
“알고 보면 괜찮은”
4월 21일(월) 오전 11시

사찰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7회 불교도서전
2014년 4월 19일(토) ~ 4월 25일(금)
조계사 대웅전 옆(7일간)

◉ 불교도서 신간 및 베스트 500여종 전시 및 판매 전 도서 20% 할인판매
◉ 행사 수익금 전액은 사찰도서관에 지원됩니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관 | 불교출판문화협회
후원 | 월간 불광,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행사 기간 중 구입 및 문의
전화 | 010-2781-6727 팩스 | 02-420-3400
입금 | 농협 179300-56-119747 김시열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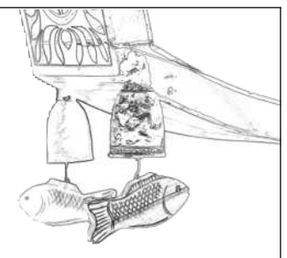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수백 편의 게송을 읊어주는 것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구절의 법문을 해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정확한 방편술 (비법)을 출판하였습니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시골 자그마한 암자에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나다

관세음보살 화신이
실제 현실에 나투시다
관세음보살 화신
전시관 창건불사
인연 접수합니다
금재선원 010-2255-7389

특별운세 상담

1인 1만원
국민은행 계좌
781601-00-006818
이상운
010-5061-0023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대구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에서 공양주를 구합니다

45~60세, 오래 같이 계실
(1년이상) 신심있는 불자분과 가
족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대구팔공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로 주로 직장인, 청소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명상수행을 합니다. 또한 기도,
명상프로그램, 해외 성지순례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급여 및 기타문의는 010-8221-4900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자성 천도 사십구재 제사 전문도량 바라, 회심곡

02)483-1566

1종 면허 소지한 처사님 구함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051)334-300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177-158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애기있어도 됨
(진주 근교)
017-587-1011

제주도 영실 존자암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스 님 010-2308-6685
주지스님 010-3696-850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할 능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보시금은 없습니다
이외 비용문제 상담
출가 남녀 행자도 찾습니다
(강원지역)
010-9421-0730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시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대주스님의 신비한 기도

● 한달에 3번, 30분의 기도로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힌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부처님 오신날 청암법사 친필달마도 특별가 보급

4.8행사에 선물이나 불사용으로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해
1장당 5,000원에 보내드리오니
연락주십시오
010-2953-8770
051)202-8770
* 10장이상 사찰명, 스님법명 넣어드립니다.
www.달마.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①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참관가능)
* 일시 : 매달 2일간, 토, 일 진행 합니다.
* 부모,자녀,부부관계와 조상, 무의식 치유
② 원네스 깨어남 힐링명상(무료체험하기)
* 세계적인 치유명상, 강력한 삶의 변화
*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명상과 힐링상담자 모집

명상, 불교심리치료, 서양심리치료, 명상치료법을
무료로 지도하오니 많은 동참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259-20 고산골 해룡사 지도법사 회성 스님
☎ 053)471-7769. 010-2866-4860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영남 범음.범패 학인모집

영남 범음. 범패 염불원에서
2014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 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 작법무 : 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속 관계 없이 가능함
◆ 개강일시 : 2014년 4월 17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224-2 해원사
◆ 문 의 처 : 010-5065-5690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문체부허가 제2012-43호)
영남 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태극혈맥풍수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로암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경을 듣고 마음으로 따라 기뻐하며 사경하 여 지니고
공경히 염송하면 무량한 복덕을 받는다."

- 출생무량문지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생수공장, 황토공장)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 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8m 접
- 건물 : 42평, 남향(별장 및 전원주택)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양도금액 : 평당 20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4동(법당 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구로사찰 양도
- 3층 법당 90㎡, 요사채 90㎡
- 공양간 90㎡, 토지950㎡
- 뒷편은 산,아파트.주택밀집지역
- 40년운영하였으며 텃밭있음
- 양도금액 : 9억원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약 82평(법당, 산신당, 방3개, 공양간1)
- 5층 건물중 2층
- 지하철(자갈치역) 5분거리, 버스정류소 2 ~ 3분거리
- 보증금 : 2천만원, 월 66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절충가능)

010-3869-6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6억3천,위치 최적
- 위치 : 수도권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가 : 20억8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대지 : 163평, 법당 10평, 방4개
- 수세식, 현대식주방, 세간일체 양도함
- 법당앞 정원에 5층석탑, 2M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몸만오셔요
- 가액 : 5천 3백만원

010-8902-7618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남쪽 산자락
- 1층 본요사채 45평, 황토벽돌로 조성 2층 법당 25평
- 주차장 완비 총 171평 외 토지 80평과 별요사채 1,2층 30평, 저온창고 2.5평
- 가액 : 4억 5천 직접거래

010-3743-994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9천5백

011-645-1361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충남 논산
- 천안, 논산고속도로(세종)
- 서논산 IC 10여분
- 대지 약 130평
- 텃밭, 용왕당
- 건물4동(법당,산신각,후원,요사)
- 가액: 1억 2천만원

010-5338-44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 요사채(60평), 화장실,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 칠성각)
- 산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체
- 가액 : 3억5천만원(답사후 조정, 평당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대지 110평, 건물80평, 인법당 10평,
- 포교원 요양 수행 힐링처
- 별장식 별궁으로 용도 가능한곳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아름다운 회향
- 선 답사 후 결정하세요
- 자비의 소임 한아름 안고 중생의 선상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만족의 덕목 행복했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예쁜가람입니다
- 위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소재
- 평수 1,800여평(실버타운 허가보류)
- 가액 : 5억9천만원(마음)

010-6449-9585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 인제대 인근
- 대웅전, 산신각, 종각, 석탑
- 요사채, 방 4
- 대지 500㎡ • 건평 215㎡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3억(융자무)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수익성 건물 안내
- 부산 동래도시 철도역세권
- 대지 106평, 건물350평
- 주거밀집지역
- 월수익 900만원 받고
- 가액:5억6천만원에입주할수있습니다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종로구 5가역앞 종로6가 버스정류소앞
- 4층건물중 3층 약14평
- 기도실 상담실(실내화장실)
- 용도 : 지방사찰에서 포교당 적합
- 가액 : 보증금 일천만원 월77만원(부가세포함) 시설비 6백만원(절충가능)

02)7620-108번
031)5410-106번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7대 주차가능
- 가액 : 전세 1천만원
- 월세 120만원, 시설비 6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93-3689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 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241
- 평수 163평, 법당10평, 방 4개, 현대식주방, 살림집기 일체양도함, 냉장고 2, 세탁기 1
- 법당앞 정원에 5층 석탑과 2미터석불봉안
- 스님 건강상 싼값에 양도하오니 빨리 인연되어 봉축행사 보십시오
- 가액 : 5,300만원(절충가능)

010-8902-7618 (선방문 후상담)

사 찰 안 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고성 통영의 명산 백방산 등산로 입구
- 신설 동고성 IC, 신설 통영 공단대로 나들목에서 700m
- 계곡의 물소리, 고목노송들의 바람스치는 합창소리가 들리고,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큰절터!!
- 1,500~3,000, 5,000평 평당23만원

010-9393-89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63평, 공양실 따로, 법당 33평, 방 6
- 대지 720평
- 가액 : (1) 전세 : 3,000만원 (2) 양도 : 평당20만원

010-3827-6869

사찰(급)안내
- 위치 : 진주 IC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사찰
- 평수 종교용지 600평, 법당20평과 영험스런 약사굴법당 있음
- 요사채 및 건물 5동, 70년된 사찰
- 가액 : 4억 8천만원

010-4021-8588

토 굴 안 내
- 중부 곤지암 IC 에서 10km
- 대지 : 150평 (건물 2층 60평 -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양도가 : 1억 9천

010-9305-671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시장건물 4층
- 평수 : 약50평 및 계단 옥상사용
- 삼존불, 소불 600외 탱화일체
- 보증금 1,000만원 월77만원 불사금 2,700만원
- 경남 산사 불사 완료 관계로 이전

010-9296-604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대지 324평
- 요사+인법당 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일억원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아파트 상가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특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300만원(조절불가)

010-5173-3355

경남에서 포교하기 좋은 오래된 사찰
- 위치: 마산에서 10분거리
- 목조 토기와 25평
- 요사채 35평, 대지 200평, 산신각
- 전망 최적
- 가액 : 3억

010-5494-645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375
- 대지 154평, 건평11평외 8평정도
- 작은마을 뒤 산밑 조용함
- 마르지 않는 샘
- 가액 : 3,800만

011-527-115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산 와촌
- 대지 : 약 500평
- 2층 벽돌집 정남향
- 가액 : 2억8천만원

010-9778-77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토굴농막(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44번지
- 평수 734평, 남향
- 용도: 농막이나 토굴 용, 현황도로 전기, 샘물, 있음
- 전망좋고, 솔향기 그윽한곳
- 해발 700고지
- 가액 1,500만원

010-5454-919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아양로 15길 15 대구 파티마 병원 옆
- 1층 약 25평
- 관음보살님 2자 1위, 소불 10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786-6148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중심도시
- 대지60평, 건물2동, 요사채35평, 법당1동
- 삼존185대불계금, 대형후불탱화, 1자 원불108불
- 방 4개, 욕실 2개, 2층동 18나한 네팔에서 모시고옴
- 방송스튜디오 녹음실, 차고
- 가액 : 3억 5천만원, 보시고결정, 절충
- 불교포교원 90평, 전세5,000만원 최고집기시설

010-9546-2255
010-5236-7310

사 찰 안 내
- 경기 이천 장호원 5분, 15년절터
- 평수 : 약 300평
- 뒤 언덕은 공짜땅, 해화나무 소나무 약 20주
- 현재- 세1,000만에 월35만 5월에 나감
- 볼곳 3곳 더 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10만원 전세 3천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 지목 : 전(관리지역) 1,000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처 완비
- 가액:2억원(절충가능) 융자: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허 가능

010-2002-1000

사 찰 안 내
-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본사급 대형사찰, 무인도, 소규모사찰, 암자, 토굴터, 일반주택 등
- 스님께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원하시는 위치의 지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저렴한, 사찰, 터, 암자, 많이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자세히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3288-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틱낫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설립자)

〈2〉 깨어있음

"깨어있음과 화는 둘다 우리 자신이다"

51가지 마음의 씨앗

깨어 있음의 에너지는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긍정이며 그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약이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불교심리학에서는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는 의식(mind consciousness)이고 다른 하나는 저장식(store consciousness)이다. 의식은 능동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서양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마음' 이라 부른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를 키우려면 능동적 알아차림 즉 의식을 우리의 모든 활동에 두어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과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를 마실 때도 시내를 운전할 때도 또렷하게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다. 걸음을 걸을 때는 지금 걷고 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숨을 쉴 때는 숨 쉬고 있음을 자각한다.

저장식은 뿌리식(root consciousness)이라고도 하며 우리 마음의 근간이 된다. 서양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 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과거의 경험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저장식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은 몸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 때로는 하루 종일 무언가 활동을 하고 다녀도 의식이 전혀 함께하지 않기도 한다. 저장식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러는 동안 의식은 천 개도 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은 운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거나 사고를 내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 경우 저장식은 독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마음을 집에 비유한다면, 저장식은 지하실이고 의식은 거실이다. 화, 슬픔, 기쁨 등의 심리 현상은 씨앗의 형태로 지하실 속에서 쉬고 있다. 우리에게는 화의 씨앗, 절망의 씨앗, 분별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깨어 있음의 씨앗, 자비의 씨앗, 이해의 씨앗이 있다. 저장식은 씨앗의 총합이자 그 모든 씨앗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토양이다. 그 씨앗들은 내부 깊숙이 머물다가 자신과 접촉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순간 화를 일으키거나 기쁨, 슬픔을 가져온다. 그때 그 씨앗은 괴물처럼 단번에 쑥 자라서 거실 즉 의식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씨앗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 현상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 화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화의 씨앗을 건드리면, 그 씨앗은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화' 라고 일컬어지는 심리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불교에서 '현상' 이라는 것은 많은 조건들이 한데 모여 창조되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커펜은 하나의 현상이다. 나의 손, 꽃, 탁자, 집도 모두 현상이다. 나의 손, 꽃, 탁자, 집도 모두 현상이다. 집은 물리 현상이다. 나의 손은 생리 현상이다. 나의 화는 심리 현상이다. 불교심리학에서는 51가지의 씨앗이 51가지의 심리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화는 그중 하나다. 저장식에서 화는 씨앗이라 불린다. 의식에서 화는 심리 현상이라 불린다.

화의 씨앗이 우리 거실로 올라와 심리 현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 있음의 씨앗도 함께 찾아내서 그 씨앗 역시 거실로 올라오도록 초대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집 거실에는 두 개의 심리 현상이 있다. 이것이 바로 화에 깨어 있는 일이다. 깨어 있음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있다. 깨어 있음으로 호흡을 할 때 그것을 호흡에 깨어 있는 일이라 한다. 깨어 있음으로 걸을 때 그것을 걷기에 깨어 있다고 한다. 깨어 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먹기에 깨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화에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음이 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감싸 안는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둘이 아님(또는 다르지 않음)' 의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깨어 있음과 화는 둘다 우리 자신이다. 깨어 있음은 화를 억누르거나 화와 싸우기 위해 거기 있지 않고, 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화를 보살피기 위해 거기 있다. 마치 형이 아우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는 화의 에너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화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모성이다.

우리는 언제든 깨어 있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단지 깨어있는 호흡을 하고, 깨어 있는 걸음을 걸으며, 깨어 있는 미소를 짓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깨어 있음의 씨앗을 만나게 되어 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일이 지속되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내적 변화를 경험한다. 지금 무엇을 하든 당신의 내면을 성찰하라. 요리든, 청소든, 설거지든, 걷기든, 호흡을 알아차리는 일이든 그 무엇이라도 지속적으로 깨어 있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면에 있는 깨어 있음의 씨앗이 더욱 튼튼해진다. 깨어 있음의 씨앗 속에는 '집중' 도 들어 있다. 깨어 있음과 집중, 이 두 가지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도 순환 장애를 겪는다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이 독소는 한 곳에 축적될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은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야 한다. 피가 잘 순환하면 간과 신장이 독소 방출 기능을 잘 수행한다.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체내의 독소를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순환장애가 있을 수 있다. 몸 안 어딘가에 쌓인 고통, 아픔, 슬픔, 절망 등이 단단한 응어리가 되어 순환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 안의 독소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면 현상' 또는 '내면의 응어리' 라 부른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고통과 슬픔을 감싸 안는 것은



내면 아이 거실로 초대해 매일 안아주자
요리 · 청소 · 걷기 등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라
꾸준히 하면 '깨어있음의 씨앗' 튼튼해져

바로 마음을 마사지해 주는 것과 같다.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우리의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병이 든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순환장애가 일어나면 마음이 병든다. 깨어 있음은 고통의 응어리 주변을 어루만져 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 그 부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거실로 올라오려는 불청객을 환영하자

고통, 슬픔, 화, 절망의 응어리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여차하면 의식 속으로 즉 우리의 거실로 올라오려고 한다. 응어리의 크기가 커져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청객이 올라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면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진입로를 막으려 한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지하실에서 잠들어 있기를 바란다.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거실에 늘 다른 손님을 가득 채워 놓는다. 10~15분이라도 여유 시간이 생기면 거실을 채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책을 집어 든다. 텔레비전을 켠다.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간다. 거실에 손님들이 차 있으면 이 불쾌한 심리 현상이 올라오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심리 현상은 순환해야만 한다.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면 마음에 순환장애가 일어나서, 몸과 마음에 정신질환과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통이 있어 아스피린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때가 있다. 이런 두통은 정신질환 증세일 수 있다. 우리는 알레르기를 신체적 문제라 생각하지만 실은 정신질환 증세일 수도 있다. 의사들은 약을 먹으라고 처방전을 써 주겠지만, 때로는 투약이 내부의 심리 현상을 더욱 억압하여 질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거실과 지하실 사이의 벽을 허물자

만약 고통의 응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응어리들이 순환하여 거실로 서서히 올라오도록 할 수 있다. 그것들을 포근히 안아 주고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감싸서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실과 거실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을 해체할 때 고토의 덩어리들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는 약간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내 안의 아이가 너무나 오래도록 지하실에 갇혀 있어 많은 두려움과 화가 쌓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할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음의 수행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깨어 있음이 없으면 이런 씨앗들이 올라올 때 매우 불쾌하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발전하듯 우리가 깨어 있음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을 안다면,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거실로 초대해서 안아 주는 수행을 통해 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거대한 에너지의 원천인 깨어 있음이 이런 부정적 에너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안아 주고 보살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런 씨앗들이 아예 올라올 생각조차 안 할지 모른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불신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으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조금씩 달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 격렬한 감정은 한동안 포근하게 지낸 후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씨앗이 되지만 그 힘은 이전보다 약해졌을 것이다. 우리가 내적 심리 현상을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씻어 줄 때마다 고통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어진다. 그러니 매일 당신의 화, 당신의 절망, 당신의 두려움을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목욕시켜 줘라. 이렇게 이들을 거실로 초대했다가 지하실로 돌려보내는 일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하면 마음은 순화되어 일상의 평정을 되찾는다.

깨어 있음이 하는 일

깨어 있음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안의 아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알아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저 그 아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사를 건네라. 그뿐이다. 그 아이는 슬플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그저 숨을 쉬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슬픔이 내 안에 나타났음을 알아차리네. 안녕! 잘 있었니? 나의 슬픔아!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슬픔을 잘 보살펴 주려네."

내 안의 아이를 알아본 후 깨어 있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은 그 아이를 안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쾌한 수행이다. 우리의 감정과 싸우는 대신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기 때문이다. 깨어 있음은 자신의 단짝인 집중을 데리고 온다. 내 안의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 주는 처음 몇 분간 마음에 위안을 느낄 것이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다.

내 안의 아이를 알아보고 안아 준 후에 깨어 있음이 하는 세 번째 일은 다루기 힘든 감정을 달래 주고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 아이를 그저 포근히 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힘든 감정들을 달래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격앙된 감정을 깨어 있음과 집중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는 이 심리 현상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이다. 사물의 근원을 알 때 고통은 줄어든다. 그러므로 깨어 있음이 하는 일은 고통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완화해 주는 것이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에는 집중의 에너지뿐 아니라 통찰의 에너지도 들어 있다. 집중 에너지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도록 해준다. 집중 에너지와 함께 할 때 깊이 보는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그를 통해 통찰도 가능해진다. 통찰에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담겨 있다. 깨어 있음이 거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음을 생생히 지속시키는 법을 알고 있을 대 집중 역시 함께한다. 그리고 집중을 생생히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을 때 통찰이 찾아온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보도록 하여 통찰을 얻게 해주고 그를 통해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틱낫한 스님이 쓴 〈화해〉(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도심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타리)육거리 근처
- 넓은 면적, 5층 84평(7층, 지하주차장 지분 별도15평 있음)
- 방3, 공양간(약10평), 실내화장실, 실외남녀 별도 화장실
- 경전철 역 가까워 도보 이용(대중교통편리함)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불교신자 많음 근처 교회는 많으나 절이 없음
- 임대(시설금 없음)및 양도(현 시세에 비교 매우저렴)
- 도심 사찰하기에 내부 구조가 매우 편리함

010-6570-1000
055-247-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법당 25평
- 요사채 40평
- 급한사정상 알림
- 가액 : 3억 7천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총 6동(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현재 추모관 성업중
- 양도가 : 3억 5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문의 010-5155-1948

예쁜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무지개 폭포 입구
- 평수: 대지 104평
- 법당, 스님 친견실, 공양간, 요사채
- 법회 즉시 가능, 몸만 오시면 됨, 주차시설 완벽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2565-7200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50년된사찰)
- 대지 300평, 미륵불상4.5M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존불, 텃밭,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3,500만원. 양도도 가능

010-6311-4920
010-7128-5035

토굴(급)안내
- 주소 :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 대지326평 법당.요사채.삼존불.지장.신중
- 칠성탱화, 방5개
- 정부지원금 5천만원가능
- 가액:7천500만원

010-4296-8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사찰,템플스테이 사용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오리
- 사찰도 사용할 수 있고, 발효식품 장소나, 템플스테이 연수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옥 3채 황토방 있음
- 연락주세요

010-3521-6920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갤러리 색즉시공



한 생

꽃
한 잎 두 잎
그리고 세 네 잎….
손에 손잡고 있답니다.

마지막 꽃잎도
떨어질세라
서로 꼬옥 잡고 있네요.

한 겹, 두 겹
그리고 한 생
또 한 생…이구나!

그림 · 글=희상 스님

동자의 피리 소리, 깨달음을 전하다

Buddha in Comic & Ani

⑧ 테 웨이의 '피리부는 목동'



테 웨이 감독의 '피리부는 목동' 한국판 DVD 표지.

청허휴정(淸虛休靜)선사는 '인경구탈(人境俱奪, 인적 다 떨치고)' 라는 선시에서 '牧笛過前山 人牛俱不見(앞산엔 목동의 피리소리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 구절은 불교의 '심우도(尋牛圖)' 를 의미하고 있다. 그 중 휴정이 말한 부분은 소와 사람 둘 다 잊은 '인우구망(人牛俱忘, 소와 사람 둘 다 잊다)' 에 해당된다. 이는 본성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를 모두 비웠으니 자타(自他)가 다르지 않고 내외(內外)가 다르지 않으니, 전부가 오직 공(空)이라는 뜻이다.

불가의 심우도는 '선(禪)의 깨달음' 을 상징하는 불화이다. 한국 사찰에서 한 번쯤을 보았을 법한 이 도상은 10가지로 구성돼 십우도(十牛圖)라고 불린다. 또한 중국에서는 소 대신 말을 등장시킨 시마도(十馬圖)가, 티베트에서는 코끼리를 등장시킨 시상도(十象圖)가 전해진다. 하지만 내재하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심우도는 말 그대로 소를 찾는 이야기다. 단순한 듯 하지만, 이 안에는 수행자의 구도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심우(尋牛, 소를 찾는다)로 시작하는 심우도는 견적(見跡, 발자국을 보다) · 견우(見牛, 소를 보다) · 득우(得牛, 소를 얻다) · 목우(牧牛, 소를 기르다) · 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다) · 망우존인(忘牛存人, 소를 잊고 사람만 남다) · 인우구망(人牛俱忘, 소와 사람 둘 다 잊다) · 반본환원(返本還源, 본래의 근원에 돌아가다) · 입전수수(入廛垂手, 시중에 들어가 중생을 돕다)라는 10편의 그림이 게송과 함께 순서대로 이뤄져 있다.

중국 1세대 애니메이션 감독인 테 웨이(特偉)의 '피리부는 목동(1963)' 은 불교의 심우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피리부는 목동' 은 19분 가량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일반적인 셀 제작기법을 배제한 수묵기법을 이용해 발표 당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영화제와 시네마테크 · 전문 서적 등을 통해서 국내 애니메이션 관객들에게 꾸준히 소개돼 왔다. 동양화의 신비한 아름다움을 독창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깊은 주제의식으로 관객들에게 '말 없는 깨달음' 을 전한다.

서양 애니메이션의 대표적 기법인 '셀 애니메이션' 이 객관적인 대상의 형상을 재현하지만 중국 수묵애니메이션은 내재된 정신과 작가의 주관적인 정감표현을 중시한다.

이런 부분은 당대 서화론가 장언원(張彦遠, 815~879)이 주장한 '의재필선 화진의재(意在筆先 畵盡意在, 정신이 붓보다 먼저 있어야하며, 그림은 다해도 정신은 남아있어야 한다)' 는 미학적 개념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만화평론가 임화인 씨는 '피리부는 목동' 을 "동양

불교 심우도와 애니메이션의 만남
中 1세대 감독 테 웨이 역작 평가
수묵화 기법 사용 여백의 美 탁월

화의 넉넉한 여백미와 수묵화의 번짐 효과, 그리고 대사를 절제하고 그 자리에 자연의 온갖 소리를 채워 넣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백의 미와 번짐의 미학은 테 웨이 감독의 유연한 상상력과 더불어 나름의 주제의식을 담아낸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다. 피리를 잘 부는 소년이 숲에 왔다가 잠든 사이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결국에는 찾는다는 내용이다. '피리부는 목동' 은 소를 찾아 집에 돌아간다는 '기우귀가' 의 장면까지만 묘사하고 있다.

구도의 중간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지만 작품 안



'피리부는 목동' 의 한 장면. 수묵화 기법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인 '피리부는 목동' 은 불교의 심우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에서 보여지는 메타포들은 매우 불교적이다. 먼저 소를 타고 오는 행위이다. 이는 심우도에서 소는 일체의 대립을 초월한 근원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즉, 소는 진여(眞如)이며 실재(實在)이다.

소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은 작품의 백미(白眉)이면서도 불교적 이미지를 담뿍 담고 있다. 소를 몰고 돌아오는 전원의 노을 진 풍경과 목동이 연주하는 피리 독주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작품에 몰입하게 한다.

멀어져 가고 있는 목동의 모습을 보고 있을라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느껴진다.

심우도 '기우기가' 를 표현한 게송은 '一拍一歌無限意 知音何必鼓脣牙(한 박자 한 곡조 마다 무한한 뜻이 담겨 있으니 곡조를 아는 이가 어찌 헛된 말 하리)' 라고 묘사한다. 소를 찾아 어딘가로 향하는 목동의 구멍 없는 피리소리는 가히 육안으로 살필 수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상징하고 있다.

작품에서 목동은 피리소리로 소를 찾았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소' 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 할인가로 모십니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699,000부터
(양곤 바간 헤호) 5일 1,290,000부터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1,090,000부터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1,290,000부터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899,000부터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대행 스님

사월초파일이 얼마나 좋은 봄날이고 기쁜 날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야외법회로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법회 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염불 소리가 합쳐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여러분이 스님들을 따라서 같이 해 주십시오. 빨리하거나 늦게 해 버리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 스님네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듣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도 너무 빠르게 하면 넘어가는 소리가 애들 글 읽는 소리 같으니까 좀 느리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사를 시작하면서 야외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신심이 돈독하셔서 불사를 일찍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스님네들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불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사계절을 맞고, 또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항상 모습을 바꿔 가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손자로 태어나도 증조 할아버지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전에 그 속에는 뼈저린 아픔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뼈저린 아픔은 어떤 것인가. 즉 말하자면 인간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벌레도 모두 생명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각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벌레나 하등 동물 같은 것은 지혜를 갖지 못하고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이런 정도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만약에 장마가 들려고 하면 개미나 벌레 또는 어떤 짐승들은 미리 다 알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며칠을 격해 놓고 아예 그냥 식구들을 다 몰고 갑니다. 세간 짐을 트럭에다 싣고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연이어서 등에다가 함께 짊어지고 발을 맞춰서 몰고 나가는데 아주 비호같이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 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나 수수도 장마가 들어서 애쓸 것 같으면 '야! 올해 장마가 든다면 큰비가 와서 뿌리가 뽑힐 테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뿌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박고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를 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알을 끌고 풀 속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 위에다 걸쳐 놓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여러분한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똥마려." 하면 "그러면 빨리 똥을 눠라." 그러고, 어린애가 너무 어려서 바지를 못 벗으면 바지까지 벗겨 주면서 변소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론이나 가설이 붙습니까? 진정코 그런 게 붙지 않죠? 애들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할 때에 얼른 물 떠다 주면 됐지 거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목말라서 물 먹는데 이론이 왜 붙습니까, 거기? 목마르니까 그냥 먹는 것뿐이지요.

불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었느니, 또 현실에 어떠한 업을 짊어졌느니, 미래에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느니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질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천체물리학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좀 더 깨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에 뭐가 걸려서 이사를 못 가느니, 또 부적을 해서 붙여야 되느니 나쁘니 좋으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신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게 걸려서 그렇게 되고 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미신이 아니라면 미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가난하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고 뼈저린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 그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모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이제 사월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월초파일을 앞두고 한 오천 명이 거기에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절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천 명이라면 산을 하얗게 메울 정도니까요. 거기는 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겨울 오바나 잠바들을 걸치고 포대기를 걸치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촛불을 켜는데 그 마음들이 그저 자기 촛불만 잘 켜려고 애쓰더란 말입니다. 자기 등만 좋은 데다 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끄달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기 달면 어떻고 저기 달면 어떻습니까? 꼭 법당 앞에만 걸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싸움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젊은이 셋이 등을 걸려다가 노인네들이 "젊은이! 왜 남 걸어 놓은 데다 이렇게 부딪치고 이러느냐." 하고 하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양보하고선 산모퉁이를 돌아서 산신각 옆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디다. 어린애를 낳지 못해서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요새 절에 다니면서 인등을 켠다고 하시죠? 그것은 인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인등인 것입니다. 몸뚱이는 등이요, 마음 중심은 촛대요, 마음내는 것은 불이라는 얘깁니다, 촛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한평생 산다 한들 한 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한 철 사는데, 바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참선! '주인공이 수없는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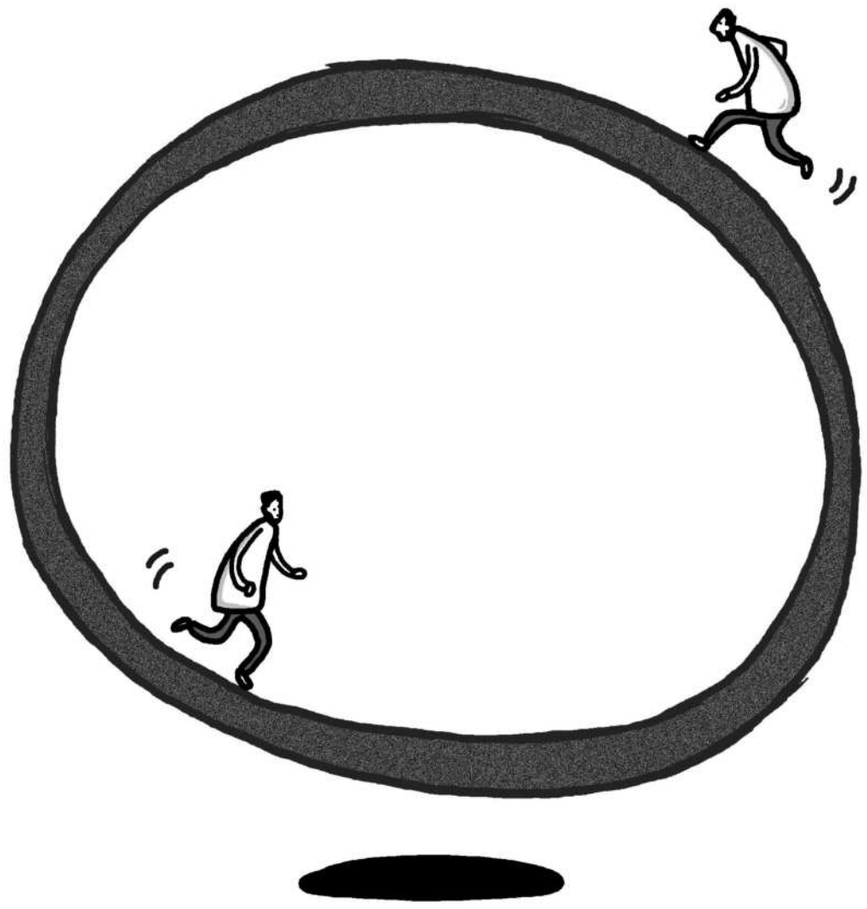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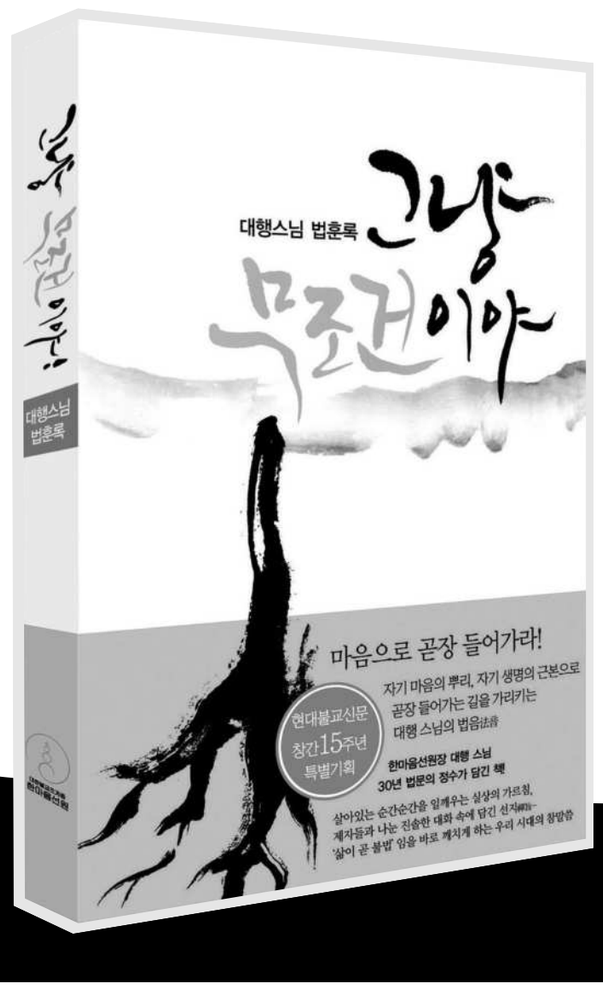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등불,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렇게 형성시켰으니, 아! 주인공만이 나를 낫게 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주인공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믿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불은 켜져 있는 것이고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 찰나찰나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는 거나 먹는 거나 듣는 거나 만남이나 뭐가 고정됨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空)이 즉 색(色)이요 색(色)이 즉 공(空)이니라. 과거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느니라. 너희들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잘 쓰면 스스로를 잘 이끌어 가는 거고 마음을 잘못 쓰면 너희가 너희를 구덩이에다가 넣는 격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지각입니다. 과거의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빚 보증을 선다고 도장을 떠억 찍어 줬더니 오늘 집안이 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잘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 따로 있고 생명 따로 있고 육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로 구성된 일심에서 나오는 활용은 여러분의 생활과 합치돼 있습니다. 불법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4월 8일에 인등을 달러 다닌다 부적을 쓴다 이러는 것이 다 허탕한 짓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사를 다니는 거고, 형편에 맞는 날을 잡아 그냥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력 신앙이 아니라 내 주인공에 의한 자력 신앙으로써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마음이 찰나찰나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생명력이 뚜렷하게 있는 나, 영원한 나에게 자력 신앙으로써 '아,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지.' 이러고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해도 흔들리니 자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며 어디를 믿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너 자신부터 알라고요.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랬다고 봅니다. 왜? 예수도 "나는 나로되 너는 너니라. 너는 너로되 나는 나니라. 계명을 지켜라." 했습니다. 임제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주장자를 뺏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무슨 소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중심이 없고 지각이 없어서 촛불을 켜지 못한다면 항상 깜깜한 데서 살 수밖에는 없는 거죠. 마음이 암흑이라면 사는 것도 암흑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 암흑이지요. 여러분이 24시간 사는 동안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과 즐거운 순간이 몇 시간이나 되며 몇 초나 됩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을은 다가오는 겁니다. 내 몸뚱이는 나뭇잎과 같아서 낙엽

> 여러분이
> 인등을 켠다고 하시죠?
> 그것은 인등이 아닙니다.
>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 인등입니다.
> 몸뚱이는 등이요
> 마음 중심은 촛대요
> 마음내는 것은
> 불이라는 얘깁니다.
> 촛불!

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몸 벗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냥 나갈 것이지 어쩌자고…. 종이 한 짝에 글씨 써서 붙인다고 여러분 가정이 의합해지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만 있다면 사월초파일이 얼마나 좋은 봄날이요 기쁜 날인지 아실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한 분을 정해 놓은 것도 너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열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두셨어도 싸우지 않고 화합한 것은 전부 부처님이라는 한 스승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님들이 각각 제자를 따로 두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분란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월초파일이라는 날짜를 정해 놓은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4월 8일에 나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월이라! 이것은 동서남북이 다 밝은 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월! 사월이 아닙니까! 팔일은 바로 무의 사무(四無), 유의 사유(四有)가 합쳐져 팔일입니다. 그러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이 한데 합쳐서 일심으로써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마음을 잘 쓰면 모습을 바꾸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잘생기게 그림을 그려서 나오고, 여러분이 한생각 잘못하면 업식을 잔뜩 짊어지고 나와 가지고는 그냥 병이 들고 속이 상해서 복장을 찧고 자식들이 말썽만 피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사는 것도 업식이 한데 모여서 끼리끼리 같이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 보십시오. 배는 배대로 놓고 생선은 생선대로 놓습니다. 생선도 갈치는 갈치대로 놓고 게는 게대로 놨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한 식구로 만나는 것도 똑같이 인연에 따라 바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금방에 넝마 갈 일 없고 넝마전에 금 갈 일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자동적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뒤범벅을 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에 금하고 무쇠를 뒤범벅으로 섞어 놓는 거 보셨습니까? 과일 가게에서도 이 과일 저 과일 한데 합쳐서 뒤범벅을 만들어 놓는 법이 없고요.

그러니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차원대로, 인연 따라서 업식 따라서 한 식구로 만나서 서로 부딪치고 "너 때문에 내가 복장을 찧고…." 이렇게 울고불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이 더 많고 속상해 하는 시간이 더 많고 아픈 시간이 더 많지요. 즐거운 시간이야 눈꼽만치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이틀 사흘에 한 번씩 그저 조금씩 즐거움이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거를 바라고 발목을 붙들어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데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다가, 아니 종교까지도 그렇게 괴로워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삼재 걸리고 부적 걸리고, 이사 가는 데 무슨 손 걸리고, 그러고도 또 칠성이니 용왕이니 산신이니 하고 따로따로 둔단 말입니다, 허허허….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것을, 또는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삼심(三心)을 일심으로 둥글리세요. 또 석존이니 지장이니 산신이니 칠성이니 독성이니 용왕이니 지신이니 조왕이니 이런 걸 따로따로 두지 마셔요. '주인공!' 하면 벌써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내 조상까지도 들어 있고 나까지도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력 신앙으로써,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모두 주인공에 넣곤 마음을 둥글려 가지고 일 배를 올릴 때, 그 공덕은 말도 못해요. '백팔 번을 절을 한들 어디 일 배만 하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눈은 천지 어디고 비춰 보지 않는 데가 없고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그 평발은 안 딛는 데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모든 부

> 주인공에다
> 모든 것을 일임하고
> 마음 편안하게 사신다면
>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 항상 불은
> 켜져 있는 것이고
>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
> 말입니다.

처님은 위대하지도 않고 위대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나를 표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이에 대한 이치를 약간만이라도 언급하겠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똥 친 막대기니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사신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셨겠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똥간에 작대기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다가 밑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똥 친 막대기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아픔을 같이 하면서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아니 디딘 데가 없고 아니 굴리는 데가 없고 아니 비춰 보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똥 친 막대기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건 왜? 고정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를 다 깨달으셔서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다, 칠성에게 빌면 칠성이 돼 주시고 산신에게 빌면 산신이 돼 주시고 지장에게 빌면 지장이 돼 주시고 용왕에게 빌면 용왕이 돼 주십니다. 그게 한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백억화신이니라. 천백억화신이 아니 닿는 데가 없느니라.' 하는 거죠. 그게 한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있는 이 몸뚱이는 한계가 있지만 모습 없는 무체(無體)는, 무심 무체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십이응신으로 항상 들고 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삼십이응신이라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세상, 산 세상, 미래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넘나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불을 켜더라도 등이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억을 낸 사람이 5천 원 낸 사람하고 똑같은 등을 켜도, 자기가 1억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더하고 덜하고'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보시했네 적게 보시했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심 무행으로 그대로 행을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몇 곱절의 대가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켤 때도 항상 '주인공만이 이렇게 밝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우리는 부처님 나오신 그 뜻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부모 제사 지내고 생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불을 켜 놓고 예의를 다하고 정성을 지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조상과 부처님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왜 따로가 아니냐? 이 우주 삼천 대천세계의 모든 사생의 무리를 다 항복받고 깨달아서 다 아시고, 그 업식을 여러분의 모든 업식과 더불어 자기가 짊어진 채, 짊어진 것도 없고 안 짊어진 것도 없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현실에도 그렇게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계시니까 같이 계신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9년 4월 2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 세상보기

불교 '자애관, 극단적 분노 사회의 해법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 센터 원장

요즈음 발생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 분노의 표현이 이처럼 확연하고 극단적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실제 칠곡과 울산에서 벌어진 계모에 의한 아이 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자신의 분노를 아이에게 표출해 아이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교통체증과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도로 위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로드 레이지'와 사이버 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이버 레이지' 등 분노의 일방적 표출이 사회 현상화 되고 있다. 실제 일상 속에서 '욱'하고 오르는 감정을 통제 못해 일어나는 일들까지 분노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 평소에 '안전지대'로 여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개적 분노의 표출은 안정적 치안에 기반하고 있는 일상적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사회적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식의 입장으로 보면 '분노'는 근본번뇌로서의 '진에(瞋恚)'와 지말 번뇌로서의 '분(忿), 한(恨), 뇌(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분노'를 '분'과 '노'로 나누어 휴화산처럼 내적으로 쌓인 '노여움'과 활화산처럼 외적으로 작용하는 '화'로 나누기도 한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 노여움은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인 앙심(怏心)을 포함하며 마음 바닥에 쌓여 있으면서 폭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 '화'의 경우는 외적으로 표출된 감정으로 정도에 따라 짜증, 분노, 분개, 증오, 적개심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가슴 속에 응어리가 과도하게 쌓인 경우에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을 만나면 폭발하게 되어 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이 있을 경우 분노 조절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노여움'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다양한 '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의 발생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통제 불능의 분노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노조절장애'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느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에서 발간한 〈분노사회의 진단과 관리 전략〉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일상화된 분노의 관리 방안으로 첫째 물질 자본 위주의 성장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중심의 성숙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둘째 인성을 강조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충 및 사회안전망을 포함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셋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분노를 예방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 개발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전의 답은 보다 현실적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에 보이듯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끼친다.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법구경〉에 나오듯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 라고 적의를 품게 되면,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오로지 이러한 적의를 품지 않을 때, 원한은 사라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 원한을 여읠 수 있는 분노 해결의 실제적 방법으로 '자애관'이 제시된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발원하면서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분노의 사슬이 녹게 되고, 여기에 보태어 자기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을 자각하는 연습을 하고 알아차림을 통한 '멈춤' 능력 향상에 힘쓰다 보면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알아차려 멈추고 존중으로 배려하는 불교적 지혜를 통해 노여움의 족쇄를 풀고 극단적 분노 표출의 세태를 효과적으로 안정시켜 분노가 조절되는 사회로 진일보했으면 한다.

발언대

新 연애풍속도 '썸'

우리에게 연애, 사랑은 낭만적인 어떤 무엇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썸'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흔히 '썸'은 연애 직전 '썸싱(Something)' 있는 단계를 이르던 것이 이제는 '썸타기' 만을 즐기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신 연애풍속도 '썸'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꿈 키워주는 사회 조성해야"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 '썸'에 대한 열풍이 거세다. 호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귀기 직전의 남녀 사이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으로 달려가던 연애는 사라진지 오래다.

일각에선 '썸'을 3포 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 세대)의 현상으로 풀이한다. '3포 세대'는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을 일컫는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이자 슬픈 자화상이다.

이 같은 '썸타기' 현상은 불안한 미래를 둔 젊은이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주체성이 결핍되고, 책임을 외면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 사회현상도 담아낸다. 삼포세대라 일컬어지는 불안한 경제의 희생양이 된 젊은이들이 행복 추구하기를 포기한 채 유희적 성(sex)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엄연한 세태의 한 단면일 뿐, 함부로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꿈을 사회가 보듬고 키워주려는 분위기의 조성과 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매모호한 관계 '썸'으로 규정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썸'이라는 단어는 연인으로 가기 이전의 감정을 한 단어로 명확하게 규정지은 단어라 생각한다. 이는 연애라는 과정으로 가는 청춘남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으로 어제 오늘 있었던 감정이 아니다. 이를 거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의 관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복잡 미묘하고 애매한 관계를 규정짓는 단어가 분명 예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신세대들이 이런 감정에도 의미를 부여해 '썸'이라는 단어로 관계의 실상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연인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다. 함께 데이트를 해야 되고, 기념일을 챙겨주어야 하며, 또 수시로 전화도 해야 하는 등 의무감이 부여되는 관계다. 그러니 이런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당연한 과정이다.

물론 '썸'에 대해 가벼운 만남을 선호하는 신세대들의 세태를 반영한 부정적 '단어'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있음을 안다. 하지만 '썸'이라는 단어로 연인 이전의 단계를 규정짓고 이를 하나의 또다른 인간관계로 인정하는 젊은이들의 유연함, 솔직함에 지지를 보낸다.

"설렘 끝나고 방치…이건 아니죠"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

요즘 '썸'이라는 연애 풍속도가 유행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해서보니 '썸타기'를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신기하다.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 썸남과 썸녀가 생기고 이들과의 '썸타기'가 이어진다. 본능적인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오묘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진행된다. 줄다리기에서 끝나는 '썸'도 있지만, "사귀자"라는 고백 이후 진정한 연애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썸'을 타다 실제 연애로 발전했을 경우 설렘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방치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물론 상대방과 그의 지인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 그랬다. "연애는 가장 속속들이 지저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애가 깊어지면 현실이 되고 현실은 다시 생활이 된다.

'두근두근' 한 감정만이 연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설렘만이 있는 연애에 대한 믿음 또한 불교에서 경계하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고 생각된다. 뒤바뀐 헛된 생각은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

社說

94년 개혁 정신 되새기며 정진해야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승려대회는 만신창이가 된 한국불교를 정화하기 위한 법석이었고, 종단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그 신호탄이 발사되고 벌써 20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 변화한 만큼 한국불교도 많은 변화를 맞았다. 7명의 총무원장 스님이 조계종을 진두지휘하며 포교와 사회사업에 힘썼고, SNS의 유행과 더불어 법륜·마가·정목 스님 등은 국민 힐링 멘토로 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점도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승풍 실추 사건부터 각종 비리,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종 종단 선거는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1994년 내보인 5대 지표가 무색할 정도다.

1994년 개혁의 성과는 분명하다. 세속 정치세력과 결탁해 종단을 사유화하려 했던 기득권 세력의 전횡을 사부대중의 공의로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직선제와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좌절되고 감사처 신설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종헌에 '사찰 재정 공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혁의 태생적 한계다. 또한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일상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했고, 근원적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종단 활동의 99%가 정치이고 거래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정치적 의도와 성격을 갖은 자정 기구도 자정활동의 정치화라는 역기능만 낳게 됐다.

이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철옹성 같은 성벽과 해자같은 사회, 사부대중, 출재가자 사이의 간극과 장벽을 부수는 일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지적처럼 미래세대는 이 같은 장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바뀔 때 한국불교는 정말로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불교계, 문화재 수리 과정에 주목하자

문화재청이 4월 9일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5개 방안을 담은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수리업 등록요건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수리기술(기능)자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무보유 요건이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를 부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재료 인증제 및 목재 수림지 조성 부문. 전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이다. 단절됐거나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 재료·기법의 계승·복원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재 복원용 목재 수림지 조성, 전통기술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계 사찰은 전통적인 기법이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들이 목재 수림지 조성 등에 연계해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는 박제화된 문화가 아니라 지금도 그 공간과 문화 안에서 생활과 수행이 이뤄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때문에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 보존해 오고 있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교계는 문화재 수리체계 변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한번 살피고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화재청도 이번 대책을 만연했던 문화재 수리·보존 사업 비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 대책에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부실을 부르는 고질적 이유로 지적돼온 촉박한 공사기한 문제, 공무원·자문위원 등과 수리업체 간의 유착 등에 대한 개선책은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 보존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선 나 힐 링 아 카 데 미

SUNNA HEALING ACADEMY

선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중관]이라는 말로
[중심을 관하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선 나, 즉 일어 선 나, 바로 선 나, 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나힐링센터에서 말하는 [중심]이란 가슴바탕의 편안한 자리를 말합니다.

명상 · 치유 · 힐링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 선나힐링아카데미

선나힐링아카데미는 지난 20년간 명상 및 치유 전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 왔습니다.
현재 구선 스님 (김춘기)을 대표로 의사, 교수, 강사, 작가 등 전문 연구원들과 12개의 회원 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나힐링아카데미와 함께 공부하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내

1 생명 사상 교육 : 처음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최종 자기 완성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불교의 화엄사상과 현대과학사상, 민족 전통사상인 천부경사상에 입각하여 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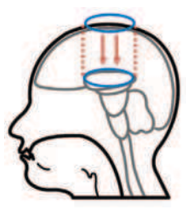
– 강의내용 :
1) 우주생명의 시작과 존재양태 – 생명세계와 물질세계
2) 영혼의 생성과 육체의 형성 – 한 생명의 세분화와 개체생명의 출현
3) 생사와 육도윤회 – 태생, 난생, 습생, 화생(4생)의 원리와 죽음의 세계
4) 우주시대를 위한 새로운 생명관.
– 교재 :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 관, 12연기와 천부경



2 대승불교의 수행법 : 대승불교의 수행체계인 3관법, 3해탈법, 3무상법을 아함경, 원각경, 반야심경을 통합하여 강의합니다.

– 강의내용 :
1) 조견의 법과 중관법 – 선나
2) 오온의 법과 가관법 – 삼마발제
3) 개공의 법과 공관법 – 삼마지
4) 금강경과 허공해탈도, 금강해탈도
5) 반야경과 반야해탈도
6) 원각경과 인지법행도
7) 아함경과 구차제정 – 초선정에서부터 9선정까지
8) 심식의의 형성과 유식체계 – 생멸식과 진여식
– 교재 : 관, 쉴 줄 아는 지혜 / 관, 8진로의 수행체계 / 관, 12연기와 천부경





3 자연치유사 양성 교육 : 한 생명으로서 인간이 자연과 교감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 다른 생명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며 진단사 과정과 치유사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진단사 과정 강의내용 :
1) 중심의 형성과 7식의 발현 : 대승불교의 중관법을 통해 다른 생명과 일치를 이룰수 있는 마음바탕을 만듭니다.
2) 심진법 : 중심을 통해 상대와 일치를 이루어서 진단하는 방법을 배우며 육장육부 각각의 진단법과 의식체계, 감정체계, 몸체계에 대한 진단법이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3) 기진법 : 7식의 촉감, 즉 기운의 감각을 통해 체감각과 수장을 활용해서 상대를 진단하는 법을 배우며 원거리 기진법과 근거리기진법이 있다. 원거리 기진법은 멀리 있는 상대를 체감각과 수장을 활용해 진단하는 방법, 근거리 기진법은 가까이 있





는 상대를 체감각과 수장을 활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4) 발성 진단법 : 한글 자음발성을 통해 몸과 의식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기역 발성 – 3차신경 하악분지, 턱관절, 미주신경, 셋째 뇌실의 상태 진단.
㉡ 니은 발성 – 3차신경 안분지, 비공, 뇌하수체, 송과체, 연수, 척수, 교감신경 상태 진단
㉢ 디귿 발성 – 심폐상태 진단
㉣ 리을 발성 – 임맥, 독맥을 경유하는 체감각상태 진단
㉤ 미음 발성 – 안면신경, 교뇌, 측두엽피질, 가쪽뇌실, 간비장 상태 진단
㉥ 비읍 발성 – 안면신경, 교뇌, 넷째뇌실, 신장, 췌장, 담 상태 진단
㉦ 시옷 발성 – 3차신경 척수핵 경로, 방광, 천골신경 상태 진단
㉧ 이응 발성 – 위장상태 진단
㉨ 지읒 발성 – 셋째뇌실, 간뇌 상태 진단
㉩ 치읓 발성 – 두정부피질상태 진단
㉪ 키읔 발성 – 연수, 소뇌 상태 진단. 전정기능 중 수직공간감에 대한 진단
㉫ 티귿 발성 – 시각경로와 시상, 시각피질 상태 진단. 전정기능 중 수평감각에 대한 진단
㉬ 피읖 발성 – 안면신경, 폐 상태 진단
㉭ 히읗 발성 – 의식, 감정, 의지간의 균형상태 진단
5) 뇌척수로 진단법 :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양을 통해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생명경로인 뇌척수로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기본 6가지 패턴과 총 72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 시개척수로 : 보는 생명경로의 상태를 진단
· 전정척수로 : 몸과 장부의 균형상태를 진단하고, 듣는 생명경로의 상태 진단
· 피질척수로 : 폄근의 작용과 미세운동을 주관하는 생명경로의 상태를 진단
· 그물척수로 : 수면, 각성, 신경조절물질의 분비에 관여하는 생명경로 상태 진단
· 적핵척수로 : 굽힘근의 작용과 사지관절운동을 주관하는 생명경로의 상태진단
· 소뇌척수로 : 운동, 지각, 감각을 주관하는 생명경로 진단
– 교재 : 관, 중심의 형성과 8진로 수행체계 / 다도명상 점다 / 관, 한글 자음 원리 / 뇌척수로 운동법



4 힐링 지도자 양성교육 : 앞서 제시한 수행법과 진단, 치유법 그리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힐링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강의내용 :
· 초급지도자 과정 : 뇌척수로 운동 1단계를 지도할 수 있고 식물 양자장 화분생성기와 미세전류생성기 등 본원에서 제공하는 힐링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치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중급지도자 과정 : 뇌척수로 운동 2단계를 지도할 수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패턴으로 간단하게 뇌척수로의 상태를 진단할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 고급지도자 과정 : 초급, 중급 과정을 이수하고 상황에 따른 운동처방과 발성처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5 학습지도자 양성교육 : 올바른 교육의 목적과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강의내용 :
· 1단계 – 베타파 학습 지도자 과정 : 의식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다투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얻을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지도해줄 수 있는 과정으로 의식 감정 의지가 다툴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정해줄수 있는 과정이며 뇌척수로 운동법중 적핵척수로 운동법과 자음발성법 중 기역, 니은, 미음,비읍, 이응 발성이 쓰여집니다.
· 2단계 – 알파파 학습 지도자 과정 : 가슴에 세워지는 편안함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지도해줄수 있는 과정으로 3관법이 활용됩니다.
· 3단계 – 세타파 학습 지도자 과정 : 가슴바탕에 세워지는 편안함과 머릿골 속에 세워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통합하여 다른 생명과 조화적 교류를 행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지도해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 교재 : 도넛츠 학습법

6 고려시대 전통 다도 교육 : 고려시대 다도법인 점다법과 전다법을 통해 재료와 사물의 생명성을 인식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강의내용 :
1) 점다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물, 불, 용기, 차' 의 원리를 파악하고 각각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 본성과 의식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2) 물이 끓는 13단계를 배우고, 재료에 따라 물에 넣는 시점, 불에서 내리는 시점, 차를 뜨는 시점을 배웁니다.
3) 재료에 따라 각각의 고유의 성분과 효능을 최대로 표출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몸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4) 빈객과 일치하여 상대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차를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5) 기본 녹차 보이차 과정에서부터(초급) 커피 (중급) 각종 약초 및 전문 한방 약차 과정(고급)까지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재 : 다도명상 점다

7 양자물리학과 양자의학 교육 : 동양의학과 양자의학의 연관성 및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양자물리학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합니다.

– 강의내용 : 양자의학 및 양자물리학 개론, 대체의학에서의 에너지의학과 양자의학, 생체광자와 양자의학, 양자생물학, 양자의학 이론, 후성유전학과 양자의학

8 한글 교육 : 한글 자음, 한글 모음, 한글 문자에 깃들어 있는 천부사상을 배웁니다.

– 강의내용 : 한글은 단순히 표음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자음은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며 한글의 모음은 천지만물의 개체성을 보존해주기 위해 만든 것이며 부도지에 이르기를 천지만물은 천부8음인 려상에서 나왔다고 했으며 우리 민족의 시조인 마고가 창조물이 소멸되는 것이 안타까워 율상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이때의 려상이 곧 자음이며 율상이 곧 모음입니다.

– 교재 : 관, 한글자음원리 / 부도지





9 전통문화컨텐트 교육 : 전통문화에 깃들어 있는 사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옛 사상과 기존의 과학사상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문화와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재출판



교재는 개별 구입 가능합니다.



관, 한글자음원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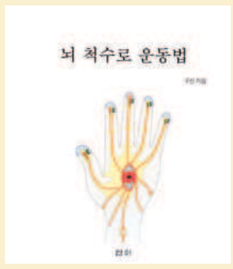
관, 쉴 줄 아는 지혜
(반야심경 강설) 2005년



관, 중심의 형성과 여덟진로의
수행체계 2005년



관, 십이연기와 천부경
2008년



뇌척수로 운동법 2012년



도넛츠 학습법 2012년



다도명상 점다

선나힐링 센터의 특허등록 제품들 : 선나힐링침대, 점다용 도구일체, 친환경 미세전류 생성기, 친환경 양자장 화분생성기, 건강 기능성식품 해령천다

SUNNA HEALING ACADEMY
선 나 힐 링 아 카 데 미
서울 종로구 평창동 595 갑을시티텔 B1F
TEL 02)766-8145 / FAX 02)765-8145
E-mail : on@sunna.kr www.sunna.kr